



변태소녀하늘을날다

태소녀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다섯번째 레즈비언 문화제 자료집

“죽지 않아- 죽지 않아-” 한때의 유행어를 읊조리며 어찌할지 모르며, 주면서 이해당사자에게
인사를 드리고 실문 심정으로 첫 페이지를 열어봅니다. 아직 죽지 않고 (일으로도 영원히 살아
있음) 파란 방에서 도착까지 지내지도, 또 어떤 편이 좋겠습니까. 2006년 10월 문화계
계정문을 봐, 변태수가 나고 있어? 외 성문(?)을 지극히 기꺼워한 때가 바로 그것과 같은데
별편 편이 둘이 다시 뜨거운 여름이 왔군요.

2007년도 별편 편지가 어떻게 지내셨나요, 어쨌든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별편은 또한 잘 보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해당사자(인)인 변태수(변태수)는
나도(이해 변태수) 하는 거대한 편지를 묻게되고 그 후에 모은 변태수(변태수)를 묻기까지 하여
이것 저것 바쁜 내일을 보내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10월이 주어진 동성(동성)을
세미하게 마치고 다가온 막강은 심심스런, 인타카를 마음껏 잠시 정아를 해,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파란 방에 두근두근 모여 굳어 버린 머리를 풀어헤치고 있습니다.

한때 문화계로군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저에게는 힘으로 가며 두근두근
대는 마음을 가늠 길이 있습니다. 10월 때 변태수 돌아와 아무것도 모르는 새라기엔 어쨌든
편지를 보내고, 10월 문화계를 연해서 극적인 볼거리를 주고 싶을 것이지요. 10월 편지 지내시고,
별편 편지반을 눈 밑에 둔 나이가 되어 이렇게 어는 글을 쓰게 되었네요.

이런 변태수 문화계를 무사히 마치고 내년엔 또 한때 문화계를 함께 할 수 있을 지는 잘 모르겠지
만 아무튼 또 극적인 볼거리를 주고 연설이 따지고, 빚을 새어 작업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글 쓴지가 하도 오래 되어 마저 글도 손가락도 굳어져서 문단들이 이따 저따 놓아주고 있네요.
결국 하고 실문 밑문. 그저 반갑다는 겁니다. > 필기 변태수 방편 편지로 힘을 다시 얻으며 해를
면서 문도 깨끗하게 다시 칠해놓았더니 어떤 유언하는 문 일의 뜻이 있어졌다며 변태수가 말한
것이 아니라 말한(변태수-...)도 하십니다. 그저, 우리 변태수(변태수), 곳곳이 과연 과연 살아있습
니다. 일으로도 그럴 까닭이! 답답한 마음을 얻어내고 다시 또 이해당사자에게 멋진 모습으로 다
가서기 위해 열심히 문화계 준비를 하며 반가운 마음을 마구 마구 분출할 때니 귀중한 관심과 사
랑(?) 부탁드립니다. ㅎㅎㅎ

'변태수'

2007년 9월 변태수(변태수)는 한때 문화계를 이끌고 있어줍니다.
변태수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에 두 개만 살짝 언급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변태수(변태수)'의 유일한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말 그대로
change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태수라는 어휘들이 자로잡을 주위 있으면
서, 그리고 학문적 틀을 뛰어넘어 감정, 지혜를 넘어서는 공간의 정신을 통해 문화계 행사를 지어
시면서 나름대로 정돈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저리 주저리 말하는 건 그만 짚어 치우고 본격적으로 변태WORLD로 함께 가시죠. 변
태수(변태수)의 무한한 매력에 빠져들어 있는 파란 하늘같은 공간에서부터. 금아 변태수(변태수)의
시장에서조차- 마음만은 자유로 가득 채워놓으세요! 어쨌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쨌든의 그득그득한 사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5번째 문화제를 기념하며

by SEA

5번째 문화제를 기념하며
변태소녀아를 낳다 활동내역

안내말씀

첫번째. 그녀들의 이야기

약하의 이야기
야겐의 이야기
수아의 이야기
린의 이야기
봉기의 이야기
M의 이야기

두번째. 변하다

변하다. by Dykeblue
레즈비언 문학작품에 대한 이야기 by 수아
성소수자속의 레즈비언 by 린
about LESBIAN MOVIE by 약하
OUT: 이안갑일 두번째 이야기 by KAZE
미안 미안해 by 스테이지
어 이왕, 우릴 꾸역사수아 부르지 마라 by Dykeblue
LESBIAN ART by 야겐
그녀들의 아름다운 거대한 위험한 공간 by Sea
Her FRIDAY NIGHT by KAZE

세번째. 아름다운 사람들

웹에서 어우적어리미를 좋아하는 당나귀를 위한 레즈비언 문화잡인 L zine- by 약하에
세계최초 여성이한 풍물패 바람소리 by 야겐
레수아로 주마수를 돌려 by Dykeblue
수요일 사정, 아로 FM 100.7에서는... by 불봉

네번째. 아직 못다한 이야기

아홉살 4년 레즈비언 by Sea
남성성에 대한 야유 무시, 이제 여성을 외치라
레즈비언 두번째 by 린
가족대답
함께해주시는 분들
마지막

"문화제"가 내가 언제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문화제"가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지된 밤들이다.
어떤 조그마한 것이 때때로 파생된 것을 끌어다 놓아 현재를
복합화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변태의 이야기 中



첫번째. 그녀들의 이야기

박하의 이야기

대학에 들어온 후, 언제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들의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 보기의 항목은 남/녀, 대학생, 한국인, 가족의 일원 등이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1번에 '기타: 성적소수자' 라고 써넣었다. '성적소수자' - 현재 나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한다.

20년의 길지는 않은 삶을 살면서, 나는 여자를 좋아한 적도 있고 남자를 좋아한 적도 있었다. 내가 가장 처음 여자를 좋아했던 것은 남녀공학이었던 중1때였다. 몇 년 동안 친했던 친구였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 아이가 예전의 '우정'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 왔다. 당시는 그 아이를 연애감정으로 좋아했다는 것을 확신하였고 동성애라던가 레즈비언이라던가 하는 개념도 어렴풋이 주위 들어 알고 있었기는 했으나 그에 대한 별다른 고민은 없었던 것 같다. 아마 그때는 '여자'를 좋아한다는 인식보다는 그냥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답답하게 생각하고, 연인으로서 사귀거나 하는 관계는 아예 생각지도 못해서 그랬을 듯 싶다. 그 이후로도 몇 명인가의 사람을 좋아했었고 중3때는 어떤 남자아이랑 잠시 사귀다 별 감흥 없이 헤어진 일이 있었다. 그리고 고1때 일반인 여자아이를 좋아했었는데 그때도 동성애에 대한 인식은 거의 없었다. 내가 원래 친구에게 집착하거나 간섭하는 성격은 정말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와 친한 다른 한 아이에 대해 질투를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난다. 영문 모르는 내 친구들은 왜 이유 없이 착한 그 아이를 싫어하냐고 물었고, 나는 사실대로 얘기하지도 못하고 그저 답답했었던 기억도 난다. 이 자리를 빌어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싶다.

내가 나의 성적 정체성에 대해 어렴풋이 생각하게 된 때와 계기가 언제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때 즈음에 영화와 책들을 이것저것 많이 보며 소위 말하는 '진보적인 사상'을 처음 접하면서였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 성적 정체성에 대해 정보를 찾아보며 깊이 생각하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었고 특별히 혼란에 빠진대거나 고민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했었다. 아마 사회적인들과 규제를 별로 의식하지 않고 웬만한 것은 유하게 받아들이는 내 성격이 많이 작용한 듯하다.

그리고 2006년 19살의 봄, 나는 그녀를 만났다. 고3때의 열 반이었던 그녀는 굉장히 감성적이고 치열한 '여자'였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 날의 미장센 필사이닝 삼주 향기와 새하얗게 올라가는 담배연기, 그리고 종종히 박혀있는 밤하늘의 별. 그렇게 그녀는 이전의 누구보다도 강하게 내 마음 속에 들어왔고, 내가 '사랑'한다고 말한 최초의 사람이었다. 그러나 결코 순조로운 연애는 아니었다. 내 눈이 온전히 그녀만을 바라보고 있는 반면에 그녀의 눈은 항상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철저한 관계의 일방성- 하지만 가장 찬란하게 상대방과 자신에게 몰두하며 순수하게 느낄 수 있었던 그 특별했던 시간들, 활활 타올랐다가 현실에 부딪혀 사그라든 그 날카롭고 청명한, 살아서 쏘아 붓는다는 느낌, 어렸기에 너무나 어설프고 서툴렀던 그 시절을 함께 보낸 그녀에게 나는 감사한다. 현재는 각자 바쁘게 살며 스스로없이 과거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사이가 되었지만, 1년 전 그녀를 기다리던 나의 미친 듯한 심장박동과 정성스럽게 쓴 편지, 괴로움에 숨죽여 울던 학교 다락방의 기억들은 모두 나의 일부로서 남아있다.

이 '첫사랑' 경험과 함께 나의 본격적인 정체화의 또 다른 큰 계기는 2006년 퀴어 퍼레이드의 참가였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에서 활동하는 아는 후배의 권유로 놀리가는 셈치고 그녀와 함께 참가했던 퍼레이드가 나의 인생에 크나큰 영향을 끼친 것이다. 레즈비언의 '레' 자만 꺼내도 쉬쉬하는 이 사회에서 대낮 대모에 수백 명이 모여 성적소수자의 권리를 외치며 즐겁게 행진하는 모습, 그날 주룩주룩 내렸던 장마비, 벽구름 사이로 자랑스럽게 휘날렸던 무지개 깃발의 벽만 감동과 해방감, 자긍심을 나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이런 두서없는 과거 이야기를 여기까지 보아주신 여러분께 감사) 이번 해에도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긴 했지만 패스하기로 하고.

다행스럽게도 나는 운이 좋은 것인지, 커밍아웃 이후의 곤란이나 아우팅 관련 문제는 딱히 겪지 않은 편이다. 정체화 이후로는 웬만큼 친한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며 커밍아웃하는 편인데, 대상자 모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심지어는 자신도 커밍아웃하는 경우도 꽤 있었다. 주위에 나를 지지하고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나에 대해 숨기지 않고 허물없이 이야기 나눌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다. 현재 사귀는 사람은 없지만 너무나도 고마운 사람들과 함께 오늘도 나는 스무 살의 바른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 내의 나의 베스트 프렌드의 명쾌한 조언으로 마무리.

"간혹 여중, 여고를 나왔으니 여자를 좋아하게 된 게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기도 하잖아. 물론 환경적 조건에 의한 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나 동성애의 감정뿐만이 아니라, 인간은 원래 환경의 산물이야. 내가 하고 있는 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모든 것이 환경으로부터 깊이 영향을 받아. 그런데 동성애를 느낄 상황이었다는 것만 일부러 들춰내 그 감정은 착각에 불과하다고 몰아세우는 것은 때도야. 그건 중요한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진보적으로 사고하는 가정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진보적으로 사유한다고 해서, 그런 사유방식이 거짓된 것이라던가, '진짜 사유'가 아니라던가, 이렇게 몰아붙이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 굳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외적으로 까다롭게 구는 건 단순한 호모포비아적 태도인 듯. 중요한 건 내가 현재 어떻게 사유하고 있는가인 것처럼, 중요한 건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 아닐까. '어떤 조건이었기 때문에 파생된 것일 뿐이다' 라며 현재를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박하의 이야기 끝.

야켄의 이야기

다른 부류로 살아가기



3년 내내 손가락질 당했다.

질리고 질려서 정말 지쳐버릴 정도로. 이것이 한참 감수성이 예민하던, 흔히 '사춘기' 라고 불리우던 시기의 나의 고등학교 시절 전부이다.

1학년 - 나는 온통 머리긴 아이들 속에서 혼자 머리가 짧은 아이였고, 찢어져 치켜올라간 눈꼬리에 인상도 몹시 안좋았다. 게다가 어느샌가부터 흔히 '칼머리' 라고 불리우던 머리를하거나 나와같이 컷트머리를 한 선배들이 교실에 찾아오기 시작했고, 점점 그 선배들과 밖으로 나도는 시간이 길어졌던 나는 자연스럽게 공부에 지쳐 무언가 새로운걸 원했던 아이들에게 눈에 띄어 아주 쉽게 구설수거리가 되어버렸다. 남의 얘기하기를 광적으로 좋아하던 그 아이들의 한낱 심심풀이 애깃거리로 전락해버렸고, 그 애깃거리의 파장은 생각보다 몹시 컸다.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바뀐 아이들의 시선, 하나 둘 이유도 없이 결을 떠나가던 친구들, 복도를 걷다 보면 느끼게 되는 모르는 아이들의 끔찍한 시선들.

그 때까지도 나는 왜그런지 몰랐다. 왜 아이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나를 점점 괴하는지.. 그 상태로 2학년에 올라갔다. 2학년이 되자 뒤에서만 나돌던 그 구설수는 점점 표면으로 떠올랐고 내 귓가까지 맴돌아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1학년 내내 나를 찾아오던 그 컷트머리 선배들과는 오해가 생겼다. 그 선배들한테 끌려가서 밋을 뻔 하기도 했다. 결국엔 그 선배들도 날 떠나가고, 날 바라보던 시선들은 점점 더 이상해져가고, 새로 들어온 후배들에게까지도 몹시 '이상한' 선배로 낙인이 찍혀버렸다. 파장은 몹시 크다. 특히 남의 애깃 하길 좋아하는 여자아이들 사이에서는 더더욱. 불일이 있어 후배에게 찾아가 밋을 건 이후로 전교에는 내가 그 아이에게 '고백' 했다는 소문이 떠돌았고.

그 때까지도 용케 내 곁에 남아주었던 친구들은 나와 같이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와 사건다-란 소리를 들어야 했고, 일반인으로써 그것을 견디지 못했던 여린 여학생들은 나에게 작별을 고했고, 3학년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 구설수는 꼬리에 꼬리를 물어 정말 감당할 수 없을만큼 큰 파장을 나에게 안겨주었고, 그 무렵 나는 완전한 '혼자' 가 되어버렸다. 선생들조차도 싫어했던 나이기에 눈에 띄지 않는 구석자리에 처박혀 하루종일 말한마디 안하고 음악을 듣거나 자거나 책을 읽는일이 내가 할 수 있는일의 전부였다. 그러다 종종 '아프다'란 핑계를 대고 학교에서 도망치기 일쑤였고.

모든 나와 같은 이들이 나처럼 살았을거란 예기는 결코 아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그들 사이에 잘 동화되어 정말 멋진 학창시절을 보낸이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난 그러지 못했다. 내 성격이 유별난건지 나는 나에게 생긴 오해(?) 같은 것들은 풀려고 노력조차 안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멀어지면 나는 그 멀어진 이유에 대해 케물을 생각조차도 안하고 그들을 보내주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 나는 점점 나를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그들을 멀리했다. 견디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냥 모른척했다. 해명할 생각도, 당당히 밝힐 생각도 아무런 노력조차 안했다. 불우하다면 불우하다고 할 수 있는 나의 그동안의 학창시절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중학교 3학년 무렵, 나는 여자와 여자가 사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우연한 기회에 그들 - 여자와 여자끼리 사귀는 이들-레즈 혹은 이반이라 불리우는-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점차 길어지면서 나는 호기심에 가득 차 장난스레 한 여자를 사귀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커뮤니티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그렇게 만나는 사람은 점점 늘어났다. 그러다 한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어려서 그랬던건지 철이 없어서 그랬던건지 - 장난으로 시작한 사귀이 나에게 혼란을 가져다 주기 시작하던 차에 만난 사람이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한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서 머릿속의 혼란스러움은 점차 가중되었지만, 그 당시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 일이 최선이었다. 어린나이였지만 나는 그 사람을 죽을만큼 좋아했던 것 같다. 아직도 생각하면 아찔할 정도로. 물론 죽을 정도로 좋아할만큼 이별의 아픔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지만, 그 이후로 나는 내가 레즈비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는 고등학교 시절 3년 동안은 그렇게 믿고 살았고, 내가 그 동안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 나와 같은 '여자'였다.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서 나는 또한번의 혼란을 겪었고, 그것은 내 정체성이 '레즈비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점점 나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싶어졌다. 학창시절 겪었던 끔찍한 일들을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았고, 나는 상당히 겁쟁이었다. 또 다시 그 불행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점점 현실을 외면하며 나와 같았던 친구들을 점점 멀리하고 그들의 커뮤니티에 발을 들여놓지 않게 되었으며, 남자도 만났다. 하지만 그 것은 내가 고등학교때 나를 손가락질 하던 인간들과 점점 같아진다는 또 하나의 사실일 뿐이었다.

긴 시간동안 나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혼란스러워하던 그 지독한 열병을 앓고 난 후인 지금 나는 나를 감히 '바이 섹슈얼'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굳이 정의하자면 말이지, 긴 시간을 나는 나를 '레즈비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고, 한동안은 부정했고 그것을 반복했지만 돌아켜보면,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이 '여자'라서 좋아했던것이 아니라 난 그들을 한사람의 '인간'으로 사랑했었던 것이다. 나는 솔직히 똑같은 인간들끼리 서로를 사소한 단어 하나하나로 분류시켜 서로를 마치 다른 종류인 것 마냥 대하는 현실에 그저 웃음이 날 뿐이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한다는데 대체 그 경계가 어디있는것이며 그 기준은 또 누가만들어논건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 않겠는가.

단지 나는 그저 정의내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에 의해 분류되어버린 하나의 희생양일 뿐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나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운, 그 악몽이 반복되어버리는 것 자체가 끔찍하게 느껴질뿐인 겁쟁이다. 그래서 난 내 신분을 드러내놓고 당당히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잠자코 당하고 있지 않은 알고 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라도, 시원하게 말해보고 싶다. 제발, 당신 주위에도 분명히 존재할 누군가의 인생에 돌을 던지지 말아주시길.

야켄의 이야기 끝.

수라의 이야기

아이쿠, 저에게 관심분야 밖인 연애 이야기를 쓰라고 하십니다.

나를 전 글 마감을 앞두고 머리를 쥐어뜯다 무책임하게 인터넷을 할 수 없는 시골 오지로 날라버린 글쓴이, 서울로 돌아와 보니 글을 기다리는 편집자의 애타는 마음이 느껴져 씻지도 않고 끄적이기 시작합니다. 뭔가 재미있는 글을 토해내야 할 텐데, 호호호.

나를 전에 사놓은 사과타르트는 완전 녹아내렸습니다. 인문관 맞은편 건물 1층의 라 본느 타르트- 여기 맛 있어요. ^^ 자, 이제 술술 이야기를 해봅시다. 참고로 필자는 '아, 난 레즈비언이구나. 앞으로 험난한 인생이 닥쳐오겠군.' 이라는 인식을 했다가보다는 '연애대상이 여자면 어떻게 남자면 어떻게~저마다 다른 거지' 라는 좀 무즈한 사고방식의 소유자였더랍니다. 오늘 점심은 오프라이스를 먹고 싶어-라는 느낌으로 커밍아웃 아닌 커밍아웃을 했구요. 아웃팅의 위협- 그다지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딘가 나사가 풀렸단니까요. 아하하.;; 다행스럽게도 필자가 이성애 중심의 사회가 보기에 약간 위험한 사고방식을 설파하고 다녔던 시절에 필자를 비난하던 이들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가까운 주변 사람들은 필자가 L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줍니다. 참 고마운 사람들이죠. :) 다만 지금은 본인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 정체성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런 필자에게 'L들은 패체적이다' 라거나 '너무 숨기는 게 많다' 라는 친구들도 있으나-너그러이 이해해 주세요. 아직은 당당히 벽장 밖으로 나오기엔 사회의 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변날이 있는 거구요.^^

사실 '이것도 저것도 일단은 경험' 이라는 신조를 가진 필자는 이성애 사귀어본 적이 있습니다. 귀찮다는 데도 매일 종이장미를 접어오는- - 뽕안 피부의 눈이 정말 예쁜 소년이었던답니다. 한번은 같이 밥을 먹고 계산하고 나오는데 점원들이 뒤에서 '남자였어?' 라고 수군수군 하더군요. 외모뿐 아니라 성격까지 여성스러워서 흥미를 느낀 필자가 고백하고 리드하고 이것저것 해봤지만 결정적으로 애정이 생기지 않더군요. '너

는 대체 나랑 왜 사귀는 거냐. 나를 좋아하거는 하나' 는 소리를 몇 번 듣고 결국 헤어졌습니다. -_-;;

필자가 정말 좋아했던 사람은 한 동성 친구였습니다. 커피프린스의 윤은혜보다 백만 배 더 귀엽고 발랄한 조금 중성적인 아이였죠. 같이 있다가 밤늦게 집으로 돌아갈 때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갈림길 골목에서 서서 수다를 떨곤 했더랍니다. 반지하는 습하고 뽕뽕 기어다니는 벌레가 많으니까 춤도 더위도 옥탑방을 빌려서 같이 살자-는 풋풋한 얘기들을 했었는데 말이지요. 둘이 여행도 자주 다녔습니다. 한번은 야간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툄루랄라 떠났었는데 금세 잠들어서 기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헤드뱅잉을 해대는 그녀가 어쩌나 귀엽던지. 확 덜컹거리고 싶었...이 아니라 밤새 잠도 못자고 지켜보고 있었습니. 보호본능?ㅋㅋ

이 모든 것들을 과거형으로 쓴 이유는- 지금은 굉장히 서먹서먹하기 때문이지요.ㅠ_ㅠ 어느 날부터 갑자기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때 그녀가 상당히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했었고- 우울증으로 정신 상담을 받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뭔가 도움을 주려 했지만 잘 안된데다가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의사소통이 없어졌죠. 정말 답답했지만 언젠가 회복되기를 기다릴 뿐 달리 할 일이 없더군요.

그리고 1년 후! 그녀에게서 1년 전처럼 갑자기 밥을 사겠다- -는 연락이 왔습니다. 조잔병이 그녀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필자가 좋아하는 파스타를 사주더군요. 식사를 마치고 정말 진지하게 필자를 대하는 태도가 서먹해진 건 1년 전 필자의 어떤 사소한 행동 때문이었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orz... 함께하지 못한 사이에 필자 중심이었던 그녀의 세계에는 많은 타인들이 들어서 있더군요. 질투심이 활활 타올랐지만 혈령한 사고방식의 소유자인 필자는 자애로운 보살상처럼 웃으며 전처럼 지낼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치만 지금은 억지로 끌어내서 같이 다녀도 팔짱도 못 끼고 손도 못 잡게 합니다. 엉엉ㅠ_ㅠ

마치 연애 이야기인냥 구구절절 늘어놓았지만 정식으로 사귀었던 건 아닙니다. 후반엔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위태롭게 걷고 있었죠. 만일 서로의 위치를 확정하면 친구로서의 관계마저 무너져버릴 것 같은 두려움을 한켠에 가지고 있는 그 아슬아슬함. 지금 생각하면 참 슬픉니다. 우리가 공식적인 연인이었다면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주변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저의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이야기를 들으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시도도 해보지 않고 쓸데없는 걱정일 수도 있지만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그녀에게 동성애자라는 점을 지우고 싶지 않은 마음이 항상 존재합니다. 혼자 걷다가 같이 장을 보고 돌아가는 젊은 부부나 손을 꼭 잡고 걷고 있는 노부부를 보면 참 부럽습니다. 아, 정말 속복받은 안정된 커플이구나. 하고.

아아, 결국 재미없는 글이 되어버렸습니다. 빈 타르트상자만 앞에 놓여있군요. 라 본느 타르트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지 못한 죄송함을 담은 저의 팁이라고 생각해주시요. 쏠쏠한 초콜렛 타르트도 일품입니다. 생뽕맞게 먹는 이야기만 계속하는 수라였습니다. 바이바이~~~

수라의 이야기 끝.

린의 이야기 그리고, 스물.

Are you a lesbian?

무례한 질문이라고 면박을 주었어야 마땅했음에도, 나는 자로 쥔 듯 두 번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사실 Yep-이라고 좀 더 경쾌한 대답을 했었는지도 모르겠다. 벌써 2년이나 지난 이 날 밤 나는 처음으로 레즈비언으로서의 커밍아웃을 했고, 저 질문을 던진 그녀는 내가 런던에 머물렀던 두 달 남짓 되는 기간 동안 나와, 사랑을 했다.

같은 어학원에서 만난 그녀는 대만 출신이었고, 여섯 살 연상이라는 나이에 걸맞게 가끔은 고압적인 자세를 취했다. 형편없이 휘갈겨 적은 영어 숙제를 체크 해 주거나, 내 손에서 와인 병을 빼앗을 때 특히(어쩌면 마땅히).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녀는 열 여덟의 나에게 상냥하고 세심했다. 두 달 남짓의 연애 기간 동안 빈번이 싸움을 거는 건 나였고, 달래주고 사과를 하는 건 그녀였다. 우리는 함께 장을 보고, 그녀의 작품집을 감상하고, 늦도록 서로의 무릎을 베고 누워 영화를 보거나 거리를 쏘다녔다. 돌이켜 생각하면 그건 내가 원하는 연인과의 일상과 흡사하긴 했으나 차라리 일탈이라 하는 편이 옳았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는 현실이었지만, 동시에 곧 깨어질 꿈과 다를 바 없었으니, 대학원에 진학 할 예정이었던 그녀가 몇 번이고 내게 다시 돌아오겠다는 다짐을 받아내던 순간조차도 우리는 이런 날들이 길게 지속되지 못하리란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이별이 연애 기간 동안 연출했던 온갖 신화적인 장면들에 비해 꽤나 담담하게 이루어진 이유이기도 했다. 내가 공항을 떠나기 직전 그녀는 내 코트의 앞섶을 여며주었고, 손을 끌어당겨 힘있게 쥐었다가는 놓아주었다. 그게 전부였다. 내가 한국으로 돌아온 뒤, 서로의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긴 했으나 늘 한쪽이 부재중이었기에 목소리를 들은 적은 없었다. 내가 그녀를 기억하듯이 그녀가 나를 기억해주었으면 하지만 글썽- 그녀에게 난 아직도 왕성한 호기심과 그에 반하는 조신한 심장을 가진 십대 레즈비언이 아닐까.

물론 이 연애 전에도 내게 특별했던 '여자' 친구가 존재하긴 했다. 중학생으로 처음 만난 우리는 서슴없이 연인의 밀어와(물론 학생의 신분엔 걸 맞는), 연인에게나 어울릴 법한 선물들을 주고받았다. 허나 이 때까지만 해도 아직 레즈비언으로 정체화 이전이었던 내게 우리의 관계를 정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녀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3년을 이런 식으로 지속했던 우리의 사이가 자연히 소원해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스스로를 받아들이지도, 인정하지도 못했던 내 잘못이란 밖에.

세 번째 연애는, 런던에서 돌아온 내가 가장 아끼는 친구에게 커밍아웃을 함으로 해서 시작되었다. 그 친구 덕에 나는 그녀와 같은 학교에 다닌다는 또 다른 레즈비언을 만났고, 수십 통의 문자가 오간 뒤 몇 번의 만남과 그녀의 고백이 이어졌다. 그러나 고등학생의 신분이었기에 문자와 전화, 주말의 만남이 주가 된 연애가 시작부터 이상하게 불안했다고 하면 거짓말일까. 감정이 깊어 갈수록, 그녀를 보고 있을 때면 문득 적당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지겨워 할 때까지 들려주고 싶어지곤 했다. 연애가 이 모든 것이 끝나야만 하는 순간이 온다면, 이 사랑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떠올리며 한번 더 생각해달라고.

그리고 나의 예감은 적중했다.

엄마는 늘 일반성의 결여로 단죄된 것들에 대해 한없는 관대함을 보이곤 했다. 동성애도 예외일 순 없었다. 엄마는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포용할 자세를 갖추고 있었다. 분명히. 그러나 그것은 엄마가 엄마의 딸, 바로 나의 성 정체성을 발견하기 전까지였다. 물론 엄마를 무작정 비난하려는 건 아니다. 엄마의 분노 속에서 난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다. 그건 편견 심한 이 사회에서 동성애자인 자식이 앞으로 겪어야 할 고통에 대한, 엄마 세대의 선형적이고 당연한 두려움이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엄마가 후에 그 때 보였던 즉각적인 반응에 대해 사과했을 만큼 그 사건은 충격적이었다. 나는 식칼을 들고 그녀를 찾아가겠다는 엄마를 간신히 말려야만 했고, 엄마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협박의 말을 쏟아냈다.

내 세계의 중심이 이동한 것이 바로 이 때였다. 그 중심에서 난 부모님, 특히 내가 늘 믿고 의지했던 엄마를 밀어내고 그녀를 세웠다. 나는 천성적으로 나약했고, 늘 누군가에게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의 이유와 목적을 구함과 동시에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했다. 때문에 엄마의 그 위협들이 허언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난 몰래 그녀를 만났다.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녀의 태도에서 달라진 뭔가를 감지했지만, 난 내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모든 척 애를 썼다.

결국, 당연하게도 그녀는 떠났다. 나는 오래 기다렸고, 그녀는 연락하지 않았다. 이별의 문자를 보낸 것은 나였으나 그건 이별 통보라기보다는 내 한심한 기다림에 대한 자위에 가까웠다. 그렇게 해서 나는 엄마에 대한 신뢰를 거졌고, 거둔 신뢰를 모조리 쏟아 부었던 한 사람마저 잃어버렸다.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사건이었기에 나는 이제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 지 알 수 없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스트레스 때문에 심해진 위궤양으로 내과에도 끊임없이 들락거려야 했다. 원래도 속내를 잘 드러내지 못하는 나였지만, 이 경우의 문제점은 고통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다는 데 있었다.

내가 감히 누구에게 말 할 수 있었겠는가. 이 모든 걸 함께 나눠 줄 수 있었던 단 한명의 친구를 제외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내 슬픔은 그저 좀 유별나고 시끄러운 연애를 끝낸 데 대한 지극히 나다운 신화적인 반응일 뿐이었다. 결국 무너진 스스로를 추스르는 것은 온전한 내 몫이었고, 1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이십대의 나는 차꾸만 해집게 되는 십대의 과거를 돌아보지 않기 위해 노력 중이다. 만약 다시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이번에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음은 물론, 내 삶의 전부가 아닌 삶의 일부가 되는 사랑을 하겠다 다짐하면서.

린의 이야기 끝.

통키의 이야기

—아웃팅, Am I Guilty?

지금 우리 자세— 분명히 엄청 웃겨 보이겠지. 이런 생각이 머리를 삭 스치고 지나갔다. 그야 당연하지. 여자 둘이서 끌어안고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명은 상대방의 입술에 혀를 가져다 대려고 하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상대방을 있는 힘껏 밀어내고 있으니. 미치겠네. 정말 난처하다. 애도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많이 취했나? 그냥 일찍 집에 들어갈 걸. 백만가지 생각이 휘돌아다니는 마법사들 마냥 머릿속을 날아다니는 찰나, 혀 끝을 내 입에 넣으려던 친구가 정색을 하고 던진 한 마디에, 나는 지금까지 내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곤 했던 이유를 단 번에 이해해 버리고 말았다.

"각각이가 그랬는데 네 애인 여자라며. 그럼 너 여자랑 키스할 수 있는 거잖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내가 아무리 놀리기 좋은 상대라고 해도 이 정도로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건 조금 심하지 않은가. 최근 들어 사람들이 나에게 이상한 말을 하고 성적으로 도가 지나친 장난을 치는 일이 유난히 많았지만, 이유를 모르는 만큼 각종 불쾌한 경험들을 그저 속으로 삭일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아하, 내가 일할 때 사람들을 너무 몰아세워서 이렇게 복수하는 거구나." - 라는 여유 있는 생각마저 했었다. 하지만 얼마 전 가까운 친구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당한 일련의 모욕(?)들이 아웃팅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하는 일이 많았던 나는 종류가 다른 여러 집단에 속해 있었고, 그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나가며 지냈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 감정기복이 심한 한 편의 프랑스영화 같은 연애를 하기 시작했고, 나의 감작스런 정서적 변화를 같이 있는 사람들이 눈치 채지 못할 리가 없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나는 각 집단의 믿음만한 사람들에게 힘겹게 커밍아웃을 했다. 염려와는 달리 모두들 다정한 손길로 나를 다독여주었고, 그것이 눈물 나도록 고마워서 뉘죽 찢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만약 그 때 실물리 었더라 절했다면 밤마다 벽에 날린 하이킥으로 집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겠지. 전부 이해해주었다고 믿었던 것 자체가 대단한 오산이었으니 말이

다.

분명히, 나는 나름대로 신중하게 상대를 골라 커밍아웃을 했지만, 그 상대들은 나의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다지 신중하지 않았다. 내 앞에서는 다들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머지않아 내가 속한 집단 대부분에는 내가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소문이 확 퍼졌다. (이것은 내가 정체화를 하기 전에도 경험한 것이지만—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아웃팅이라는 것은 별다른 "문제"로 느껴지지 않는 것 같다. 마치 연예인 누구 게이트, 하는 가십처럼 말이 오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막상 내가 당하고 보니 정말 환장할 노릇이 아닐 수 없었지만.) 그리고 곧바로 루머의 쓰나미가 몰려왔으니 이거야 말로 큰일이 아닐 수 없었다. 지구에 빙하기가 찾아온 것처럼 전지역적이고 동시다발적인 아웃팅으로 인해, 어느 집단에서든 사람들은 나에게 대해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배타적인 태도는 점점 심해져서, 일부 남자친구들에게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이야기마저 들었다. 나옴엔 대단히 중요한 정체성의 문제가 그들에게는 단지 놀림거리로 치부되는 것이 화가 났지만 대항할 방법이 없었다. 거리에서 애인과 손을 꼭 잡고 두 사람만의 시간을 새기는 순간에도, 나를 아는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내 애인에 대해 멋대로 떠들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에 떨어야 했다. 생활 자체가 괴로웠다. 사람들에게 나의 고충을 이해시키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헛수고였다. 집단 구성원 대부분이 아웃팅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인지, 상황을 타파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한 친구는 심지어 빙그레 웃으며 "죄인"에게 돌을 던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으니.. Dear my God, Am I Guilty?) 이런 상태가 이어지자 자연히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를 피하게 되었고, 결국은 하던 일마저 하나 둘씩 놓아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사람들을 멀리하고 지낸 지 어느덧 두어 달. 그들을 보지 않은 시간 동안 나는 모든 소문들과 떨어져 비교적 평온한 삶을 살고 있다. 아무 것도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저 시간이 지나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여자를 좋아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렇게까지 물릴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회의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더는 그 모든 일에 맞설 기운이 없다. 모두가 나를 지탄 받아야 마땅할 대상처럼 대했던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너무 많이 달았고 크게 상처 입었다. 나는 정말 죄인인 걸까? 그렇다면 나는 어떤 죄를 짓고 있는 걸까? 사람들이 어느 순간 또 다시 아무 생각 없이 나에게 대해 내뱉고 웃어버리지는 않기를 바라는 건, 너무 과한 바람인 걸까?

친구들 그리고 전후배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대요. 당신들 중 누구도 제가 죄인인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당신들의 편견 가득한 시선이 저의 죄를 만들고, 다수의 힘을 등에 업은 비이성적인 폭력으로 제게 벌 아닌 벌을 내린 거겠지요. 당신들에게 저의 정체성은 그저 하나의 이야기거리로 지나지 않았지만, 정작 저는 여러 가지 사회적 장벽에 부딪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성 확립 이후에 저의 미래는 새로워졌고, 또한 지금의 애인을 만나 저의 가치관과 도덕관념을 포함한 모든 것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있잖아요, 이것만은 꼭 알아주세요. 이 땅에서 열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미줄처럼 쳐진 부정적 시선을 걷어내고서라도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게는, 그 무엇보다도 강하게 모두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부탁할게. 만약 나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부디 그 때는— 누군가에게 나에게 대해 말하기 전에, 내가 짊어진 나의 인생과 내가 마주한 세상에 대해 한 번만 더 생각해주시길.

통키의 이야기 끝.

M의 이야기

뭐 마실래? 소주? 동동주? 파전하나 시킬까?

자, 잔 받아-

나 4학년 마지막 학기... 휴학하기로 결정했다. 왜냐고? 방학동안 취업 준비로 인턴이다 뭐다해서 사회에 살짝 발을 집어넣었다 뼈기를 반복했는데 결국엔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되더라.

그래- 뭐 학생이 최고지.

일도 일대로 스트레스였지만, 나이 스물 다섯에 남자친구가 왜 없냐고 물어보질 않나...

여자사원은 불리다 놓고 농담하면서 일에 관한 팁이라던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에는 남자사원들만 모인자리에서 오고가고-

그리고 나이가 어리다고 오빠라고 부르라니, 미친 조감독 같으니라고.

어하튼, 내 소중한 마지막 여름방학은 그렇게... 갔단다-

부모님? 부모님은 내가 하고 싶은대로 하라고 하시지. 아버지가 내 고집 꺾으려고 안하시잖아. 내가 당신 달은거 아니니까, 죄송스럽지...

넌 넌치 못한 형편에 등록금을 대는것도 힘들텐데 20대 중반에 접어들 막내딸. 아직도 어리다고 하고 싶은대로 하게 놔두는 부모님이 이젠 가엽기까지 하지. 야, 나 벌써 스물다섯이야. 정그러워. 어떻게 해?

내년이 우리 아버지 환갑인데- 난 아빠 환갑때 당연히 내가 취업해서 잔-하고 나타날 수 있을 줄 알았다-

근데 그렇게 안될것 같아. 뭐 물론 아빠 엄마야 괜찮다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언니랑 형부는 조금 답답해하지 않을까. 언니는 모르겠다. 내가 여자 사귀는거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아등바등 어떻게든 노력해서 자리 잡으려고 하는거 (언니눈에 겹겹이 보일지라도) 부모님보다도 잘 이해해 주고 있다고 생각해.

내가 전에 얘기 안했나?

언니한테 여자 만난다는 얘기 안했을 때, 우리언니가 아직 임신 중이었지 아냐?

출산 예정일 이야기 하다가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는데-

나보고 대뜸, '너 결혼할 생각 없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돈 많이 벌어. 결혼할 생각 조금이라도 있으면 남들 결혼할때 맞춰서 하고, 혹시라도 다 늦게 어디서 병든 남자 데려와서 플라토닉 사랑을 한다느니 결혼한다고 설치지 말고.'라는 거야. 뭘 눈치채고 그런건지. 어떤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야기한 지금도 남자를 만나라는 니 그런애긴 안해. 엄마도 내일 열심히하고 결혼안하겠더라는 내 생각에 동의해주시고, 아빠는 뭐 아직 젊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지만, 물론 부모님은 여자만난다는거 아시면 노발대발하시겠지.

일자리 빨리 찾고 싶으면 빨리 졸업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글쎄- 나 지금 좀 방황하는 것 같아. 내 꿈을 좇자니 현실이 발목을 붙잡고, 현실에 순응하며 살자니... 내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건지도 몰라. 나 욕심 많지? 너가 보기엔 어때? 하긴 욕심이 많으니까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지. 그래, 너 말이 맞다. 애인? 나한테는 뭐라하진 않지. 개도 욕심이 많아서 나 이러는거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지 지내. 알바에 쪼들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나 밥 사먹이고 방학내내 데이트다운 데이트도 못했는데도 불평 한마디 안하더라고. 좀 미안하긴 하더라. 근데 예전만큼 신경 못 써줘. 사실 그게 더 미안해. 내가 맘이 불편해서 그런가봐. 언젠가 개도 겪지 않을까. 나랑 비슷한 고민들... 그나마 연자가 있는게 다행이라고 느끼는게 그런 고민들이 동시에 겪는게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사실 요즘엔 이렇게 시달리느니 커피의 온천이처럼 차라리 공부 욕심 버리고 속편하게 돈벌공리 하면서 사는게 나았으려나... 실기도 해. 온천이가 공부하는 커피는 돈이라도 많이 벌기라도 하지. 난 왜 항상 관심 가져왔던 것들이 노가다에 돈벌이 안되고, 고생만 적살나게 하는 그런것들이었나 몰라. 왜 그랬나 후회하는게 아니라 참 신기하다고- 그래도 어렸을때 가난해도 내가 하고 싶은일 하면서 사는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굳게 믿었는데 -

오죽했으면 나 고등학교 때 꿈이 여름에 만화원고 밀렸는데 슬리퍼 신고 나와서 아이스크림 사먹는거였겠어. 근데 그것도 실제로 해보니까 갑갑하더라. 근데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돈, 돈 외치며 살게 된걸까... 누가 보면 갑부쯤 되려고 그러나보다 하겠다. 나 속물 다 됐나봐. 만화를 사랑하던 꿈 많은 순수한 소녀가 더이상 아닌가봐. 나이가 몇살인데 소녀냐고? 왜 이래- 나 만나이로 23살이고 24살까진 청소년이랬어.

연애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현실을 돌이켜보게 되니까. 그런것 같기도 해.

이 대한민국에서 여자들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험악하게 가난하게 살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한 해를 거듭할 때마다 느껴져서 두려운 것도 사실이고, 더구나 만나는 사람도 나도 일명 '노가다'라고 불리는 미술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 이제서야 힘이 드는 건지도 몰라. 근데 마음 한 편은 조금 쓰린거 있지. 아주조금.

그럼 이제 휴학하고 뭐할거냐고?

별나라에 다녀올거야. 졸작이나 완성해야지. 고뇌가 많은 2007년을 학생으로서 멋지게 마무리 하는거야. 요즘엔 시간에 참 민감한 것 같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고, 한 해도 저물어만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은 초조하고, 아, 이런게 4학년의 마음이구나 싶은게 씁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말야, 너 오새 바쁘냐? 안 바쁘냐고?

나 잔 비었는데 뭐하니-

M과 Y는 그 밖에도 홈페이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매 학기 치솟는 등록금에 대해서, 고양이에 대해서, 수강신청, 늘 그림던 바다, 돌고래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막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버스 정류장에서 각자 사람들 틈으로 파묻혔다.

집으로 향하는 버스안에서 M은 난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란 생각따위 하지 않기로 생각했다. 뭐- 그 결심이 얼마나 잘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M의 이야기 끝.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우리는 대답을 알고 있다.
 객하게 말해보면 개념 없는 사람들? 혹은 서로가 너무
 딱하게 생각하고 익숙해져버렸기 때문에 쉽게 갈라질 수
 있는 것들로부터 오는 아슬아슬의 위험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냐'라고
 말하고 넘어가기에는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들로부터 우리를
 스스로를 보호하는 수밖에는 없다..... 결론이 이상해질 하지만,
 그래서 나는 레즈비언인권운동을 한다.'

그녀들의 아픈담지만 위험할 공간 中



두번째. 변하다

by Dykeblue

변하다.

시간은 흐르고, 많은 것들이 변한다.
KTX나 화성선의 길이 차가워 확실히와 같은 엔터테이
국가 경제 성장, 지구 온난화 등 천변만화는 엔터테이
엔터의 품목은 두각을 나타내며 변한다.

음, 요즘들어 우리 레즈비언들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도, 많이 변하고 있다.
고전적 중요하긴, 많지 않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변하는지, 과연 무엇을 위한 엔터테이
또 그것이 정말 재밌게도 된 엔터의 재미인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변하고 있다.
우리는 무용으로 첫 번째의 문화제를 만들.
물론 게임을 상연하고 강의를 개최한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재조망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 할지도 모른다고 할지.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진정한 변화
세상이 우리를 바꾸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우리 레즈비언들은, 이제 우리 스스로를 꼭 동성애로
지나 발전기를 돌리려고 한다. (원-원-)

종교를 믿지 않는, 우리의 숨겨진 기쁨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 신경 쓰지 말고
우리도, 우리의 **문화**를 만들고,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많은 것들을
이제 자신을 믿고 당당히 보여주고 싶다.

이제! 다른 모든 것들을 믿어 보아도
우리는 믿어 믿어 변하고 있어요.

레즈비언 문학작품에 대한 이야기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 좋아하십니까? 필자는 한 때 이 시에
감명을 받고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며 땀을 흘리며 지구인의 세계로
다시 돌아오는 데 갖은 고생을 다 했지요. (...네, 멋대로 문학을 꼭 해라곤 책임을 전가
하고 있습니다.) 이 '가지 않은 길'에 대한 환상이 담겨있는 책이 캐럴 앤서의 1992년
작 <아쿠아마린>입니다. 1968년을 배경으로 수영선수인 18세 소녀의 세 가지 미래가 묘사되
어 있는데요, 레즈비언 혹은 바이섹슈얼인 주인공이 레즈비언으로 정체화하는 것은 가장 자유분방
한 삶을 사는 두 번째 경우뿐이라는 점이 묘하게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이는 작가가 '레즈비언들
이 스스로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사회의
굴레를 고발하고자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실제로 캐럴 앤서는 미국에서 태어나 이성과 결
혼생활을 하던 중 커밍아웃을 했다고 하는군요. 레즈비언으로서의 삶을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삶의 한 모습
으로서 자연스럽게 녹여낸 <아쿠아마린>은 '레즈비언 문학과 여성 문학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삶을 사랑하는 여성인 그대, 한번 펼쳐보시기를.

이젠 <아쿠아마린>보다 조금 더 현대의 작품을 이야기해 봅시다. 이번엔 영국의 레즈비언 역사소설의
대가, 세라 워터스인데요. 그녀의 작품들을 친절하게 정리해 드리지요. 1998년 '레즈비언 역사소설의 새
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찬사를 받으며 부상한 처녀작 <Tipping The Velvet>, 1999년 <Affinity>, 2002년 <Finger Smith>, 마지막으로 2006년의 <The Night Watch>입니다. 이 중 마지막 작품만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앞의 세 작품은 '빅토리아 런던 뒷골목 러브스토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
다. (어이어이!!) 이 중 국내에 번역된 것은 <핑거스미스(2006)>인데, 이미 2005년에 나온 영화로 접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필자가 핑거스미스를 만난 것은 지극히 우연이었는데, 평소 책과 영화를 두루
두루 섭렵하는 선행가 두꺼운 소설책을 들고 있기에 무심코 펼쳐보았더니 마침 두 여주인공이 사랑을 나누
는 장면이었던 거죠. 그 때 '이렇게 본격적인 레즈비언 문학이 있다니!'라며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핑거스미스의 장르는 '추리소설'인데요, 반전이 제대로입니다. 결말이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던
필자는 뒷부분으로 속 날아가는 반칙을 쓰다가 패닉에 빠져버렸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다시 앞부분
부터 차근차근 읽어야 했지요. 내용을 살짝 알려드리자면, 1890년대 영국을 배경으로 주인공 소녀가 시골
부잣집 아가씨의 하녀로 들어갑니다. 재산을 가로챌 목적이죠. 하지만 그녀들은 이뤄질 수 없는 사랑에 빠
지고 맙니다.

지구인의 10%는 동성애자라고 합니다. 인종과 지역, 나이에 관계없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레즈비언,
게이 장르는 여전히 위어문화로 불리고 있습니다. 대중을 새롭게 일깨울 수 있는 이러한 장르들을 접하기
힘든 것은 아쉬운 일이지요. 우리나라에서도 하루빨리 진지하지만 일상적인, 그런 진솔한 삶을 다룬 레즈비
언 문학들이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화인들이 일과될지도 모르겠군요.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by 수라

Poems by sappho (circa 625-570 B.C.)

자, 이 모든 걸 사포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자. 플라톤이 칭송한 열 번째 뮤즈, '레즈비언'이라는 아름다운 단어의 배경에서 있는 그녀로부터.

서기 1073년에 콘스탄티노플과 로마에서 교회 당국이 사포의 작품들을 모조리 불살라버렸다는 사실은 그녀의 시가 담고 있는 여성들을 향한 강한 감정적 표현과,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모든 것들을 파괴하려 했던 당시 교회의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요행히 살아남아 지금까지 전해지는 일부 시에서 읽히는 그녀의 풍부한 감정과 시적 아름다움이 작품 대부분의 소실을 더욱 안타깝게 만든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말이다.

그녀의 그리스어 원시가 가진 어감은, 남아있는 작품들의 반 이상이 불완전하다는 사실과 더불어 번역가들이 번역에 난항을 겪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많은 번역가들의 노력에도 완전하지 않은 영어 번역본들을 필자의 미숙한 솜씨로 옮겼다가는 이전의 이상을 좇아 있다가 간신히 빛을 발하기 시작한 사포의 작품에 큰 누를 끼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레즈비언들이 불변 중기는 대표적 시의 내용과 몇 구절 정도를 소개하는 것으로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필자의 불안전한 번역을 믿지 마시고 그저 내용 정도만을 음미하시길, 정말 죄송합니다.)

먼저 소개할 시 속에서 그녀는 사랑하는 여인이 한 남자와 마주앉아 있는 장면을 본다. 그는 화자의 눈에 선처럼 보이며, 사랑하는 여인은 그와 밀어를 주고받으며 사랑스럽게 웃고 있다.

당신과 사랑스러운 웃음은 같고요 / 내 가슴 속의 일가를 그들 시에 알리라 / 내가 당신을 아나 볼 때 / 나의 입은 알리라 / 내 혀는 또한 알고 / 내 피부 밑에서는 아파하기 같은 열기가 나뉘어 갑니다. — 그리고 난 아파하게 갈라 갑니다 / 아른 갈라보아여, 그 아파해질 웃음은 나뉘어 갈라 있어 갑니다

일부 영어본에서만 추가된 마지막 행은 존재 여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을 전대 대가...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듯 하다. 결국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진 여성을 사랑하는 그녀가 질투심과, 고통 뒤에 느끼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체념의 감정인 것이다.

이 시에서 사포가 스트레이트 여성과 사랑에 빠진 레즈비언의 고통... 차마 드러낼 수 없어 더 안타까운 사랑을 노래했다면, 또 다른 시에서 그녀는 대화의 형태로 한 소녀와의 이별을 슬퍼한다. 일부를 옮겨보자면,

"내가... 내가 자꾸만 속았어!" / 그녀는 두 손만 눈을 열구며, 나를 아나 / 그리고 그녀는 말한다 "오, 두 귀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전해주었겠는가! / 아로, 나는 어쩔 수 없이 아나!" / "아래로, 그리고 행복해! / 그아 나 기억해! / 사랑의 축제를 들, 달빛이 어는 이들." / "달빛이 나를 잊는다면 / 아로 나에 이만큼 애절한 수치의 간증과 / 두 귀가 들었으면 모든 사랑에 대해 생각해!" / "아니겠 화란! / 달빛의 길고어는 축제가 들었! / 한에 있는 것이 좋아! / 그리고 그로어스!"

이 시 역시 불완전한 형태로 전해지기에 서로 다른 번역본을 참고해서 비슷한 내용만을 연결시켜 보았다. 이 시는 (이 아니라 다시 한 번 괴상함을 느끼며) 두 여성의 이별이라는 소재까지 더해져 필자의 신과 해함에 맞는 참으로 아름다운 이별가다.

이 외에도 소개하고 싶은 시가 더 있지만, 필자의 능력 부족 때문에 아래에서 기다리는 다른 작가들의 작품들이 있다는 핑계를 앞세워 사포에게 나 역시 이별을 고하고자 한다. 어쨌든 그녀의 작품은, 레스보스 섬 어딘가에서는 아직도 제자들을 모아 놓고 리라를 연주하며 시를 읊고 있는 그녀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그렇게 생생하도록 감각적이고, 아름답다.

As You Like It by William Shakespeare (1564.4.26 ~ 1616.4.23)

셰익스피어의 희극에서 복장도착을 지킨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남장을 한 예쁜 여자에게 딱딱 반하는 또 다른 아가씨들도 심심찮게 등장한다.

그러나 필자는 당연히, 이러한 사건들에는 한 관심이 없다. 살길이 최고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면 '그'가 여성임이 밝혀진 후에야, 그래도 상관 없어요 나는 그녀를 그대 그 자체로 사랑해요 그대가 시골 남성의 옷 속에 있던 공작 영애의 드레스 속에 있던 나는 그대를 사랑한답니다! 라는 대사가 등장하진커녕 자신이 흥미하던,

혹은 자신을 몰래 흥미해오던 남성 박을 찾아가기 벗어나고 싶지 않다.

사실 필자가 소개하고자 하는 이 작품, "As You Like It"에서도 복장 도착은 스토리를 전개하는 중요한 요소들 중의 하나다. 그러나 필자가 이 작품 속에서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은, 여주인공 로잘린드와 사촌 동생 셀리아의 관계이다. 셰익스피어는 이 작품에서 로잘린드가 언급되는 첫 순간에, 등장조차 하지 않은 셀리아와의 미묘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올란도의 형인 올리버가 공작의 씨름꾼 찰스에게 공작의 딸로 올란도도 그녀의 아버지와 함께 추방되었다고 물었을 때, 그의 대답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로잘린드의 추방 여부 그 이상이기 때문이다.

아니다, 올란도에게서 함께 가던 그대(로잘린드)의 작은 동생 셀리아가 그녀를 너무나도 사랑하여(he loves her), 그녀 위에 남기는 것이 자꾸만 늘어난다는 그녀가 말하거든 / 죽어가고 있다고 했잖니 /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올리버)은 그녀가, 올란드의 아가씨를 추방한 공작에게 그의 딸과 아들 두 사람을 갖고 갔고, 두 여자를 사랑하여서 아파도 앓을 겁니다 (neat two ladies loved as they do).

게다가 이 셀리아란 아가씨, 그녀가 그녀의 아버지에게 의해 추방당할 위기에 놓여있는 사촌 언니를 위해 했던 변호 또한 결박이 아닐 수 없다.

어는 그녀를 어떻게 애 말하고 갈라야 할까요. 그건 아예 말도 안되고, 아예 말도 안되고 애는 아니겠고, 건넌 소중히 여기기에 어는 너무 아파고, 그아 나에 이만큼 애를 갖아요. 만약 건넌 아파하거든, 어 그게 그렇습니다. 수치는 아예 같지 않을 거고 말입니다. 애주고, 놓고, 먹는데 갈라야 할까요. 그리고 그 어이를 아파하고 수치는 두 사람의 주노리 걸을 쓰는 쪽으로 서랍 깎아서 다녔고 한기도 말도 안되고 아니겠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촌언니에게 떨어진 추방 명령에, 그녀는 다시 외친다.

그럼이면 애들도 그 걸로 애어주세요. 그아 나에 없으면 갈 수 없어요

공작과 귀족들이 떠난 후, 슬퍼하는 로잘린드를 향한 그녀의 위로 역시 두 여성의 관계가 유년기를 통해 형성된 단순한 친밀감 이상임을 의심하게 해 준다. 그들이 함께 추방되었음을 부정하는 로잘린드에게, 셀리아는 그들이 사랑을 통해 하나가 되었음을 역설하며 우리가 감히 불로 갈라지거나, 이별할 수 있는지를 따져 묻는다. 게다가 셀리아는 이러한 물음의 끝에 sweet girl이라는 말을 덧붙여 필자를 더욱 흐뭇하게 만들고 있다. (대사를 모두 옮기고 싶으나 지면과 능력 부족으로 생략하겠다. 궁금하신 분들은 전문 번역가의 번역본이나 원문을 읽으시길...)

그러나, 두 여성간이 나누는 모든 사랑이 넘치는 대사에도

불구하고, 희극은 그녀들이 이 사랑을 희생하고 남성과의 결혼이라는 고정된 성 역할에 순종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그렇기에 이 희극이 희극이 아닌 비극처럼 느껴지는 것이 필자 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으며, 셰익스피어를 이쯤에서 마무리 짓고자 한다.

La Fille aux Yeux d'or by Honoré de Balzac (1799-1850)

우리 말로 '황금 눈의 소녀'로 번역 가능한 제목의 이 소설은, 레즈비언의 시선으로 읽기에 꽤 유쾌한 작품은 아니나 여성간의 석유업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작품이기에 읽고 넘어가고자 한다. 물론 이 관계라는 것도 일반적이지는 않다. 19세기 몰도락한 파리라는

'지옥'을 배경으로 발자크가 이 작품 속에 담은 사회 비판 의식은 재치두고, 여기서는 작품 속의 인물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보기로 하자.

프랑스 후작 부인과 영국 난봉꾼의 사생아인 주인공 앙리 드 마르세(Henri de Marsay)는 파리에서 '황금 눈의 가진 소녀' 파키타(Paquita)를 보고 사랑에 빠지는데, 그런 그가 눈이 가려진 채로 인도된 곳은 드상-레알(de San-Real) 후작 부인이 파키타와의 동생애를 위해 만든 밀폐된 규방이다. 그러던 어느 날 드 마르세는 붉은 벨벳 실내복과 여성용 보트, 스타일로 그녀와 정사를 나누던 도중 그녀가 폐막에 못 이겨 부른 다른 여자의 이름을 통해 그녀의 동생애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이 그 자식의 아닌 다른 누군가의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분노한다. 그러나 그가 복수를 위해 그녀를 죽이려고 규방을 습격했을 때, 그녀는 이미 폐막 사실을 눈치챈 후작 부인에게 한에 찔려 죽어가고 있었다. 이 살해 이후 드 마르세와 후작 부인이 서로가 같은 아버지를 가진 이복 남매임을 알아보고, 그 둘이 같은 여인에게 이끌렸다는 사실 등은 그리 중요하지 않으니 이쯤에서 넘어가기로 하고...

물론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규방에 파키타를 가두고 소유물처럼 취급한 후작 부인이나 후작 부인 이외의 남자와 사랑에 빠진 파키타를 레즈비언이라고 정의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후작 부인이 파키타가 마지막 숨을 거둔 것도 알지 못한 채로 죽은 그녀 위에서 내뿜는 말은 그녀의 패신감, 분노의 일부는 적어도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믿고 싶게 만든다.

그래서 내가 죽어가고 싶어요 /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 내가 너무 길게 / 눈치챈 건 아니겠어요. 난 내가 내게는 고통을 느끼도록 말하곤 하잖나. 난, 난 이 말 속에서 갈라갈 거야. 이제 내게는 갈라갈 거야

서양 문학 속의 레즈비언

by 릴

정체를 알고 있는 화자이자 인터넷 소설가인 알리, 혹은 알리스는 곧 그녀와 사랑에 빠질 (유부녀)의 외인과 인터넷 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눈다. 의외인은 알리가 보여준 결과물에 몹시 실망했고, 지금 딱 그녀의 이야기를 비난한 참이다.

"그런 내가 생각하는 로맨스가 아니라고."

"알리가 원한 게 로맨스였나요?"

"모두가 그렇기 아니요?"

"모이고와 같이했을 다음 말도 보세요."

"삼대 백스 카야입니다."

"복잡의 연립은?"

"남자는 금작새와 웃음도 아랑곳없고"

"결과 보세."

"말이 잘리가 있어."

"열정(The Passion)은 사제가 이 작품을 알리기 5년 전인

1996년에 출판한 소설 제목"

"즐거움 적잖"

"아, 그렇군요..."

이런 식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런던, 파리, 카프리와 인터넷을 포함해 관습과 기네비어, 파울로와 프란체스카, 붉은 여우에 관한 우화와 20세기 초의 산악인 조지 모로리 경의 이야기를 넘나든다. 그러나 그녀는 끊임없이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전개는 난해하면서도 단순하다.

"알리는 절대로 카야입니다. 전이 나랑 카야입니다 카야입니다."

"알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 내 문제요."

"그게요..."

"좋아요, 그렇지만..."

"한때도 이런 적이 있었고, 내게 문제가 되었고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난 사랑에 빠졌어요."

"그녀를 싫었나요?"

"물론 그랬죠."

"극복하셨어요?"

"이건 전혀 사실이지, 사랑을 남기면 안 되니까요."

"사랑은 사랑을 남기게 만듭니다."

"어떤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답니다."

"이런데요."

그 시작부터 끝을 모두 겪는 동안, 기쁨과 슬픔,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선사할 수 있는 대상이 우리의 연인과, 우리의 삶 이외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은 얼마나 경이로운지, 그리고 지냈의 작품 이외에도 우리에게 그러한 대상이 되어 줄 더 다양하고 훌륭한 레즈비언 문학들의 등장과 고대하며 이만 끝을 맺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읽어주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함.)

about LESBIAN MOVIE

음, 글을 쓰려고 L 영화에 대해 검색해보니 생각 외로 많은 영화들이 나왔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필자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 하는데, 남성 퀴어 영화는 많이 봐서도 사실 부끄럽게도 여성 퀴어 영화는 얼마 보지 못했습니다. 유명하다 싶은 퀴어 영화는 다 게이 영화이니, 역시 이 관에도 남녀 불균형은 압연히 존재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찾은 L 영화를 최근 개봉작부터 소개할 타이니 관심 가는 작품은 찾아서 감상해 주시길요)

가장 최근 작품은 **스파이더 릴리** (蜘蛛: Spider Lilies, 2007, 대만, 주미명 감독)입니다.

<사랑의 마지막에 피어나는 꽃- 나를 기억해주세요, 잊지 말아요...>라는 영화 포스터의 문구처럼, 영화는 담담하고 조용하게, 조금은 어두우면서도 서정성을 잃지 않고 다케코와 사오리의 현재와 과거를 따라갑니다. 가족에 대한 죄책감으로 스파이더 릴리 문신을 뽐내 새기고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타무이스트 다케코와 첫사랑인 그녀를 기억해내고 찾아오는 사오리.

"만약에 내가 사제 같은 사람과 같은 사람이었다면, 그대를 카야에 내 동생으로 불러주셨을 거예요."

"사실 내 카야가 있다는 걸 기억해 줘."

나직나직하게 부르는 노래 소리가 기억에 남게 되는 영화입니다.

다음은 **식물학자의 딸** (Les Filles Du Botaniste, 2006, 프랑스, 다이 시지예 감독)입니다.

고아소녀 린은 유명한 식물학자의 제자가 되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비밀스러운 인물인 그 교수는 심 하나를 화려한 정원으로 꾸며 팔라 달 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고립된 생활을 하던 교수의 딸 안은 린이 도착하자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란 희망으로 반가워합니다. 친구가 된 두 소녀는 서로의 매력에 이끌려 관능적이고 금지된 관계로 발전합니다...라는 줄거리라고 합니다.

러브 마이 라이프 (Love My Life, 2006, 일본, 카와노 코지 감독)입니다.

부모님께 여자 애인을 소개한 이치코, 그러나 알고 보니 이치코의 아버지는 게이, 엄마는 레즈비언이었다는 (...) 상황을 펼쳐내는 영화입니다. 일본 청춘영화답게 경쾌하고 상쾌한 분위기이지요. 포스터도 사랑스럽-

D.E.B.S. (D.E.B.S., 2004, 미국, 앤젤라 로빈슨 감독)입니다.

원마디로 퀴어 코드로 돌아가는 이색 첩보 액션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인의 소녀 에이미, 자넷 등은 비밀 조직 탱크의 우수 학생들. 어느 날 첩보 조직의 어두운 무서 다이아몬드를 해포하려는 임무가 떨어집니다. 총력전 끝에 서로의 가슴에 총을 겨누며 만나게 된 무서와 에이미 사이에 묘한 감정이 흐르게 되고, 무서의 부하 스키드와 자넷 역시 심상치 않은 관계가 된다는 줄거리. 사실 이 영화의 평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퀴어영화의 유쾌한 장르적 확장이라니, 그 점만으로도 흥미로운 영화이지 않을까요.

몬스터 (Monster, 2003, 미국, 켄터 켈킨스 감독)입니다.

미국 최초의 여성 연쇄살인범을 소재로 한 실화라고 합니다. 불우한 청년 에이미런은 원한 어린 소녀 셀비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날 에이미런은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자를 총으로 쏘아 죽이고, 셀비와 함께 도망치게 됩니다. 그녀의 절망적인 처지와 셀비를 향한 집착으로 변한 애정은 계속해서 살인과 강도 행각을 불러와 결국 7명의 남자가 그녀의 손에 죽음을 맞았고, 불의 사랑은 비극으로 끝나게 되어버립니다. 사뮈얼 리튼이 흥한 분장으로 열연을 하였습니다. 무겁게 얹힌 듯한 느낌으로 연달아 크레딧을 보게 되는 영화입니다.

about

LESBIAN MOVIE



엄마는 여자를 좋아해 (A Mi Madre Le Gustan Las Mujeres, 2002, 스페인, 다니엘라 페히만 감독)입니다. 엄마가 스무살이나 어린 여자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은 세 딸이 혼란을 겪는 모습을 통해, 동성애와 가족, 결혼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포스터의 엄마 표정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H<



다음은 **멀홀랜드 드라이브** (Mulholland Dr., 2001, 미국, 데이빗 린치 감독)입니다. 현실과 환상이 충돌하고 사건과 사건이 얹히고 여러 인물들이 교차하는 예측불허 미스터리 영화입니다.



이브의 아름다운 키스 (Kissing Jessica Stein, 2001, 미국, 찰스 허먼-올랜드 감독)입니다. 똑똑하고 돈 많은 남자를 만나야 한다는 엄마의 잔소리에 시달리며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라온 제시카, 어느 날, 직장 동료 조앤은 '우정 이상의 만남'이라는 제목과 함께 다음의 문구가 실린 구인 광고를 들려줍니다. "새로운 것이 없는 관계를 맺는 것은 타실 때문만은 아니다. 새로운 경험에 앞서는 두려움과 수줍음 때문이다. 모든 걸 감수할 준비가 된 자만이 살아있는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 평소 가장 좋아하던 릴케의 글에 제시카는 귀가 솔깃해지지만, 광고를 낸 사람은 남자가 아닌 헬렌이라는 여자라는 것을 알아챈다. 여성 퀘어영화로서 인지도가 있는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상실의 시대 (Lost And Delirious, 2001, 캐나다, 레아 폴 감독)입니다. 사춘기 소녀의 우정과 사랑의 미묘한 경계와 집착, 성적인 열정에 대한 발견, 그리고 정체성 찾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교를 배경으로 여학생들 간의 관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여괴괴담 2** (1999, 한국, 김태웅 감독)과 비교하며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브 주스 (Love / Juice, 2000, 일본, 신도 카제 감독)입니다. 스트레이트 소녀와 레즈비언 소녀와의 동거 이야기를 섬세하고 투명한 감성으로 다룬 영화입니다. 자유분방한 코코와 사진을 찍는 치카. 단층집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단층한 삶을 꾸려나가는 두 사람은 가족도, 친구도, 연인도 아닌 특이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상들과 어느 순간부터인가 찾아온 미묘한 감정들. "가을 편는 소리가 들어, 너같이 나같이 흐르잖아. 잘 가잖아? 축하했으면 좋겠어. 두인 채 아무 애도 안 갈까?"



다음은 **어 월 2** (If These Walls Could Talk 2, 2000, 미국, 제인 랜더슨 감독)입니다. 제도적 결혼의 혜택을 받지 못해 살던 집에서 나가야만 하는 1961년의 할머니 레즈비언, 여성의 '남성성'에 끌린다는 점 때문에 고민하는 1972년의 페미니스트 레즈비언, 사랑하는 여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자 정자기증자를 찾는 2000년의 레즈비언 커플. 사회 속의 세 레즈비언 커플의 모습과 시대의 변화에 따른 사회인식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about

LESBIAN MOVIE



하지만 나는 치어리더예요 (But I'm a cheerleader, 1999, 미국, 제이미 바넷 감독)입니다. 자신을 레즈비언이라고 의심하는 부모들에 의해 특수캠프에 보내지는 10대 여주인공의 코미디. 귀여운 레즈비언 소녀가 자신의 성 정체성과 사랑에 대한 입장을 확인해가는 좌충우돌 케첩 명랑 성장기! 라고 합니다.



다음은 **에이미와 야구아** (Aimee & Jaguar, 1999, 독일, 막스 파르베르크 감독)입니다. 제 2차 대전 중 독일 베를린에서 이미 결혼해 아이를 둔 여인과 지하조직의 일원인 유대인 여인이 인생의 희망이자 생존의 꿈인 비극적 사랑에 빠지지만, 실화에 바탕을 둔 영화라고 합니다. 두 주연 배우 마리아 슈라더와 올리비아 윌리가 베를린 영화제 여자 배우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소년은 울지 않는다 (Boys Don't Cry, 1999, 미국, 캄벌리 피어스 감독)입니다. 자기 자신을 찾으려는 한 사람의 열정과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와 편견으로 가득 찬 또 다른 사람들의 충돌이 만들어 낸 비극적 실화를 강렬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인공은 레즈비언이라기보다는 F to M 트랜스 젠더라고 보는 편이 적당한 것 같지만 여성 퀘어 영화로서 워낙 유명하고 뛰어난 작품이라 소개하였습니다.



지아 (Gia, 1998, 미국, 마이클 크라스토프 감독)입니다. 레즈비언 톱모델 지아의 화려하지만 고독한 일대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사실 L영화라고 보기에는 주인공의 전기적 영화라는 성격이 강하긴 하지만, 주연이 무려 안젤리나 졸리이기 때문에!!! 굳이 끼워 넣었습니다.



다음은 **바운드** (Bound, 1996, 미국, 위쇼스키 형제 감독)입니다. 매트릭스 시리즈를 만든 위쇼스키 형제의 초기작입니다. 마피아의 돈을 가지고 뛰는 두 여인의 범죄스릴러입니다.



밤이 기울면 (When Night Is Falling, 1996, 캐나다, 페트리샤 로제마 감독). 보수적인 프로테스탄트 대학의 신화학 교수인 백인 여성 카밀라와 전위적인 서커스단의 단원인 흑인 여성 페트라, 다른 인물과 계급에 속하는 이 두 여성 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마술적인 사랑 이야기를 정색과 감색의 아름다운 화면 속에 담아내어 일상, 꿈, 환상을 오가며 두 여성의 서로 다른 세계를 충돌시키면서 이성애적 판타지와 의식 밖의 영역에 있는 동성애적 판타지의 갈등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개봉 당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문제작이기도 합니다.



보이스 온 더 사이드 (Boys on the Side, 1995, 미국, 허버트 로스 감독)입니다. 소외된 계층의 여성들을 중심으로 여성간의 섬세하고도 진한 연대 관계를 관란한 전개와 코믹 터치로 담아낸 영화입니다. 각각의 사연과 문제를 지니고 있는 세 여자 주인공들이 우연히 만나 사건에 휘말리기도 하며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 웃고, 다우고, 울고,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의 우정과 사랑을 확인해 간다는 버디-로드 무비입니다.

about LESBIAN MOVIE



그라임 제임 (Reflections On A Crime, 1994, 미국, 존 퍼디 감독)입니다.
코도소 간수 풀턴은 사형수 레지나에게 이끌리게 됩니다. 남편을 살해하는 환상에 시달리는 레지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기 위해 풀턴은 그녀의 조각조각난 과거를 찾게 됩니다.

유우, 제가 영화를 직접 다 보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이야기에 드리지 못하고 나열 수준에만 그친 것 같아 죄송하군요. 하지만 필자의 글은 영화 소개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지요. 자자, 경청해주세요 :)

흔히 사람들에게서 **'(레즈비언의)동성애는 **하다'** 라는 유형적인 편견이 담긴 발음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보통 **'이루어질 수 없는 비극적 사랑'** 이라는 이미지가기도 하고, 여학생의 사춘기적 클라토니한 동경과 우정이거나 또는 퇴폐적인 성적 관타지라는 이미지가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 소개한 레즈비언 영화들의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인물형, 다양한 형태의 연애와 관계 맺기의 방식처럼, 레즈비언 개개인에게는 그녀만의 개성과 그녀만의 삶이 존재하고, 그런 개개인이 만나 다양한 사랑의 모습을 만들어 냅니다. 동성애란 결코 **'일반적인'** 사랑의 형태에서 벗어난 특이하고 이상한 어떤 것이 아닌, 그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 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만 박하의 부끄러운 글을 마치겠습니다 :)

by 박하

당신은 '이반검열' 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005년, 여성영화집단 움에서 제작한 <이반검열>이라는 타이틀의 영화가 개봉되었다. 당신은 '이반검열'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가?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이 제목에 대해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반' 사람들로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낯설기 그지없는 말인 '이반' 은, 이성애자들을 '일반(一般)' 으로 보는 사회라는 의미에서 동성애자들을 칭하는 말로 언제부터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반' 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자신을 '이반' 이라고 칭하는 사람들, 특히 10대 청소년 이반들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은 이전의 상황과 달리 있는 듯 없는 듯 아무렇지 않게 생활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언론에서 10대 이반에 대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방영하기 시작하고, 이들의 존재가 그저 아는 사람만 알고 있는, 또래 친구들과 사이에서만 비밀스럽게 알려졌던 것에서 벗어나 이들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 전체에 이슈화가 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10대 이반들은 그들의 생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학교에서, 여지껏 경험하지 못했던 혹독한 시련을 겪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교내에서 별점을 매기거나 정계를 주는 사유가 복장불량, 두발규제 등이 주가 되고 있었다. 하지만 언제부터가 동성 간의 신체접촉, 동성애 등의 사유가 그 목록에 추가되고, 이반 학생의 외양을 묘사하여 부모들에게 자녀 관리를 부탁하는 식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것은 예삿일이 되기 시작한다. 필자의 중학교의 경우, 이반을 잡아내기 위해 담임교사가 각각의 학생에게 종이를 나누어 주며 '누가 이반인 것 같은지 쓰라' 고 하였고 이렇게 권요에서 추려진 몇 명을 감시하거나 협박하여 누구와 함께 다니는지, 누가 이반인지 색출해내는 등의 말도 안되는 식의 '검열' 을 자행한 적이 있었다. 이 검열에 걸린 학생들은 학교 전체를 비롯하여 가족들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아웃팅을 당하는 상상치도 못한 일을 겪게 된다. 이야말로 학교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초등학교를 입학하면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존중해야 하고 존중받아야만 한다는 그 '인권' 의 침해가 아닐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억압적 지배의 시작이 학교였다는 것을 기억한다. 호모포비아 사회에서 동성애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이러한 이반검열은 피할 수 없는, 동성애자들이 당해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인가.

이러한 상황에 반기를 들고 시작된 '호모포비아 박멸 프로젝트' 의 첫 번째 영화가 바로 <이반검열>이었다. 2005년 퀴어문화축제 필름페스티벌에서 한국단편 섹션1의 마지막 작품으로 상영된 '여성영상집단 움' 의 이영 감독이 연출한 '이반검열' 은 10대 레즈비언들의 날것 그대로의 분노를 건조한 목소리로, 그러나 충격적으로 고발한다. 상영시간 20분. 짧지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담겨있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이 영화는 중학교에 다니는 한 여학생이 이반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자기가 보는 세상을,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담은 식으로 제작되었다. 외위야만 하는 대본도, 감독의 지지도 없다. 이 영화에는 주인공 '원재'와 이 주인공이 하고자 하는 얘기만이 담겨있을 뿐이다. 처음 이 영화가 나왔을 당시, 우리가 일반인이라고 부르는 이성애자들과 10대 이반의 이러한 상황을 모르는 20대 이상의 동성애자들은 충격을 받았다. 청소년 이반들의 인권이 깃밋히고 그들이 살 자리가 점차 없어지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 직접 눈으로 확인한 이들은 10대 이반들에게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들 또한 오랫동안 고민하고 방황하여 일어난 현실, 즉 동성애자라는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알리고 막을 내린 이반검열, 그의 속편이 제작되었다. 전 편보다 좀 더 10대 이반으로 살아가는 개인의 이야기와 그들의 고민, 사실 말하자면 10대들의 고민을 넘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레즈비언들과 같은 고민을 담았다. 보다 적극적으로 제작된 이반검열 두 번째 이야기, 이제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OUT:이반검열 두 번째 이야기

10대라는 틀 안에서, 젊음, 미완성이라는 편견 때문에 오랫동안 자신을 부정하고 또 부정해야만 한다고 배워왔던 그녀들의 외침이 시작되었다. '여성영화집단 옴'에서 시작된 호모포비아 박멸 프로젝트의 두 번째 영화, <OUT: 이반검열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 영화는 레즈비언으로서 정체화의 기로에 서 있는 세 명의 10대 여성이반들이 주인공이 되어 이들 자신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옴니버스 다큐멘터리 형식을 취하고 있다.

첫 번째 에피소드, 'Coming out'의 주인공인 '원재'는 이미 전 편인 <이반검열1>에도 출연한 바 있다. 전 편에서 학교의 부당한 차별과 억압을 받는 그대로 표현해 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와 충격을 일으키게 했던 그녀는 이번 편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혼란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중학교 때 학교에서 가하는 무언의 압박과 폭력에서 심적인 상처를 많이 받고, 이에 대한 소리 없는 저항으로 손목을 칼로 긁는 자해 때문에 손목과 팔에 여러 개의 흉터를 가지고 있는 그녀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고, 남자친구가 생겼다. 초반에 여자를 만났던 때보다 안정된 모습을 보이던 그녀는, 차츰 남자친구와의 마찰도 더 갈등하고 혼란스러워진다. 주인공은 과거 자신이 여자를 사귀었을 때도 레즈비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현재 또한 그렇지만 단지 만나는 사람이 남자라는 것이 전과 다를 뿐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과거 주인공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해한다고는 하지만, 현재 자신과 교제 중인 원재가 레즈비언이 아닐 것을 강요하며 영화 제작에도 제재를 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진부를 이해하지 못하는 남자친구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결국 그와의 관계를 정리한다. 그리고 레즈비언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스스로' 결정한다.

다음 에피소드의 주제는 'Outing'. '호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녀는 얼마 전 학교를 자퇴한, 10대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한 소녀이다. 그녀는 자신이 해태로 색수염인지, 바이섹슈얼인지, 레즈비언인지 고민하고 있으며, 한 여자 친구와 시작한지 얼마 되

지 않은 연애에 한껏 부풀어있었다. 그녀는 새 애인이 마음에 들었고, 보통의 연인들이 그러하듯 애인과의 만남에 설렜다. 하지만 이 관계는 너무 쉽게 끊어졌고, 초이는 실패감과 함께 좌절에 빠진다. 이런 그녀는 과거 학교에서 아웃팅을 당한 경험도 있다. 이도 인해 학교를 그만 두게 되고, 연애에서 마저도 상처를 받은 주인공은 과거의 상처를 기억해내고 힘들어한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일어난다. 더 이상 남의 시선에 갇혀 힘들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옷을 입고 카메라 앞에서 여자를 사랑한다고 당당하게 밝히는 그녀는, 더 이상 아웃팅의 상처아래서 방황하는 레즈비언이 아니었다.

마지막, 세 번째 에피소드는 'Outsider'는 '코마'라는 레즈비언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그녀는 다른 두 주인공과는 다르게 자신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확신한다. 하지만 아웃팅의 위험 때문에 항상 불안해하며 이미 자신의 동생들에게 아웃팅을 당한 상태로, 얼마에게 마저 자신이 레즈비언임이 알려지고 자신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던 얼마를 실망시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한시도 멈추지 않는다. 레즈비언으로 살아가면서 앞으로 끊임없이 반복될 이러한 상황이 그녀에게 그저 불안하기만 하다. 그러나 그녀는 이러한 불안하고, 가식적인 삶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한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며 당당한 한 여성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이전의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 자립적이고 행복한 미래를 볼 수 있었다.

나도 레즈비언입니다

내가 레즈비언으로서 정체화를 시작한 무렵의 나는 <이반검열>의 주인공들과 같은 10대였으며, 레즈비언이라는 단어가 낯선, 오히려 이반이라는 말이 편했던 한 소녀였다. 나 또한 이 영화의 주인공들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었고, 같은 고민을 했었다. <이반검열>을 처음 접했을 당시, 나는 대학에 갓 입학한 새내기였다. 아직 고등학생 티가 풀리지 않고, 당장 아침에 일어나 교복을 입고 학교에 나가야 한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었으며, 머릿속마저도 중고등학생 때의 기억으로 꽂 들어차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 때까지 대학이라는 곳은 내게 익숙한 곳이 아니었다. 또한, 다른 레즈비언을 만났을 때, '나는 레즈비언 이에요'라고 말하는 것이 어색했으며, 대신 '나도 이반 이에요'라고 말해야 할 것만 같았다. 그렇게 스무 살의 대학생 레즈비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씩 배워가고 있을 때 류, <이반검열>을 만나게 되었다. 풀었던 20분의 러닝타임은, 2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나는 그 때의 충격을 기억한다. 원재라는 가명의, 얼굴 없는 주인공은 자신의 손에 주어진 카메라로 학교에 다니는 10대 이반들의 상황을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낱말이 고백했다. 학교에서 그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학급 친구들은 자신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눈물이 나왔다. 이러한 얘기는 그저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들과만 공유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누구에게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른들에게는 절대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었다. 그 때까지의 나는 어른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일종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상황을, 그리고 주인공 자신의 상황을, 나아가 모든 10대 이반들의 어려움을 그대로 말하준 영화가 감사했고, 그만큼 이 영화를 시작으로 기획된 '호모포비아 박멸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2년여가 지난 후 나는 <이반검열>의 속편이 제작되어 여성영화제에서 상영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주저 없이 애매를 했다.

<OUT:이반집열 두 번째 이야기>는 전 편과 달리 세 명의 주인공이 등장한다. 이 중 내게 가장 크게 공감을 불러 일으켰던 것은 아무래도 세 번째 에피소드의 '코마'의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코마는 자신의 정체성이 탄로 날까 항상 걱정하고, 레즈비언으로서의 자신을 행동을 의제하고 조심하려고 노력한다. 이 때문에 자신의 본래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가식적인, 자신이 만들어놓은 자신의 뒤에 숨어 생활을 한다. 이런 코마는, 과거 동생들이 의도치 않게 그녀의 정체성을 알게 됨에 따라 집안에서의 입장이 매우 곤란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그녀의 가식적인 모습을 만들기에 이르렀고,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한 것이다. 이렇게, 아웃팅은 레즈비언으로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위협적이다. 그 중, 가족 내에서의 아웃팅은 더욱 그러하다.

나는 내가 가족 중 가장 믿고 있다고 생각하던 이모에게 커밍아웃을 한 적이 있다. 가족 중 아무에게도 예기한 적이 없었기에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았지만 이모가 나를 격려하는 조로 응해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로 각인되고 만다. 믿었던 이모는 내가 심사숙고하여 전했던 그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엄마에게 레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고 꼬박 하루를 빌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시키고 싶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근 열흘간 나는 '한구중'이라는 전단을 받고 발을 잃었다. 그리고 한 달 가까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나는 아직도 집에 있는 것이, 엄마를 마주치는 것이 힘이 든다. 코마가 엄마에게 쓴 편지를 읽는 장면이 기억난다. '만약 나도 엄마가 알고 있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말들처럼 평범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집에 데려오고, 엄마에게 소개시키고, 평생 함께하겠다고 말을 할 수 없는 못난 딸인 나는, 엄마에게 상상치도 못할 불효를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았다. 항상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딸이었던 나는, 엄마에게 너무도 큰 실망을 안겨준 것 같아 가슴이 아팠다. 무엇보다도, 이런 에피소드를 하면서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수조차 없는 게 가장 슬픈 일이 아닐까.

이렇듯 코마를 비롯한 나머지 두 주인공들은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자신이 직접 풀어나간다. 물론 감독의 손을 빌어 어느 정도의 편집이 가해지겠지만, 이전까지의 레즈비언 영화들과는 다르게 역명의 주인공에 의해 스스로 제작되는 다큐 영화라는 점이 가장 참신했다. 또한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를 통해 레즈비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이를 지켜보는 이성애자들 또한 동정이 아닌, 순수한 이해와 관심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영화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덧붙여 에피소드 당 하나씩 삽입되어있는, 각 에피소드의 주인공들이 직접 부르는 삽입곡 또한 그 매력을 더한다.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노래로서 풀어나가는 것은 가사를 통해 보다 더 효과적으로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분명 이 영화에도 한계는 존재한다. 유니버스 다큐멘터리의 셀프 레코딩 형식을 취하는 영화라지만 각각의 내용이 정리되어있지 않아 산만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 각각의 주인공에게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에 대한 주인공들의 생각을 함께 나타내 주었다면 더 효과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을까. 보편적인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

는다. 이 영화의 취지가 호모포비아를 없애고 우리가 남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특히 영화의 주인공인 10대 이반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무분별하고 미숙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면 더욱더 그러할 것이다.

한 시간 반 정도 분량의 영화가 끝나고 주인공들, 그리고 감독과 함께하는 '감독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되었다.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해 각자 대답하는 시간. 의도치 않은 커밍아웃과 아웃팅을 막기 위해 관객들은 입장 시에 받았던 가면을, 그리고 감독과 주인공들도 가면을 쓰게 했다. 관객의 대부분이 이반집열의 주인공들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때, 이러한 처사는 희기적이었으며 동시에 훌륭했다고 생각된다. 제작과정들과 궁금했던 점 등에 대한 질문이 끝나고, 마지막 대화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첫 번째 에피소드 '천재'의 어머니였다. 질문자가 '천재' 어머니라고 자신을 밝히고, '내가 어쩔든 그래도 사랑 한다'라는 말을 마치자마자 영화관 앞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내 이야기이기도, 그리고 내가 세상에 대고 외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었기에 보면서 더욱 가슴이 뜨거워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을 멈출 수 없었던 영화 <OUT:이반집열 두 번째 이야기>. 이 세상의 호모포비아가 사라질 것을 염원하고, 이 영화의 속편, 이반집열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올 것을 기대하며 이 글을 마친다.

by KAZE



미안 미안해

L word를 통해 본 레즈비언 드라마

자 이번 파트는 레즈비언 드라마다. 한국 케이블에서도 상영 중인 - 그나마 대중적이라고 얘기하고 싶다 - 미국 SHOWTIME 제작 현재 상영 중인 L word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다.

최초의 레즈비언 드라마

비교적 최근부터 '동성애'는 하나의 문화코드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동성애에도 '급'이 나누어져 있다. 남성동성애에 비해 여성동성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고 더 퇴폐적인 것인 마냥 이야기 하고 있다. 이 드라마 역시 미국 최초의 레즈비언 드라마이지만 제작년도는 2005년이다. 대강의 내용은 LA에 사는 리!서!리! 전!문!직! 레즈비언들의 삶과 사랑, 직장, 고민 등이 얹어져 있다. 어느 드라마가 그렇듯 모든 화제의 중심은 '사랑'에 집중되어 있다.

'남자' 답지 못해 미안해

'레즈비언' 하면 떠올리는 모습! 못생긴 얼굴에 짧은 머리에 힙합바지 혹은 히피 스타일! 이름 되면 두 가지 명제를 제시할 수 있다.

"레즈비언은 여자야 싫다"
"레즈비언은 못생겼다"

"여자가 같으면 스킵해!"
"이런 스킵해!"

화살표 부분에서 중학교 3학년 때쯤 배웠던 수학능력을 발휘해 보자. 명제가 성립하려면 대우가 성립해야 한다..... 어떠한가, 무언가 찢어지지 않는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성애자들은 모두 '에베서' 이성애자인가? 이 글을 읽는 모든 머리 짧은 사람은 레즈비언인가? 이러한 생각은 모두 편견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현재 변별 활동가는 반 이상이 긴 머리를 하고 있으며 다들 꽤나 예쁘다. (주관적이라 미안하다.)



내가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면 머리는 L word의 등장인물 중에도 두 가지 명제를 명쾌히 소회하는 인물이 없다. 이것이 왜...이다. 시즌 1에서 당신들이 바라는 자정?타정 부침을 떠올릴만한 등장인물은 레인이었다. 그녀의 머리는 어깨를 살짝 스치는 정도였다. 하지만 시청자들의 빗발치는 항의 - "왜 레즈비언 드라마에 남자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냐!" - 로 인해 시즌 2부터는 짧은 컷트 머리로 등장한다.



스키에겐 왜?



제니에겐 왜?

두 번째로, 인형 같고 신비한 이미지로 시작한 제니는 '너는 레즈비언인데 왜 머리가 기니?' 라는 말로 고민에 빠진다. 결국 이성애자에서 레즈비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황을 종료하고 '정말 나는 레즈비언이야.' 라고 말하는 상황을 머리를 자르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여자를 좋아하는 성별은 남자. 고로 레즈비언은 남자같이 생겨야 한다는 그 말도 안 되는 명제가 레즈비언 드라마에까지 그 손이 뻗고 있다. 머리가 긴 남자를 봐도 게이라고 하지 않고, 머리 짧으면 레즈비언이라면 우리나라의 모든 아나운서들은 레즈비언이다. (이렇다면 나도 참 좋겠다만...) 미안하지만, 레즈비언이라고 머리가 짧지는 않다. 그들에게도 나름 추구하는 스타일이 있을 뿐..

돌음만 하지 못해 미안해

레즈비언의 섹스를 떠올리면 다들 '음란'이란 단어를 쉽게 떠올린다. 그럴만한 것도 일명 '야한 동영상'을 찾기 위해 검색어 순위 안에 '레즈'는 꼭 들어간다. 안타깝게도 L word는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베드신이 없다. 어찌 보면 아름다움 정도로 묘사해 놓았다. "말하는 거야만하고" 라고 물으면 또 다시 할 말이 없어진다. 남녀의 베드신을 아름답게 묘사한 것처럼 L word 역시 그런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점 한 가지는 바로 딜도! "너들이하는 거야도 같이 하겠어?" 라는 질문을 정당화시켜주듯 모든 베드신엔 보이지 않는 등장인물 딜도가 있다. 하지만 사실상 레즈비언 간에 딜도를 사용하는 커플은 그 수가 적다. 내가 - 모든 레즈비언에게 물어보진 못했지만 - 아는 커플 중 딜도를 쓰는 커플은 딱 2커플이 있었고 현재 글쓴이도 애인과 3년째 동거 중이지만 한 번도 딜도를 사용한 적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 라고 묻는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삽입 섹스'에 대한 편견을 과감히 버려라. 가끔 비밀화원의 글을 보다 보면, "빨리 오르까지는 안 갔지만 오르까지 갔소" 라는 글을 심심치 않게 본다. 오일 '섹스'라는 단어도 있지만, 삽입이 있기 전까지는 섹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오일 뒤에 있는 섹스라는 단어가 너무 부끄럽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섹스는 사랑하는 두 사람 간의 대화라고 생각한다. 그 대화를 꼭 삽입과 흡입으로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니다. 두 사람의 몸이 대화 할 수 있는 몸짓. 그 자체가 섹스이다.

차별당하지 않아 미안해

L word의 배경이 되는 곳은 곳곳에 레즈비언이 거주하고 있다. 그야말로 L word라 해도 손상 없을 정도다. 사회생활을 하며 있어도 나의 정체성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오히려 티나의 경우 레즈비언이어서 일을 따 내기도 한다. 극 중 성 전환수술을 한 사실이 들어나는 맥스의 경우도 스스로 직장을 때려 치지만 동료들의 편한 지지를 받는다. 이런 차별당하지 않는 정체성. 모두의 자유가 보장 받는 아메리카!! 정말 미국이 저런 나라라면 아마 한국에 레즈비언은 꽤나 이런 값을 것이다.

물론 미국의 몇몇 주들은 우리나라보다 정책적으로나 법적으로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이 비교적 나은 편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못지않게 보수적이고 닫혀 있다. 한 예로 '샌프란시스코'의 게이시터들을 들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라는 노래가 있을 정도로 동성애자들에게 샌프란시스코는 게이들을 위한 도시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제약을 붙인다. 샌프란시스코 자체가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이지만 게이시터는 그 중에서도 정말 많지 않다. '돈 많은' 게이들이 사는 동네. 저런 동네가 '현금' 역시 나오는 미국이란 나라에서. (돈 많은)

제니는 "이런 사실을 악화시켜 준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모든 레즈비언은 '레즈비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
 드라마의 전개 또한 그렇다. 전체적인 내용인 L word의 레즈비언 커뮤니티에 속하는 여성이 레즈비언이다. 클레어나 브루, 유명한 운동선수, 기자, 테러피사이자 활동 배우나 뛰어난 인물들이 나오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만기에는 돈이 너무 많다는 거-

넌 어떻게 레즈비언이 되었니?

커밍아웃을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은 넌 언제부터, 넌 어떻게, 넌 왜 레즈비언이 되었냐는 질문을 받곤 한다. 나는 다시 이렇게 묻고 싶다. 너는 언제부터, 어떻게, 왜 이성애자가 되었니? 아마 레즈비언이라 정체화된 많은 사람들은 술한 고민과 의문, 생각을 거듭하여 지금의 자신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는 이성애는 올바르고 당연시하기에 이성애에는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또 이런 질문도 한다. 남자를 한 번 만나 보는 것은 어때니? 하도 주위에서 달달하여 남자를 만나 본 적도 있다. 하지만 결과는 볼 보듯 뻔했다.

극중 제니는 결혼을 앞 둔 남자친구와 동거 중으로 시작 된다. 열집에 사는 레즈비언 커플이 수영장에서 sex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고 '마리나'와의 만남으로 인해 성적체성에 혼란을 겪는다. 결국 몇 년을 함께한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시작한다.

어쨌든 드라마라 있을 법한 설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고 나서 자신이 레즈비언임을 아는 여성도 많다. 이렇듯 레즈비언은 희귀한 존재가 아니다. 자신이 완벽한 스트레이트라고 자부하며 우리들을 비정상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다. 당신이 스트레이트라고 얼마나 고민해 보셨나요? 사회가 정해주는 틀 안에 안주해 버리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는 아닌가요?

트랜스젠더 미안해

가끔 레즈비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 혹시 내가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너 자신이 남자라고 생각해서 아닐까? 이 질문에 L word의 맥스 대신 대답해 준다. 맥스는 처음부터 매우 남성스럽게 나오는 인물이다.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 다른 인물보다 케니스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결국 애인이었던 제니의 권유로 맥스는 성전환 수술을 한다. 맥스는 레즈비언이 아닌 F to M 트랜스 젠더이다.

레즈비언 편에서 왜 남자처럼 생긴 사람이 많냐고 질문하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곤 한다. 첫 번째로는 개인 취향인데 상관하지 말라는 대답과 두 번째로는 트랜스젠더라는 대답이다. 성소수자 중에서도 트랜스젠더 특히 F to M은 많지 않다. 수적인 적음은 커뮤니티의 비활성화와 연결 된다. 반면에 레즈비언 커뮤니티는 이에 비해 활성화 돼 있는 편이다. 게다가 트랜스젠더도 '여자를' 사랑한다. 이 두 가지 생각은 트랜스젠더들이 레즈비언 커뮤니티를 거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하지만 트랜스젠더와 레즈비언은 완전히 다르다. 레즈비언은 여성으로써 여성을 사랑하는 것이고 트랜스젠더는 자신을 남성이라 정체화하고 여성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치며

글을 다 쓰고 나니 L word에 대한 비판만 잔뜩 늘어놓은 것 같다. 여하튼 L word는 최초의 레즈비언 드라마로써 일반 사람들에게 레즈비언의 존재를 비교적 가깝게 다가선 것은 사실이다. 또한, 레즈비언과 스트레이트가 크게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좋은 시도이다. 하지만 좀 더 현실적인 그리고 편견을 버린 발전된 레즈비언 드라마로 거듭 나기를 바란다.

by 스테파니



더 이상, 우릴 무명가수라 부르지 마라!

by dykeblue

이젠 음악이란 것이 더 이상 그다지 특별한 취미생활이 되지 못한다. 요즘은 음악을 만드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지면서 누구나 음악을 하고, 또 기술이 발달하여 굳이 찾아서 듣지 않아도 길을 걷는 동안, 영화를 보는 동안,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동안, 열심히 헬스클럽에서 뛰는 동안, 등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음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음악의 종류도 각양각색이다. R&B, 락, 재즈, 펑크, 힙합, 소울... 셀 수 없이 많은 장르들이 공존하고 있고, 그 안에서 새로운 장르가 생겨나기도 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며 음악의 역사는 계속해서 생성되고, 멈추지 않고 꾸준히 변하고 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렇게나 대중적인 음악 시장과 역사 속에서 여성이 얼굴이라도 내밀 수 있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십 년 되지 않은 일이다. 믿기지 않는다고? 그럼 지금 당장 '위대한 음악가' 라고 당신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꼽아 보라. 그 중에 여성의 이름은 몇이나 있는지? (한 명이라도 있다면 대단한 일이다.)

이러한 여성들 사이에서도 레즈비언 뮤지션들은 더욱 더 뽕뽕 숨겨져 있고, 아직 미처 발굴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다. 왜? 동성애자라서? 그런 같은 동성애자로서 게이 뮤지션을 떠올려 보면 더 비참해지려나. 지금 막 생각나는 게이 뮤지션만 해도 엘튼 존, 프레디 머큐리(그룹 Queen의 보컬), 조지 마이클, boyzone의 스티븐 게이틀리, 레즈비언인 나도 심지어 게이 뮤지션을 더 많이 알고 있었다. shit! (내 잘못만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그래, 이처럼 레즈비언 뮤지션의 인명록은 같은 동성애자인 게이의 것보다 훨씬 조라하고 열악하다. 물론, 이름을 알리는 것이 뮤지션과 그 음악을 평가하는 것대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편견의 악화된 마음은 감출길이 없다. 흑

젠장, 흥분하다보니 서문이 꽤 길어졌다. 자자, 어쨌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려는 게 뭐냐, 바로 바로 바로, 일부터 숨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한 구석에 숨겨져만 있는 레즈비언 뮤지션 언니들을 멋들어지게, 당당하게 소개해보려는 것이다. 물론 앞에서 비굴하게 말했듯이 소개하겠다는 본인조차도 레즈비언 뮤지션에 대해서는 거-의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음악을 미친 듯이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이 글을 책임지기로 맘먹었으니,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길고 상세히 설명하려고 하니, 나의 이런 마음에 지지를 보내면 함께 거-언 천히 알아 나가- 봅시다!!



첫 번째로 본인이 소개할 뮤지션은 단연코 K.D Lang입니다. 퀸 라티파(Queen Latifah)이다. 으훗, K.D Lang은 너무 유명하신 언니니까, 굳이 첫 번째로 소개하지 않아도 섭섭해 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하고 먼저 퀸 언니부터 소개해 보겠다. 흠, 어리둥둥이 잘 알고 있는 영화 '시카고'에서 교도소장 역할을 맡아 조연상을 탔다. 고 말하면 아하~ 하고 마리를 스치는 한 풍채 좋은 언니가 떠오를 것인데, 바로 그 언니다.

(얼의 사진은 길었을 시절이니 사진을 보고 떠올리려고 하면 싹뚱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흠) 뮤지션 출신인 이 언니가 영화출연까지 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굉장히 다양한 재능과 화려한 프로필을 갖고 있다. 음악으로 시작해서 영화까지 찍게 되었고, 그로 인해 유명세를 타 레즈비언인권운동까지 하고 있다고 하니 참 존경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음음, 이 글이 음악가에 관련된 글인 만큼, 그녀의 음악들을 본격적으로 소개해 보려고 한다. 이 언니에겐 '전정환 첫 번째 여성 MC'라는 말을 붙여도 전혀 어색함이 없다. 그렇다, 이 언니가 하는 음악은 힙합음악이다. 지금은 거의 잊혀졌지만 힙합사에는 꽤 많은 여성 MC가 존재했었다. 그녀가 데뷔 앨범을 발표한 1980년 말기 전부터 많은 여성 힙합퍼가 존재했었지만, 대부분의 힙합 팬들은 그녀를 전정환 첫 번째 여성 MC로 칭하기를 꺼려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1989년에 발표한 그녀의 데뷔작 [All Hail The Queen]에서 찾아볼 수 있다. (힙합 좋아하는 화연들, 들어보시길, 어덜 검색해도 나올 것이다) 직접 들어봐야 알겠지만 그녀의 랩 실력은 말할 것도 없고, 무엇보다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여성 흑인 뮤지션이 성공하기 위하여 행하여 왔던 의존적인 방법론을 뒤엎어 놓은 그녀의 등장 자체가 아직까지도 참, 감동적이다.

날씬하지도 않고, 섹시하지도 않은 그녀는 당당한 풍채의 소유자였다. 지금보다도 심했던 인종적 굴레도 그녀의 넘치나는 끼를 주체하지는 못했나보다. 커다란 덩치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래핑과 그 속에서 보이는 라임, 흑인의 정서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하는 가사, 거기다 그녀의 당당한 카리스마까지 겹쳐져 당시 음악 씬에 섹세이션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 논란이 되었던 이 앨범 속 가사 속의 여성 본은 아직까지도 아프로 아메리칸 케미니즘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슈라고 한다)

게다가 그녀는 이러한 실력을 함께 나눌 줄도 아는 사람이었다. 게이 뮤지션인 조지 마이클과 함께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위한 콘서트도 열었다고 하니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현재는 음악 활동 보다는 TV나, 영화 등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녀의 거침없는 실력으로 데뷔 음반의 섹세이션을 넘어서는 또 한 번의 섹세이션을 기대해 보련다.

나는 우리보다 먼저 그토록 힘겹게 자신의 권리, 우리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해온 여자들에게 큰 빛을 지고 있다. 나는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멜리사 에서리지(1961~ 美음악가)



훗, 다음으로 소개할 뮤지션은 케이디 랭(K.D Lang)과 멜리사 에서리지(Melissa Etheridge)이다. 우선, 케이디 랭 언니는 L사이언스 유명해서 사실 언급하는 게 약간 무당스러울 정도(?)이다. 미국의 레즈비언 드라마 '다 엘 워드(the L word)'에 나오는 엘리스 역의 레이샤 헤일리(Leisha Gardner Hailey)의 옛 연인으로 유명해진 그녀. (맞다, 레이샤 헤일리 언니도 음악 한다! 활동내용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포크 락 밴드 'Murmurs' - 'Gush'로 이름변경~에서 활동했다고 알려져 있다. 드라마에도 밴드가 나온다.) 그녀 역시 앞의 퀸 라티파 언니처럼 영화를 찍기도 하였는데, 'salmonberries(연어알)'이란 영화로, 직접 보진 못했으나 영화 안에서 실재 본인의 모습처럼 남장을 한 여성으로 나온다고 한다. 우리 나라에선 이 영화의 O.S.T인 'Barefoot'이란 노래로 더 유명한 것 같다. 아무튼 어쨌든, 인터넷에서 찾

아낸 이 언니의 화려한 경력들을 줄줄이 읊어보자면 1985년 캐나다 Juno상 신인상을 수상하였으며, Roy Orbison(누군지 잘 모르겠으나, 검색해 보니 줄리아 로버츠가 나오는 '귀여운 여인'에 나오는 pretty woman이란 노래를 부른 로큰롤 가수 란다)과 듀엣으로 'crying'이란 곡을 불러 그래미상을 수상하면서 세계적인 가수로 성장하였다. 1988년 Calgary 동계 올림픽 폐막식에서는 Turn Me Round(그녀의 Angel with A Lariat이란 앨범의 1번 트랙에 실려 있다)를 불렀으며, 1989년에는 그래미 권추리 부문 최우수 가수상을 수상하였다. 그 외에도 레즈비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 [카우걸 블루스]의 사운드트랙 전체를 맡기도 하며 그녀의 음악성을 제대로 입증하였다.

데뷔 초부터 당당히 자신의 모습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 케이디 랭은, 대표적인 레즈비언 가수이자, 많은 레즈비언들의 우상적인 존재이다. 멋져, 멋져!(개인적으로 케이디 랭 언니 헤어스타일 맘에 들어 후훗)

멜리사 에서리지 언니는 90년대를 장식하는 여성 락스타이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게이-레즈비언 공연 행사 중 케이디 랭에게 초대받은 무대에서 커밍아웃을 감행했다고. 오호라! 둘이 개인적으로도 친한 사이였나보다. (완전 본인 짐작) 어쨌든 그녀 역시 당당히 커밍아웃한 뮤지션으로, 현재는 사랑하는 분과의 사이에 쌍둥이를 둔 어엿한 어머님이시다!(애기 예쁘더라.. 부럽..)



멜리사 에서리지 언니의 애기

1987년 레코딩 계약을 한 이후로 8장 앨범을 내었고 모든 앨범을 5십만 장 이상씩 팔았고 특히 그중 앨범 Yes I Am은 6백만 장이나 팔려 멀티플라티넘이 되었으며 베스트 여성 락 보컬로 그래미를 두 번이나 얻었다고. 오오 대단하다 정말. 멀티플라티넘~이라니, 직접 노래를 거의 다 들어 보았는데 <skin>(2000)이라는 앨범에 수록된 곡들이 가장 좋았다. 자료를 찾고 보니 그 앨범이 12년 동안 사킨 연인과 헤어지고 나서 그녀를 추억하며 만든 앨범이라고. 어쨌든~ 노래들이 다 너무 애달프다웠다. 하지만 그리고 나서도 또 좋은 여자분 만나서 자식도 낳고 잘 살고 계시니까 뭐, 그저 부러울 따름이다. 그녀는 그 외에도 활발한 게이 인권 운동가에 2005년 미국 카트리나 허리케인의 피해자를 위한 성금 모으기 참가자였고, 유방암 캠페인 후원자라고 한다. 직접 유방암을 겪기도 했던 그녀는 현재는 건강을 회복하여 행복한 가정 속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하니 참 다행스럽고 훈훈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혼자 좋아하고 있음, 실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 할 이 언니는 금상한 외모만큼이나 거친 여성이다. 시네이드 오코너(Sinead O'Connor)라는 언니인데, 이 언니는 그래도 L이 아닌 우리 화연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혼자만의 부푼 기대를 안고 소개해 들어가 보련다. 이 언니는 대머리 가수로 유명한데,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록 가수중의 하나로, 1990년대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한 아티스트 중의 하나로 꼽힌다. 딱딱 빈 머리로 강렬한 인상을 주었던 시네이드 오코너는 1990년대 가장 두드러진 여가수 중의 하나였다. 1990년에 발표한 2집 앨범 [I Do Not Want I Haven't Got]의 수록곡 'Nothing Compares 2 U'가 5주간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며 그녀는 세계적인 유명인사가 되었다. 이듬해인 1991년 [브릿 어워즈]와 [그래미]에서는 오코너를 '최우수 외국 여성 아티스트', '최우수 얼터너티브 음악 공연' 부문의 수상자로 선정했다. 또 [롤링 스톤] 등 여러 음악지에서도 시네이드의 앨범 [I Do Not Want I Haven't Got]을 최고의 앨범으로 꼽았다.



그러나 이 언니는 할말은 하는 가수였다. 1990년 5월 미국 방송 [Saturday Night Live]의 출연 섭외를 받은 그녀는 그 쇼의 진행자 중 한 명이 코미디를 가장해 소수 민족과 여성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출연을 과감히 뿌리쳤다. 그리고 3달 뒤 8월 24일 그녀는 미국 뉴저지주의 가톨릭주교회의에서의 공연에 앞서 미국국가 연주를 단호히 거부했다. (와우!) '미국적 애국심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다. 1991년 2월 그래미 4개 부문의 후보로 지명됐지만 시네이드 오코너는 [그래미]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은 물론 수상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 언니는 원래 남성과 결혼 후 두 아이의 어머니였으나, 레즈비언 잡지를 통해 과감히 커밍아웃을 했다고. <Faith and Courage>라는 앨범에서 첫 싱글로 발표된 'No Man's Woman'이란 곡은 결과적으로 그녀에겐 대중을 향한 직, 간접적인 베타포가 되어버렸고 인터뷰를 통해 그녀는 '이제는 비로소 나의 성(性)을 찾았다'고 말하며 더 이상의 혼란은 없을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고.

와우 무진장 길어졌다. 그리하여 자세한 소개는 여기서 멈추지만, 찾아보니 정말 수많은 유명 레즈비언 뮤지션 언니들이 있더라.(여기서 설명이 언급되는 언니들은 모두 커밍아웃을 한 언니들임을 밝힌다.) 하트코어 핑크 밴드 스킨크 애니스(Skunk Anansie)의 프론트우먼으로 과격한 가사가 담긴 격한 보이스를 여느 그룹의 남자 보컬보다 절실히 표현해 내는 흑인 여성 보컬리스트 스킨(Skin), 'Fast Car'와 'Give Me One More Reason'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얻은 바 있는 흑인 포크 뮤지션 트레이시 채프먼(Tracy Chapman), 설명이 필요 없는 여성 얼터네이티브 록커 알라니스 모리셋(Alanis Morissette), 인디고 걸스(Indigo Girls), 조안 바이즈(Joan Baez), L7, 타니타 티카람(Tanita Tikram), PJ 하비(PJ Harvey), 엔야(Enya), 린다 페리(Linda Perry) 등.. (다들 음악 한번 찾아서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내가 조사한 뮤지션들은 이 정도지만 그보다 무궁무진한 언니들이 도처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그래서 자료집 한권을 이 내용으로 채워도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 한 편이 벅차버리게 박차오른다. 레즈비언이라는 정체성을 밝히고 나오면, 그 정체성으로 인해 더 주목을 받기 마련인데, 정체성과 별개로 음악과 사상, 활동으로 자신의 영역을 개척한 언니들이 참으로 자랑스럽다. (반면에 '타투'라는 레즈비언 사칭 가수를 생각해 보라. 어찌나 짜증스러운지.) 물론 정체성이 레즈비언이라 더 그렇다는 말은 하지 않아도 충분히 내 글 속에서 느꼈을 거라 생각한다. 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기 소개된 언니들은 다 하나같이 외국 사람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선 아직 우리나라의 인식적인 분위기 때문인지 커밍아웃을 한 레즈비언 뮤지션은 없다. 얼마 전 신인가수 마** 가수의 커밍아웃 기사가 떠돌았으나, 결국 끝내 부정하여 팬시리 L들 사이에선 아쉬움을 샀다. 본인 역시 한명의 레즈비언으로서, 음악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라 더 그렇지도 모르겠지만 이번을 계기로 많은 것을 배우고, 레즈비언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끼고 글을 마무리 지으려 한다. 본인이 역사에 길이 남을 레즈비언 뮤지션이 될 그 날을 기대하리라. 하핫!) 길고 지리한 글, 읽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LESBIAN ART

by 야켄



1. Le Coufonnement de la Blanche-Feuille 1974, by Fini, Leonor (1908-1996)



2. A Favourite Custom 1909, by Sir Lawrence Alma-Tadema



3. Jupiter and Callisto 1613, by Peter Paul Rubens



4. Gabriella d'Este and the Duchesse de Villars, circa 1594

<http://kscfc.org/lesbianart/>

<http://www.sappho.com/art/forlaine.html>

<http://kscfc.org/project/>

레즈비언 미술이란?

'레즈비언 미술'이란 장르도 엄연히 존재한다. 그동안 여성주의 작가들이 그린 페미니즘적인 미술이라고 포장되며 엄연히 존재해 왔다. 대부분 레즈비언 미술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레즈비언의 정체성을 가진 작가가 생산한 미술이라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레즈비언의 정체성을 가진 작가들이 생산한 미술은 모조리 레즈비언 미술이라 치부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레즈비언들이 만든 작품들이 모두 레즈비언 미술이라면, 그 작품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심지어 레즈비언들을 비롯한 성소수자에 대한 반동적 내용을 격나라하게 드러내는 작품이라 할지라도- 레즈비언 미술로 이야기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면, 어떤 내용의 작품이, 어떤 미학적 형식이 레즈비언 미술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 레즈비언 감수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존재하는 것인가? 레즈비언 정체성의 경우는 작품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레즈비언의 정표들은, 관객들이 읽어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가? 미술 비평이나 작가들이 읽어낼 수 있는 것인가? 이 외에도 레즈비언 미술의 정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레즈비언'이라는 정체성은 무엇인가? 생물학적 성(sex)가 여성인 사람이 다른 여성을 사랑하는 경우, 모두 레즈비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생물학적 성(sex)이 아닌 사회적 성(gender)을 여성으로 규정하는 트랜스젠더 레즈비언이나 양성 다이크의 경우는 레즈비언의 경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가?

레즈비언 미술을 둘러싼 위와 같은 의문점들에 대해, 미국의 레즈비언 미술가이며 전시기획자이자 미술가인 하모니 해몬드(Harmony Hammond)는 기존의 미술사 속에서 작가의 성적정체성으로 인해 배제되고, 작품이 표현하고 있는 '레즈비언적'인 무엇으로 인해 삭제되고 무시되며, 또한 오독되는 일군의 작가와 작품이 있

다는 점을 주지한다. 프랑스의 원재 사진작가이며, 번역가이자 극작가, 희극 배우였던 클로드 카혼 Claude Cahun의 경우, 이미 1900년대에 '젠더 수행(gender performance)'라는 개념을 사진을 통해 보여주었던 작가이다. 그러나 그녀의 작품들은 미술사 속에서 정당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이야기된 바가 없다. 최근 퀴어 운동과 페미니즘 미술, 그리고 레즈비언 미술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누구다 다 알고 있는 유명한 미술가 프리다 칼로 Frida Kahlo의 경우에도, 페미니즘 미술가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작품 중에는 이성(異性)복장을 한 모습으로 자신의 여성 섹슈얼리티의 힘, 독립성을 보여주고 있다. 단순히 상처입고 고통 받고 상실한 여성(gender) 신체를 드러내는 것 이상의, 여성 퀴어로서 당당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 읽을 수 있다. 이렇듯 기존 미술사의 남성 중심성, 이성애중심성으로 인해 작품에 대한 풍부한 해석과, 적절한 비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데 대한 비판을 통해 레즈비언 미술 개념이 도출되기도 한다.

한국의 레즈비언 미술



2005년 프로젝트명 <악전 1>로 전시의 개최

전시 배경: 문화와 미술의 영역에서의 에스비언 존재는?

주류의 미술, 문화 담론에서 레즈비언이 언급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레즈비언 재현이 없어서인가? 그렇지 않다. 레즈비언이 생산하거나 혹은 레즈비언의 감수성이 전면에 드러난 영상물을 포함한 재현물들이 분명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고괴담을 비롯한 영상물과 한혜연, 이진경 등의 만화텍스트, 이 외에도 레즈비언의 정치적 입장으로 읽어낼 수 있는 수많은 텍스트들이 존재한다. 문제는 레즈비언 텍스트의 부재가 아니라, 레즈비언 재현과 감수성에 대해 부정하거나 '고의적' 관심 없음을 노골적으로 표명하는 입장과 태도가 문제이다. 미술에 있어서의 동성애 담론이나 작업들은, 그것이 남성 동성애자들에 대한 것이건 여성 동성애자들에 대한 것이건 간에 현 이성에 중심사회에서는 해석의 여지가 불분명한데다가 존재조차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 사회-이성에? 왜? 동시에 성차별적인-에서 미술에서의 재현 방식이나 재현할 장소 혹은 어쩌면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 까지도 남성 동성애자들과 여성 동성애자들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분명 다른 경험들을 생산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에서 부재한 동성애적 코드나 표현 중에서도 더더욱 부재한 여성 동성애자들의 경험의 표현은 그만큼 존중되어야 하며 지지 받아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레즈비언 미술가들



1 (What Do You Want From Me?, 1928)

2 (Self Portrait)

- 클로드 카혼 Claude Cahun(1894-1954)

사진가, 포토 몽라주 제작자, 작가, 번역가였던 클로드 카혼은 오늘날, 주로 젠더를 교란하는 자화상과 같은 이미지를 생산하는 예술가로 알려져 있다. 카혼은 1929년, 오스카 와일드 Oscar Wilde에 대한 글을 썼고 심리학자인 해블록 엘리스 Havelock Ellis의 글을 프랑스어로 번역했다. 엘리스 Ellis는 제3의 성으로써 동성애에 관심을 가졌다. 그에 따르면 동성애는 남성적이기도 여성적이기도 않고, 양쪽을 섞어놓은 듯한 특징을 가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론이 카혼의 사진 제작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고 있다. 카혼은 동성애 잡지 '라미티에 L'Amitié'를 포함한 수많은 출판물에 글을 썼다. 그녀의 페미니즘은 1925년 '여걸 Heroines'이란 제목의 원고(1999년까지 출판되지 않았다)에서 살펴 볼 수 있는데, 그 글에서 카혼은 사포에 대한 글을 쓰고, 율리시스를 부정한 남편으로, 신데렐라의 왕자를 밟 페티쉬가 있는 사람으로 썼다. 몇몇 자화상에서 그녀는 남성으로, 또 다른 곳에서는 양성구유자, 무척로, 삭발한 머리로, 때로는 드레스와 가발을 쓰고 등장한다. 어떤 사진에서 그녀는 환상의 선반에서 자고 있다. 카혼은 아방가르드극과 몇몇 자화상에서 그녀가 연기하는 역할에 열심이었다. 후에 그녀는 자신의 자화상을 몽라주에 다시 쓰기도 했다. 카혼의 작업은 근래의 젠더 유동성과 정체성의 형성과 관련한 논의와의 적합성 때문에 1990년대 들어 급작스러운 유명세를 얻게 되었다.



- 다이안 디마사 DiMassa, Diane (1961 -)

다이안 디마사 Diane DiMassa는 논쟁적이면서 널리 인기있는 만화 잡지 '핫헤드 파이즈: 하머사이트 레즈비언 테러리스트 Hothead Paisan: Homicidal Lesbian Terrorist' (파이자 Paisan은 이탈리아 방언으로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뜻)를 만든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캐시 애커 Kathy Acker의 '고양이 열병 Pussycat Fever' (1995), 케이트 본스타인 Kate Bornstein의 '마이 젠더 워크북 My Gender Workbook' (1998), 앤 포스토 스틸링 Anne Fausto-Sterling의 '섹싱 더 바디: 젠더 폴리틱스 앤드 더 컨스트럭션 오브 섹슈얼리티 2000 Sexing the Body: Gender Politics and the Construction of Sexuality' (2000) 등의 책의 일러스트레이터이기도 하다. 1991년, 디마사가 약물 및 알콜 중독 재활 프로그램에 있을 때 핫헤드 파이즈 Hothead Paisan를 치료요법의 일환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디마사의 치료사는 삽화를 그녀의 분노를 다루는 도구로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었으며, '핫헤드 파이즈: 사람 잡는 레즈비언 테러리스트'는 그 결과로 탄생했다. 비주류의 만화 캐릭터인 핫헤드는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에 이르는 레즈비언, 양성애자와 이성애자 여성 독자들을 매혹시켰다. 1991년에서 1996년까지 제간으로 발행된 이 잡지는 계속 매진되었다.

정의를 지키는 자경단원 같은 핫헤드는 이 만화 속 인물의 난폭한 행동 속에서 여성들이 힘과 유머, 그리고 위안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만화 잡지에서 애초에는 평범하고 튀지 않았던 레즈비언 핫헤드는 어느날 텔레비전을 보던 중 분노를 폭발시킨다. 핫헤드는 법을 자신의 손에 넣기로 결정하고 이성애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에 대해 복수의 판타지를 실현시켜나간다. 핫헤드 파이즈에 대한 열광적인 지지 때문에 트루 컨디션 True Cofections라는 사탕 제조업체는 디마사에게 핫헤드 캔디 바의 윤곽선을 디자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핫헤드파이즈: 레즈비언 테러리스트 부스터 바 Hothead's Homicidal Lesbian Terrorist Booster Bar'와 '팜 다이크 비치 바 Femme Dyke Bitch Bar'는 인기상품이다. 디마사는 현재 코네티컷의 웨스트포트에 살고 있다.

티지넷, 미유넷, 세이 클럽 혹은 엔티카 클럽의 다양한 web site등..
 그대들은 이들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거나 가입을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한 가지 더, 필자의 이런 시절 한 때 난리가 났었던 '팬픽'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흔히들 동성애를 말할 때 언급되는 것들이지요.
 유명한 가수들, 특히 동성으로 이루어진 그룹 멤버들 사이의 사랑을 그려낸
 동성 팬픽 같은 것들이 주로 도마 위에 오르지요.
 팬클럽 site는 물론이고 후에는 아예 독자적인 팬픽site들을 형성하여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었지요.
 이 글에서는 일단 팬픽하면 팬픽이반부터 떠올리며 어떻게든
 동성애자와 관련시켜서 부정적으로 치부해 버리고, 팬픽이 동성애 문화를 조장했다는 등의..
 헛소리를 지껄여대는 사람들에게 대해선 살짝 비꼬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성팬픽이 물론 재미있고 잘 읽히긴 하지만요(!)
 그것이 잘못, 읽었을 때는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요.
 또 다양한 레즈비언들이 외톨이와 외톨이 모여
 (사실 레즈비언이라는 단어보다는 이반이라는 단어가 팬지 어울릴 듯한 느낌!)
 인터넷 상에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가끔 댄스나 미팅 등으로 만나기도 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공감하고 위로받고 얻기도 하면서
 취미생활로 혹은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해왔던 그 모습들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위험성에 사실은 더 초점을 맞추었다고 해야 하겠지만요.
 참, 이 글은 순전히 필자의 의견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읽는 독자가 필자와 생각이 다르다고 하여도 별로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필자는.. 필자의 생각을 좀 세세하게 다듬어
 볼 필요가 있어서 이 글을 쓰게 된 것이니까요.
 그럼 각설하고 start!

팬픽으로부터 동성애 문화의 시작을 말한다(?)

표면적이고 단순한 지식과 수박 겉핥기식의 시선으로 동성애를 바라보는 독자들은 말한다. 어느
 순간부터 등장한 'Fan fiction'이란 것으로 인하여 동성애를 조장하는 문화가 만들어 지기 시작
 했다고 말이다. 여기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문화'라는 문구에 초점을 맞춰서 바라볼 필요성을
 느꼈다. 또한 팬픽으로 인하여 정말 동성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인식 또한 고정되어
 갔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

팬픽이라는 것이 사회 안에 동성애를 조장하는 문화를 만들어 냈다는 문구에서 동성애가 과연 문
 화라는 것으로 정의되어 질 수 있는가라는 사실부터 따지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요즘 XX가 이성애 문화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이
 런 문장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동성애 문화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이다. 이 세상에 사람
 그 자체(Being)를 놓고 문화라고 하는 법이 어디에 있는가. 이성애나 동성애나 다를 것이 없는 것
 인데, 왜 이렇게 단어 하나에 우리는 집착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동성애는 이
 성애와 똑같이 인간으로써 마땅히 느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한다.
 두 번째로 팬픽이 동성애에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사실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1) 줄여서 팬픽(fan fic)이라고도 한다. 만화, 영화, 소설, 드라마 등 일정한 장르를 주된 소재로 삼고 대중적으로 널리 인
 기를 끄는 작품이 있을 경우, 이들 작품을 모티브로 팬(fan)이 직접 자신의 뜻대로 원작을 변형(패러디)하거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용을 전개시켜 나가는 창작의 작품을 통틀어 이르는 개념이다. 아예 원작과 내용이 거의 비슷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 (네이버 백과사전)

문제이다. 팬픽 그 자체가 동성애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이끌어 내는 데에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다. 팬픽
 중에서도 동성애의 사랑을 다룬 동성팬픽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의 대상이다. 이에 관한 바는 필자 또
 한 직접 겪은 바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 같다. 필자의 중학교 시절, HOT란 가수를
 시작으로 많은 아이돌 스타가 동성다발적으로 대중문화의 중앙에 뛰어 들던 시기가 있었다. 그때 인터넷의
 활발한 도입과 함께 수십 만 개의 팬 사이트가 형성되었고, 특정 가수의 팬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이
 야기로 소설을 지어 이곳저곳에 유포하기 시작했다. 이때 특정 가수들은 혼성 그룹이 아닌 경우가 많고 남
 성 5인조 그룹, 여성 3-4인조 그룹 등이 많았다. 팬들은 그 가수의 멤버들끼리 주인공이 되어 서로 사랑을
 하게 되는 모습을 그린 소설들을 이성팬픽보다 훨씬 많이 쓰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다량의 동성팬픽이 나
 오게 된 것이다.

동성팬픽이 나오게 된 그 현상 자체를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동성팬픽 또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성팬픽과 다르게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동성팬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으로 인하여 동성
 애와 동성애자를 저질적이고 더러우며 부도덕하다고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음을 금방 알 수 있다. 동
 성팬픽에 그려져 있는 동성애자들의 사랑은 분명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랑은 너무
 나 유색적이고 관음적인 사랑에 집중되어 있다. 동성팬픽의 제목에서 보면, 예를 들어 'S(sex)' '환각'
 '자극' '유혹' '비정년자관람차' 등을 같은 외설적인 단어들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런 것들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음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외설적
 이고 음란한 소설들은 동성팬픽이 아니라도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지금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동성팬픽들이 동성애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시각들을 만들어내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
 실이다. 동성애자간의 성행위에만 초점을 맞추다거나 하는 등의 고정적인 인식으로 소설을 해석해가며 이
 세상의 모든 동성애자들이 꼭 동성팬픽에 나오는 모습만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은연중에 수용하고 있는 것
 이다. 동성팬픽을 읽는 것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서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바로
 그것을 읽고 나름대로의 시선을 만들어나가는 독자들의 고정된 인식과 그런 인식을 하게끔 만드는 사회적
 인 분위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팬픽으로부터 동성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되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잘못된 인식으로 동성애
 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어쩌면 평생 살아감에 있어서 혹은 적지 않은 시간동안 그런 시선으로 밖
 에는 동성애를 바라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큰 문제이다. 처음부터 동성애에 대한 시각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동성팬픽을 읽는 것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성애에 대하
 여 너무 자연스럽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외설적이고 음란한 소설을 읽는 것은, 수용자의
 지적능력과 정신연령에 기준하여 나름대로 판단하고 고정적인 시각을 만들지 않을 수 있음을 경험하여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성관계와 성행위에 대해서 다른 책이나 잡지, 포르노라고
 부르는 영상 같은 것들을 대부분 접하게 된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사람이란 것을 바라보고 정의함에 있
 어서 부정적인 시각만을 만들어 내지는 않는다. 이성애에 있어서 이러한 사실과는 달리 동성애에 대한 충분
 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동성팬픽으로 인한 부정적인 시각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이반들의 작지만 큰 공동체의 형성

인터넷의 적극적인 도입과 사용으로 인하여 한국 내의 이반들도 그들만의 공동체를 사이버 상에 형성하
 기 시작했다. 다른 동호회와 마찬가지로 그들만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털어놓고, 밖으로 차마 하지 못했던
 고민거리들을 상담하기도 하고,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 직접 만나기도 한다. 이러한 모임들은 처음엔 소수
 로 시작했지만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당장 알 수 있듯이 현재 인터넷상의 다소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이반들은 레즈비언 권리 연구소, 한국 레즈비언 상담소, 끼리끼리, 리브서프, 리브이반, 티지넷, 이반시터등
 의 규모가 큰 사이트부터 시작해서 다음카페나 엔티카클럽, 싸이월드클럽의 소규모 커뮤니티, 그리고 각
 학교안의 이반만의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르기까지 사이버상의 많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인터
 넷상의 가장 좋은 이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익명성'을 이용하여 자신들을 쉽게 감추고 좀 더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그들만의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사이버 커뮤니티는 아웃팅의 위험 때문에 쉽사리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답답하게 숨어있

어약한 컷던 그들의 본성(?)을 어느 정도 마음껏 표출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 곳에서 이들은 (혹은 우리들은) 자신과 같은 성취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정말 많은 공감을 하고, 힘든 상황에 위안을 얻기도 하며 함께 즐겁게 어울리며 삶에 있어서 큰 부분을 이 사이버 공동체에 내주기도 한다.

하지만 그 반면에 온라인상의 이반들은 같은 이반들이나 아니면 다분히 악의적으로 그들에게 접근해 오는 일반들에 의해 쉽게 아웃팅 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해지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 온라인상에서도 자신의 실명을 실수로 거론하거나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사진을 올린 것이 화근이 되어 아웃팅 당한 경험을 한 이반들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 정보의 노출이 심해지고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조금의 자유를 탄압하기 위해 이반들이 겪어야 하는 대가가 너무나 컸던 것이다. 이런 아웃팅 사건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웃팅이라는 개념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 진실한 의미를 잃어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과 심지어는 이반들 사이에서도 아웃팅을 쉽게 해버리고 있으며 그들은 그것이 범죄라는 인식 따윈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의 성 소수자들에게 아웃팅이라는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범죄행위이다. 하지만 인터넷 상의 이반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러한 개념들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아웃팅을 해버려 온라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까지 그들의 모든 사회적인 생활을 고봉스럽게 만들고 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우리는 대답을 알고 있다. 격하게 말해보면 개념 없는 사람들? 혹은 서로가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익숙해져버렸기 때문에 쉽게 간파할 수 있는 것들로부터 오는 아웃팅의 위험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넘어가기에는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들로부터 우리는 (community를 포함한 모든 인간관계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 소수자들) 스스로를 보호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개념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개념을 좀 심어줄 필요도 있고 말이다. 결론이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서 나는 레즈비언인권운동을 한다. 작은 시작일 수 있지만, 이런 세세한 것들부터 개념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일들 말이다.

CYBER COMMUNITY by Sea

2) '이반'이라는 용어는 솔로미 게이 커뮤니티에서 동성애자들이 스스로를 나누는 양도 차등이 개입된 것으로 수렴된다. 저에게는 이반(이반)을 의미하는 '이반(??)'이라는 용어(??)라는 용어로 사용되다가 이후, 이반(이반)이라는 용어(異性)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안재호씨 가늠을 한다. 「이반에게 애스인 것들은종종일(안재호씨 가늠을 한다) 주 권력 문화: 이반의 단 계(이반)일 것.」, 2004.)

3) 아웃팅은 성 소수자 자신의 취향과 관계없이 아예에 대해 성 정체성이 폭로되는 것을 말한다. 아웃팅은 성 소수자의 모든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무너트리고 삶 자체를 파괴할 수 있으므로 성 소수자에게 매우 위험한 일이다. 아웃팅은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안재호씨 가늠을 한다. 위의 자료일, 2004)

HER FRIDAY NIGHT

by KAZE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이른 새벽까지, 혹은 모처럼 한가한 평일 늦은 저녁, 그녀들이 모여드는 곳이 있다.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나타나기도 하고, 소중한 사람과의 오붓한 시간을 위해 이 곳을 택하기도 한다. 클럽, 바, 술집,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로 항상 북적이는 곳보다는 조금 더 나 자신이 레즈비언으로서 자유로울 수 있는 곳. 레즈비언 바, 속칭 L바가 바로 그 곳이다.

과거 입에서 입으로, 아는 사람만 아는 곳이었던 레즈비언 바는 더 이상 숨지 않고 들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아직도 레즈비언 바는 어두운 골목 한 켠 지하에 숨겨져 간판도 없이 정말 아는 사람들 상대로만 장사를 할 것이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이는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 레즈비언을 비롯한 성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더욱더 커지고, 이들의 존재가 수면 위로 떠오름에 따라 이들의 문화 또한 비교적 대중화된 것이 아닐까. 레즈비언이 아닌 이들에게 묻는다.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하고 시간을 보낼 것 같은가? 무언가 크게 다른 것을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자, 지금부터 해가 지면 시작되는 그녀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레즈비언 바(이하 L바)는 주로 H대 앞에 밀집되어있다. 클럽과 술집이 보충에 흠이되고, 젊음과 자유가 거리 곳곳에서 물어나는 이 곳엔, 일반 술집만큼은 아니지만 꽤나 개방된 곳에, 찾으려들면 쉬 찾을 수 있는 곳에 한 군데씩 꼭꼭 박혀있다. 약 예닐곱 개의 L바가 성업중이며 평일보다는 주로 금요일이나 토요일 저녁에 많은 사람들로 붐빈다. 몇몇의 L바는 주말 저녁시간대에는 예약을 하지 않으면 테이블을 맡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레즈비언들로 가득 들어찬다. 이렇게 많은 레즈비언들이 바 안에 북적대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사실 눈앞에 벌어져 이러한 상황이 믿기지 않기도 한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레즈비언이 살고 있는 건가— 하고, L바는, 그 공간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떠돌고, 종업원이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손님이고, 그 안에 숨쉬는 모두가 레즈비언이다. 아닐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물음을 가졌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L바에서 나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공간에 익숙해지면서 그 의심은 무너지고, 잊혀지기도 한다. 이제는 이 사람들을 내가 믿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 편해진다.

하지만, 아주 간혹 그 의심은 현실이 되기도 한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L바들은 사실 '대놓고' 영업을 하고 있다. 여타 일반 클럽들과 구분이 되지 않을뿐더러, 때때로 너무도 찾기 쉬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도 한다. 이 곳이 오로지 레즈비언들만을 위한 장소라는 것을 모르는 남성이 찾아오는 것은 예사다. 이를 모르는 이성애자 여성이 들르는 일도 없지 않았지만 이를 쉽게 찾지만 어려운 일이다. 그 안에 흐르는 뭔가 묘한(?) 분위기를 금세 알아챘다면 금세 나갈 일이지만 그도 아닐 수 있지 않은가. 그러나 이 정도의 상황은 장난에 불과하다. 과거 한 공중파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청소년 이반 문제와 결부시켜 H대 앞의 한 L바를 몰래 취재해 간 일이 있었다. 카메라를 몰래 들고 들어와서 취재한 장면들에서는 L바를 피폐업소로 몰고자 하는 소지가 다분했다. 또한 이 곳이 청소년 이반들이 휴연을 하고, 음주를 하는 등 탈선 장소로 이용되고 있음을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특종을 캐고자 하는, 혹은 쉽게 이슈화 될 이야깃거리들을 찾는, 무엇이 진실이고 진실이 아닌지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이들의 말장난이었다.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고, 이러한 오도에 많은 L바들과 그와 관련된 사람들은 퇴폐영업을 하는 사람들로 몰렸으나 이를 해명할 길은 마땅치 않았다. L바는 미성년자 출입이 불가한 곳이다. 대부분의 L바는 주로 저녁에 영업을 하는, 성인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곳으로, 오히려 일반 여타 술집보다 그 성인 확인 여부 검사가 더 철저하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리고 레즈비언들만을 위한 그 공간을 아웃팅과 관련하여 아무 배려도 하지 않은 채 카메라를 들이민 그들의 태도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전보다 그 수가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어쩌면 이러한 상황이 레즈비언들이 서로가 서로를 찾게 만들고, 이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L바와 같은 장소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닐까. 레즈비언들 사이에서 '열린'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L바. 우선 이 곳에서는 서로간의 인간적인 믿음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는 이성애자들의 공간에서 도망쳐 나온 것이 아니다. 단지 아직 그 수가 적고, 따라서 자연스레 좁아질 수 밖에 없는 이 인간관계들을 좀 더 돈독하게 하며, 되도록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자 하는 이유에서 이러한 장소를 꾸려나가게 된 것이다. 내가 보다 자유로울 수 있는 이 곳.

이곳은, 내가 당당히 레즈비언으로서 숨을 쉴 수 있는 곳이다.



세번째. 아름다운 사람들

웹에서 허우적거리기를 좋아하는 당신들을 위한 - 레즈비언 문화웹진 L Zine -

난 인터넷으로 글 읽는 것을 무지 좋아해. - 물론 눈은 계속 나빠지고 있지만.. 그래서 요즘 블로그를 돌아다니는 것도 재미를 붙였지. - 물론 화연 포함 나와 같은 사람,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두 다른 생각. 궁금하지 않아?

part 1. 소개해주세요- 레즈비언 문화웹진 L Zine

- '엘진' 이라고 읽으면 되고 'L' 은 레즈비언의 약자고 'Zine' 은 다들 알다시피 magazine을 뜻하지!
- 주소는? <http://www.lzine.net>
- 엘진은 편집이 쓴 글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야. 현재는 8명의 편집으로 구성이 돼 있지. 그리고 그 분들이 쓴 글을 읽을 수가 있어.
- 이곳에 오면 이반과 관련된 기사, 소식 등을 접할 수가 있어.
- 영화나 도서, 기타 자료집 등에 관한 소식도 재빠르게 접할 수도 있고!

part 2. 편집장과의 대담

메이베: 반갑습니다!! 원 빈날의 세근한 활동가 메이베라고 합니다. 편집장님 소개부터 해주세요!! 하핫!!

엘진: 본인 소개는 그다지 할 게 없네요. 그냥 무너만 편집장? 글 쓰시는 분들이 본인의 글을 다 편집해서 올리시니 제가 하는 일은 없지만서도.. ^^

메: 아 그렇구나.

그런 '엘진' 을 잘 모르시는 또는 잘 아시는 모든 분들에게 엘진을 소개해주세요.

엘: 원래 타이틀은 '여성이반 문화웹진'인데 '레즈비언 문화웹진'으로 바꾼 이유는 '이반'이라는 단어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직접적으로 와 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성애'라는 분류 안에서 또 분류는 나누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 엘진을 만든 이유는 서로 글 쓰면서 소통하고 싶었고 운영하면서는 엘진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언제 깨달았는지에 상관없이 알아두면 좋은 것들,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메: 그렇다면 엘진은 '문화' 를 다루고 있는 거네요. 글이라는 형식으로요. 그렇다면 여성 이반의 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흔히 이반문화는 퇴폐적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말이예요.

엘: '문화'라는 것 자체를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눈이 게기차기 밖에 없어서 그것을 하다 보니 먼 훗날에 전통놀이라고 불리고 사람들이 게시판에 게시물(리플)을 다는 것보다 댓글을 더 많이 다니 그것을 '댓글문화'라 부르고.. 그래서 '여성 이반의 문화'도 여성 이반들이 모여서 글을 쓰거나 영화를 만들거나 하다 보니 그

것이 '여성 이반의 문화'인 것처럼 딱히 의미부여 같은 것은 하지 않아요. '퇴폐적이다'라는 것은 소수의 모습이 그러하게 보여 졌을 뿐이고.. 뉴스를 봐도 누군가가 법과 도덕을 어긴 이야기만 나오지 잘 지켰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욕먹어 마땅한 일'에 있어서 일반이나 이반이나 다를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겠죠. 다만 그 사람이 그러한 일을 했을 법한 이유에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그럴싸한 이유가 붙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구요. 엘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오해는 받은 적이 없어서 너무 조용하다랄까.. 하물며 포비아의 위험한 접근도 한번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잠잠하다 싶기도 하고.. 조금은 원색적으로 묘한 이야기들도 있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어요.

메: 아. 제가 좋아하는 따뜻한 이야기요? 하하하. 엘진을 운영하면서 많은 문의 메일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엘: 엘진 오픈한지 2년 정도가 되는데 가장 최근에 편집의 연락처를 물어보는 하나 받았어요. ㅋㅋㅋ! 오히려 제가 묻고 싶어요. 이제서 문의 메일이 많은 것이라 생각하셨는지.. ^^

메: 아 그렇군요. 그 편집이 누군지 궁금하네요. ㅋㅋ 메일 같은 경우 저희 단위의 경우에는 이것저것 할당된 문의 메일도 자주 오는 편이랍니다 (제가 메일 담당이다 ㅋㅋ) 그런 주로 어떤 메일이 오는 편가요? 상담?

엘: 일단 엘진은 메일 주소를 공개로 함에도 불구하고 메일이 오는 경우가 없어요. (광고메일 빼고) 상담을 하거나 그런 단체는 아니기 때문인지 몰라도 상담 메일도 없고 '소식통>단체소식'에 다 단체에서 하는 행사 등에 대한 정보를 올리는데 그 곳에 글 올려달라는 메일은 몇 번 받았어요.

메: 아하~ 그렇구나. 은근히 메일을 확인하는 재미도 쏠쏠한데! 편집장님은 이번 메일이 받고 싶으세요?

엘: 개인적으로는 이반 뉴스를 담은 '소식통'보다 '단체소식'에 글이 더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이반커뮤니티나 인권단체, 이반 업소등이 홍보하는 곳이라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주면 되는 데 생각보다 소식을 알려주시는 곳이 적어요. 지금 올려진 단체 소식 중 대부분은 제가 스크랩 해온 것 이구요. 그만큼 엘진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안했다는 말도 되겠죠..

메: 원래 모든 이력들은 홍보에서 시작을 하죠. 간단하지만 어려운거 같아요. ㅋㅋ 글을 읽어보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 주세요~

엘: 음.. 동성이거나 이성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니까 좋아하는 거죠. 성별은 2차적인 문제고 1차적인 문제는 자신의 감정인거죠.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사회의 시선이 두렵다면 그 틀 안에서 고민 같은 것도 하지 말고 사세요. 동성애자로 살건 이성애자로 살건 시선을 두려워한다면 고민하는 것도 마땅하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고민해봤자 사회가 애인이나 배우자감을 만들어 주진 않죠.

메: 와 진짜 질타네요!! 그러면 엘진에 주로 올라오는 글들은 어떤 것이요?

엘: 가장 많이 글로 써지는 것은 자신의 경험담이나 생각, 이슈화 되는 것들이 아닐까 싶네요.
겪는 시기만 다를 뿐 다들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도 좋지만 훨씬 분들이
지금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더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꼭 경험담이 아니어도 들은 이야기도 좋고요.

엘: 일단 켈진 분들이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켈진 없는 엘진은 풀 없는 굴뚝) 가능한 한 오래 운영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서도...

그리고 필진 분들도 조금 더 늘고 언론사에서 뉴스 스크랩 허용도 많이 해졌으면 좋겠어요.
(저작권 때문에 허락 받은 언론사에서밖에 기사 스크랩을 못 해요)
마지막으로 열진이 수익이 조금 생겨서 윤영비가 빠졌으면 좋겠네요. ^^

영: 편견들을 잘 고마워요~ 이제 이만 분들 닫힌 공간(학교를 떠나지 않는 이상 4년 동안 거친 얼굴 보며 살아가는 것이니)에서 커밍아웃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대단해요!
그리고 현재 동성애자로 살아가고 있으나 사회적 편견 때문에 이성애자로 살아가게 되실 분들 배
수간 자신의 선택을 후회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part 3. 정리하여

3-1. 길어두루니

엘진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려고 했으나, 나의 산만한(비쳐 알지 못했지) 성격으로 인해 굉장히 산만했어. 그래도 대충 알겠지? 엘진은 필진으로 이루어진 웹사이트고 글이 주로 올라오는 거야. 대충 블로그 형식을 떠올리면 돼. 내용은 우리(레즈비언)가 사는 이야기들이고.

그런 엉망진창 인터뷰에 응해주신 친절하신 편집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아, 이번 인터뷰를 계기로 변날도 켜진으로 참가하게 됐어 :) 아마 이번 문화제 후기를 시작으로 글이 올라갈 거야. (아마 내가 계속 쓸지도 몰라. 다들 긴장해!)

그리고 읽느라고 수고한 당신들에게도 평화를—

3-2. 2003년 12월 31일 현재

사실 레즈비언의 문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글'도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것 같아. 글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고들 하잖아? (아님 말고!!) 내가 레즈비언이라면 나와 같지만 다른 레즈비언은 무슨 생각들을 하고 사는지도 알 수가 있고, 레즈비언이 아니라면 레즈비언들이 무슨 생각하나 알 수도 있지. 편견도 없앨 수 있고 말이야. 물론 나같이 글도 못쓰고 말재주도 없는 사람은 예외야. 내 마음은 이 글보다 더 충실하고 아름답다고. ㅋㅋ 그런 헛소리 그만하고 다들 안봄~

세계 최초! 여성 이반 품물패 > <

세계최초 여성이반 풍물패라니 !! 멋지기 그지없는 그들 -

정말 바람소리같이 귀에 휘감기는 멋스러운 연주를 하는 멋진 분들, 바람소리!
같이 만나보실래요?

한글자판도, 의의는 늘 이렇 살을 찾아만 이한 문자의 건물, 해에 최초 이경 이한 중용재입니다. 아담스이는 이경 이한은이이의 실용 및 건전한 문자/서이 활용을 위한 한이며, 또한 아시아 중용재의 기본적일 기할 조할 주구할= 조어 팔알아고 열정이어 이경 이한을 이하는 한때입니다.

바알샤임은 두아에게서 얼마 나지 않은 슬아어이며 없어집니다. 팔들하고 모여서는 직면들이 그런 바알샤임을 세우지 아니하려 노력하고 있다면, 그 이면에 두아에게 이런 것을 만들어주고 기말을 하였으면 좋겠습시다.

저는 바알샤임을 만드신 '여울' 밑은 바알샤임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이말에는, 일만하는 소이 지 말의 슬아어라는 다른 것이 없다면, 그 말의 10등 밑에서 한나 축축들이 일곱 모일어 열나면이 나 또한 그러한 모일에서 바알들을 만나는 것이 슬아어 저의 낱아 모일에 알려졌었다. 그러자 그 문득 이 슬은 바알들과 만나 할만 바일 것이 아니라 내아 하고 있어 좋은 말들과 풀들을 나누고 있다는 별다른 풀있고 그래서 시작했어. - 라고 말하십니다.

저는 말들의 '작은 바알' 이 지음의 '바알샤임을 시작하는 세기' 가 되었고 그 '작은 바알' 이 같은 뜻을 가진 것은 바알들로 인해 지음은 '바알샤임의 한생의 여울' 가 되었습니다.

같은 광물대이기 때문에 동일한 휘수의 광물을 많이 찾았다. 한때의 특성이 있다 보니 레오이언군과 옥클 또는 카이
문과 옥클에 같은 작은 정석소수가 문과 옥클에 속한 광물에서 거의 모습을 보일 정도로 많았을 것 같다. 늘 해도 역시
카이 문과 옥클에서 광물을 얻/저해지/갈광물대들엔 거의 모습을 보여 드렸었고요. 늘 하면 기준과는 늘 다른 광물을
드렸었는데 건조에 걸맞게 모습을 찾아 정석소수가 늘을 위해 갈아서는 건조/아무리 늘을 갈아도 한계점을 찾지
키는 이인물이 많아도 했었고요. 기준이라는 애매 정석적으로 아무 수업을 증명했었는데 늘 애매 아무키는 사람으로
1의 정석들일지도 알아 갈았다. 한참 늘을도 많이 보여 드릴 게요? ...????? 또한 수학적일광으로 되현 원국
도모를 위한 보조기 행이나 늘이랑. 오기작을 늘을 증명하기 위한 기기의 문득한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다. 문득 아
니냐 늘해 정석들일 이루어는 증가할수록 수 있게보이고 갈았다.

아람조어는 대강 (TaKUN) 을 알았으므로 연습주제인 알이해 (작가해로 - 화: 갠이, 양구: 그루, 독: AssN) 과 기타 등
 결인 (음유: 대강, 서기: AssN, 동이기: 대강, 능이주제: 그루) 이 최현종의 광음을 이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현
 종은 본인의 자서에서 최현종 아 아미 아람조어를 알게 되었다고 쓰고, (화: 일수 / 양구: 쇼어, 약아, 열 /
 독: 음나, 우운, 이원, 아들 / 양도: 이로)

Q.이반으로써 중독에 활동을 하면서 힘든 점도 많았을 것 같은데, 이에 관련된 에피소드나 힘들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우로 대학 운동장이나 학원쪽만 있을 연습실로 삼았었기 때문에 어떤 직원들은 운동장 모퉁이로 일단 가져온 조금 큰단 승계를 보이기도 했었고, 중독을 못이 내는 큰 소리로 인해 어떤 날은 연습을 하다 세 번씩 못사나며 자리를 옮겨야 했던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도 두루미 보장은 있어서 좋고, 2년 전에 연습을 한 건물 사이에 남경 이만 중독에 '소리로 알은 날'과 함께 연습실을 만들어 그런 문제는 이제 없었으나 연습실이 많이 좁아서 각기 장래도 걱정스럽게 결결 활동공간이 많아지고 일단 (서기 건물 만들어 줘서 자각을 지킴) 연습을 하다 보니 연습실이 좁아서 다시 예전과 같은 문제를 간고 연습하고 싶고, 연습실이 좁아서 쉬고 있고, 환경이 열악합니다. 얼마 전에 연습실에 갔더니 정말 아담에서 술냄새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루스캣소리로 악물 상태라고 1박에 5천원에 매일 해주라고 그러기도 했었죠.~"~

Q.또 그와는 반대로 즐거웠던 일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바람소리'로 활동하며 가장 즐거웠던 일이나 '바람소리'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가장 자부심이 들 때는 어떤 때인지 말씀해주세요
아무래도 '여름이만' 단테이건 카이만 '중독'에 아 중독하면서 가장 즐거운 두루미 없었습니다. 관객들이 그 중독 때우고 함께 즐거울 때 가장 기분이 좋구요.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것은 카이문화축제 1루 카이'에 여러가 알을해 중독을 했었는데 어제이도 참여했던 다른 단테들이나 관객들이나 심지어 카이를 알아주었던 중독된 남자들이 모두 손을 잡고 갈을해줬을 때의 기분이 정말로 잊을 수 없습니다. 이후 그 값있던 행사로 서로 어떤 상황이 고 두루미 어떤 중독에가 형성되었는지는, 아니, 그런 게 되었는지 아니었는지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그래도 서로 카이'의 눈으로 아어어 있다는 것 그게 하나만으로도 기억 있는 시간이 되기 않았나 싶고 카이'소리가기 때문에, 아담소리가 중독 때문에 할 수 있던 두루미 아니었을까만 생각해 생각해 이 보입에 같면이라는 것이 자알'어웠고요.

Q.마지막으로 저희 변남과, 이 글을 읽게 될 이화여대 학생들에게 한 말을 부탁드립니다.

정말이 어서의 길을 걷고 생기는 거야 열악이 됩니다. 그 길을 소일 있게 살고 예전 여대에게 중독의 악수를 보내드리고, 이화여대 자체가 정말이 열악 있고 열악적이기도 소일 있는 것인 여대'인제를 알감하는 학교라고 들어했습니다. 학교만 들어보아도 이화여대 '인들의 그어한 모습을 느낄 수가 있구요. 그런 모습 어둡 어 열감이 카이'서 카이'나카의 이제를 카이'라는 중독한 일대로 거듭나기길 바라겠습니다. 어찌의 길을 완결 갖고 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주파로 주파수를 돌려!

이번 인터뷰는 유쾌 통쾌한 레즈비언 라디오 제작팀, 레주파(lezpa) 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와우우, 방송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하시고 계신 일들이 많아서 인터뷰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어서 함께 열정과 끼가 넘치는 레주파 언니들의 인터뷰 속으로 고고!

Q.L들 사이에선 이미 너무 유명하지만 차마, 접할 기회가 없어서 몰랐던 분들을 위해 레주파를 멋들어지게 소개해 주세요! 판판판 *~*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들!

수원, 레주파에 대해 간단히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레주파(lezpa)는 '레지언얼 주파수' 라는 뜻으로 한국 최초로 동성가게서 레지언얼 카이'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카이'로 제작됩니다.

Q. 현재 하시고 계신 활동과 현재까지 해온 활동들을 간단히 말씀해 주신다면은요~?

2005년부터 동성애 카이'로방송국인 아로FM에서 '언니들의 맛음방송'을 모토로 '1. 양양'이라는 1시간이 10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 활동은 카이'로 맛음 제작이구요, 그 밖에 레지언얼 문화 활동과 소중을 위한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레지언얼 카이'로 활동가 강연을 위한 레주파 2, 3기 가제 교육과 맛음 100일 기념 카이' '대박'을, 1주년 기념 캠프 '열매'를 100%를 주최했고 제 1회 레지언얼 문화제에서의 레지언얼 카이'로에 관한 강연, 카이'문화제 참여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Q.레즈비언 라디오 방송,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 궁금해요!

언제 어떤 계기로 만들어졌나요?

2005년 4월에 장남이아이'에서 이디캣과 서울 이디캣을 RTV, 한국 청소년과 문화 관련해서, 어경영장남단 등이 기획한 '주파수 맛음 카이'라는 이디 캣'수가 카이'교육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카이'로 교육을 받은 수로'들이 카이'의 아이'와 독'기를 해보'할 수 있는 레지언얼 카이'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오라는 의견을 모으게 되었고 레주파를 결성했습니다. 그때 마침 아로동성애아이'가 생국을 앞두고 있었던 시기가 2005년 8월 10일부터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또한, 그 당시 레지언얼 언니들의 예아가 되어가고 있던 카이'적'이'로'로 1 방송을 카이'에 좋은 동간이'로 생각되었습니다. 카이'라는 개념이 다른 세대들에 비해 아웃리'크 소'가 적'다는 점도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큰 장점이었습니다.

Q.현재 레주파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레주파에서 가장 큰 활동이 카이'로제작이기 때문에 1양양' 프로그램 제작과 강연에서의 역할은 10과 각자, 레지언얼로 구성되어있고, 얼마 전 교육을 받은 3기들은 또 다른 레지언얼 카이'로방송 제작을 구상중입니다.

Q.레주파의 야심찬 라디오 방송, L양양'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언니들의 맛음방송 1양양'은 매주 수요일 밤 12시 FM 동성애 100.7MHz에 주파수를 맞추면 아로'로 일원에서 맛음들을 들을 수 있으며, 그 외의 지역에서는 레주파의 다들가'를(www.cafe.daum.net/lezpa)에서 맛음들과 맛음'아'들을 아'실

아름다운사람들

(신난목소리) "편의점 가보세요 [부드러운 L목차]
라는 녹차가 나왔어요. 우리 녹차인가봐요?"

물론 지금 제가 사이비로 떠돌고 있는 이거 말고
전혀 열악한 환경에서는 훨씬 더 진솔하고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다른 누군가의 레즈비언 경험을
레즈비언 디게이가 이야기하고,
편지를 통해 그 목소리를 듣고-
같이 웃고 고민하는 순간들.
보통은 텔레비전을 보거나 라디오를 들으며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에겐 드물기만 한 참 멋진 일이에요.
일반들은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 우리의 말들과
우리의 이야기들을 키클러리며 듣는 기분도요.

물론 이런 피드백,
사연을 받고 즉각적 답변을 해주고 하는 것은
라디오의 특성이지요.
그래서 라디오 L양장점에서는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거든요-

삼 번!
라디오를 통한 커뮤니티 만들기!
어느 날부터인가,
방송 시간이면 청취자 언니들끼리 카페에 모여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같이 방송도 들으면서 수다도 떨면서,
아. 바로 이 모습이에요!
오우 아름다워라- 언니들끼리 노는 공간!
(사실 아주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 아주 잠-간!
저희 쪽에서 청취자인 척하고 대화방 열어놓고
빠져줄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풀리!)
그렇지만!
그건 아주 잠깐 몇 번이었다구요-
지금은 언니들끼리 방송 날을 기다렸다가
재밌게 하고, 오프에서 만나 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참 좋아요.

아무리 요즘에 인터넷 커뮤니티도 많아지고
레즈들끼리 만날 기회가 많다고 해도 아직 이 쪽
원구들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분들도 많거든요.
"이분들과 소통하는 건 L양장점이 처음이에요"
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따뜻 하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방송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레즈비언의 소통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살어 하는데요,
클럽에서 여러 공연과 함께하는 공개방송, 방송
100일 파티도 열고 작년에는 알찬 프로그램으로
청취자들과 캠프도 다녀 왔거든요-
앞으로도 똑똑똑,
언니들끼리의 끈끈한 관계를 위해 노력할, 거예요!

S# 15 원모성 시그널 DJ krush - A Whim

>>up

>>down

네, 여태까지
언니들을 위한 맞춤방송!
레즈비언 라디오 L양장점에 대해 이야기
드렸습니다.
재밌은 것 같았어요?
그럼 놀러 오세요.
www.cafe.daum.net/lezpa

그럼 이화여대의 수많은 레즈비언과
예비 레즈비언 언니들,
그리고 그냥 언니들!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언니들 멋져요,
안녕-

>>up

>>out



네번째. 아직 못다한 이야기



"이화여대 4년 레즈비언"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화여대 안에는 얼마나 많은 레즈비언이 있을까.

적지 않은 이화인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다. 물론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도 마찬가지다. 설문조사를 통해 그 정확한 수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불가능하겠지?), '나 레즈비언이오'라고 이마에 써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은 더더욱 없으므로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but, '이화여대안의 레즈비언들이 모여서 만든 커뮤니티에 가입했던 사람들의 숫자는 그리 적은 편은 아니다. 300명 정도 가까이 된다고 알고 있다.

'지금 또 다른 커뮤니티에 가입해 있는 이화인의 숫자도 그리 적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다. 누군가가 나와 같이 저렇게 말을 한다면 보통의 이화인은 "그렇게나 많아?"라고 되묻는다. 그렇다, 당신들이 보기에 말을 지도 모른다. 아니, 어찌면 더 많을 거라고 이야기 해 주고 싶다. 자신을 레즈비언으로 정체화하지 못했지만 여성을 사랑하고 있는 이화인들, 그리고 커뮤니티에 가입은 안했지만 함께 살아가고 있는 레즈비언들.

이화여대 4년 레즈비언 by Sea

흔히들 말한다. 이화여대에는 레즈비언이 많은 것 같다고. 다른 대학에 있는 레즈비언의 숫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확실히 단언하긴 어렵지만 내 생각에도 사실 그렇다. 우리 학교엔 레즈비언이 '췌' 많다. 왜 그럴까?

일단은 환경적인 영향을 꼽고 싶다. 여대니까 여학생뿐이다. 자연스럽게 감정이 생길 수 있다. 사람에게 있어서 동성을 사랑하는 감정은 결코 이상하거나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다!

그리고 이젠 나만 느끼는 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대에는 멋있고 아름다운 여자들이 많다. 따라서 레즈비언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일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 '주위에 여자밖에 없기 때문에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 우리 학교의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개방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들이 많다. 이화여대는 여성학의 메카라고 불릴 만큼 여성학이란 학문이 잘 자리잡혀있고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여성 주의적 시각뿐만 아니라 동성애, 성소수자에 대해서 열린 시각을 가지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이다. 동성애에 대한 시선 면에서 특히 그런 것 같다. '동성애가 결코 비정상적이거나 특이한 것, 가져서는 안되는 감정이며 더러운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엔 꽤 많다. 자신이 동성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한다. 학교안의 이화인들의 분위기 역시 그렇다. (작년 문화제 테러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이화여대에서 말하는 많은 이화인들의 글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분위기들, 그리고 열려있는 사고방식 덕분에 우리 변태소녀들은 가끔 말하곤 한다. 이화여대는 우리에게 온실이라고. 따라서 나는 생각한다. "이화여대 4년 레즈비언". 말 그대로 이화여대를 다니는 동안만 레즈비언이라는 뜻이다. 그런 사람들은 의외로 많다.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어떤 생각이 드는가? 이화여대안의 저리한 (위에서 말한) 분위기와 요인 때문에 레즈비언들이 많이 생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가?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튼, 가장 중요하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화여대 4년 레즈비언" 즉, 왜 우리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만 레즈비언으로 살아갈까하는 점. 우리에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동성애란 감정이 왜 이화여대를



다니는 딱 그 동안에만 허락되는 것일까. (허락이란 말 자체도 사실 웃긴다.)

학교를 졸업하고 마주치게 될 사회는 우리에게 이성애주의적인 사고방식만을 강요한다.

남자가 늦게 결혼하는 것에 대해선 '아, 저사람 큰 뜻이 있구나, 결혼은 나중에라도 해도 돼!'라고 말하는 반면, 여자가 늦게 결혼을 한다면 그 여자에게 큰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빨리 시집을 보내버려야 하는 이상한 장벽관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여자가 남자와 결혼을 하는 것은 마치 당연하듯 법과 마찬가지로 사회에 자리 잡고 있고,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혹은 가족 안에서도, 우리에게겐 이성애적인 (대부분의 이성애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사고방식과 행동, 제도, 관습들만이 요구된다. 정말 동성애자들에게 갑갑한 세상이다. 동성애자로 남을 수 없도록 세상은 우리를 조여둔다.

누구나 동성을 사랑할 수 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고 당신들도 마찬가지다. 동성애가 허락되는 듯한 분위기에서 우리는 약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동성을 사랑한다. 그래서 이화여대 4년 레즈비언이라는 단어도 생긴 것이고.

다시 묻고 싶다.

"당신, 한 번도 여자를 사랑한 적이 없어?
심장에 귀를 기울이고 솔직히 들어봐"



남성성에 대한 이야기

부치, 이제 여성을 외치다

<목차>

I. 들어가며 - 문제제기, 연구방법 제시

II. 본문

1. 부치/뽀 구분의 기원과 논란의 역사, 그리고 현재.

(1) 한국 사회의 부치/뽀 기원 - 바지씨가 뭐예요? 그럼 치마씨는?

(2) 부치/뽀 구분에 대한 논의 - 20여년 간의 논란과 현재.

2. 뽀/부치 구분에 대한 레즈비언 공동체 내부의 의견들

(1) 긍정적 태도

(2) 부정적 태도

3. '부치=남성성, 뽀=여성성'에 관한 본질적인 고찰

4. 부치에 대한 재 정의와 재인식 - 여성의 중심에서 '여자' 부치를 외치다.

(1) 여성성이 무엇이었길래.

(2) 남성성을 가진 부치=복역적, 위험적 존재인가.

(3) I am butch!

III. 마치며



I. 들어가며

"어머, 저 사람 좀 봐. 완전 남자다. 남자. 여자인걸 알겠는데 저러고 다니면 누가 여자인줄 알겠어? 중, 고등학생들 중에나 저렇게 머리 짧게 하고 남자처럼 옷 입고 다니는 애들 있는 줄 알았지 대학교도 저런 사람이 있을 줄이야. 재 분명 레즈겠지?"

이는 지난 봄 이화여대에 놀러온, 연구자 중 한 명의 사촌 여동생이 연구자에게 한 말이다. 당시 지나가던 보이시한 스타일의 학생을 두고 한 말이었고 사촌동생은 그 학생을 레즈비언으로 단정 지어 버렸다. 그 근거는 너무나도 간단했다. 여자인데 남자처럼 하고 다니니까. 그렇다. 여성으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이들은 비단 장에 여성, 혹은 여성뿐만이 아니다. 보이시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여성의 경우 아직도 레즈비언이라는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실제로 그런 스타일의 레즈비언인 경우 성소수자로 겪어야 하는 고통과 외부적으로 끊임없이 레즈비언임을 의심받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본 레즈비언 커뮤니티 내부에서 연구자들은 조금 더 자세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소위 남성스러운 레즈비언을 일컬어 레즈비언 커뮤니티에서는 '부치'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고 여성스러운 레즈비언을 '뽀'이라 부른다. 부치/뽀의 구분이라는 것은 곧 부치의 존재가 가능하게 하는 전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구분에 대한 논란이 레즈비언 커뮤니티 내에서 20여년간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이 문제 삼는 것은 부치/뽀 구분이며 이것이 문제되는 이유의 중심에는 부치가 '남성성을 표방하는 여성'이라는 것. 그런 부치와 뽀의 관계는 남녀관계의 권력구조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과연 그러한가. 연구자들은 이러한 부치에 대한 기존의 인식과 그것으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레즈비언 커뮤니티 내부의 부치/뽀 구분에 대한 논란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질문을 내리는 시도가 이중고를 겪으며 살아가는 부치 뿐만 아니라 레즈비언 커뮤니티, 그리고 모든 것을 이분법적 성별 구분에 맞추어 사고하는 이 사회에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이에 본고에서는 부치/뽀의 구분이라는 현상이 존재하는 것 자체에만 주목하기 보다는 이런 현상이 발발하게 된 원인과 지금까지의 논란, 현상의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을 함께 조명하고, 더불어 이러한 구분이 가능하게 하는 본질적인 개념들-여성성과 남성성, 더 나아가 부치, 뽀, 전천 등-이 레즈비언 커뮤니티 내에서 어떻게 재정의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효과적이고 논리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본 보고서는 문헌조사와 실증연구를 중심으로 현상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과 레즈비언 공동체 내부의 의견을 조사했고,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연구자들의 가치판단과 전망으로 마무리되는 귀납적 연구 방법을 취하고 있다.

II. 본문

1. 부치/뽀 구분의 기원과 논란의 역사.

그리고 현재.

(1) 한국 사회의 부치/뽀 기원

- 바지씨가 뭐예요? 그럼 치마씨는?

저 먼 고대 시대에서부터 동성애는 존재해 왔지만 이것이 사회적으로,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라는 개념이 확립된 것은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다. 때문에 90년대 이전을 살아온 레즈비언의 경우 이렇다 할 롤 모델이나 커뮤니티의 부재로 이성애 커플의 모습을 모방하게 된다. 즉 바지를 입는 덜 여성적인 레즈비언을 바지씨, 치마를 입는 레즈비언을 치마씨라고 불렀고 바지씨는 이성애 커플의 남성적 역할, 치마씨는 여성적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 구분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는 현 한국 레즈비언 커뮤니티 내부에 존재하는 부치/뽀의 어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전의 바지씨/치마씨와 부치/뽀는 분명 다른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90년대 이전의 경우,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그들이 역할 구분을 하고 바지씨의 경우 더 남성적 면모를 지향하게 된 데에는 불가피한 이유들이 있었다. 동성애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 이기에 여성-여성 커플이 이성애 커플의 모습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었던 것도 하나의 이유지만 남성-여성 커플의 모습을 모방하지 않고는 당시를 살아가기 힘들었던 것이 당시 레즈비언의 실이었기 때문이다. 치마씨에 비해 덜 여성적인 바지씨의 경우 F to M 지향의 트랜스에 더 가까웠다는 얘기만 하더라도 당시 바지씨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나 바지씨와 함께 있는 치마씨, 그리고 그 둘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굵지 않은 않았을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조선한 여성의 이미지가 아니면 차라리 남자처럼 차려 입고 거리를 다니는 것이 더 편했다고 하는 시대였으니 말이다. 이렇듯 바지씨/치마씨의 구분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구성될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현상이고 필요였다.



하지만 그로부터 40여년이 지나고 현재 레즈비언 커뮤니티 내부의 단어는 바지씨가 부치로, 차마씨가 램으로 전환되었다. 부치, 램의 경우 외국에서도 통용되고 있는 단어로, 용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듯 그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 또한 처음과는 많이 달라진 것이 현실이다. 과거 바지씨/차마씨가 이성애의 성역할 구분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면 부치/램 구분의 경우 이성애의 성역할 구분에서 그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처럼 작동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를테면 외모가 다소 뚱뚱해 보인다고 성격이나 태도, 그 밖의 것들을 통해 자신을 부치로 정체화하고 이것으로 자신을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 부처/렘 구분에 대한 논의

- 20여년 간의 논란과 현재

동성애라는 개념이 대한민국 사회에 규정되고 이에 따라 레즈비언 인권운동이 시작되면서 인권운동가들을 중심으로 부치/웹 구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특히 정치적 레즈비언리즘을 이야기하는 페미니스트들을 중심으로, 부치/웹의 구분이 이성애 사이에 존재하는 남성-여성의 대립적 권력구조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고 이로 인해 몇몇 주요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부치/웹 용어의 사용을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현재까지도 많은 커뮤니티에서 이어져 오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여전히 부치/웹의 구분이 건재하다. 부치/웹의 구분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커뮤니티의 경우 이를 이성애 중심적 구분이라고 문제제기 하는 이들에게 그들이 이야기하는 남성성, 여성성의 기준은 무엇인지 되물고 있으며, 정치적인 논의를 제외하고서라도 부치/웹 구분이 주는 유희적 기능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하여 부치/웹 구분에 대한 논란은 본격적인 부치/웹 구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1980년대 이후로 2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2. 캠/부처 구분에 대한 레즈비언 공동체 내부의 의견들

지금까지 웹/부처의 개념과 어떤 웹/부처 구분에 대한 논쟁과 원 사경에서의 웹/부처 구분 현상과 양태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 이제는 이러한 현상들이 레즈비언 공동체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입장 지워지고 있으며 공동체 내의 레즈비언들이 웹/부처 구분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를 심층면접과 몇 개의 자료들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심층면접은 각 레즈비언과의 대화형식의 인터뷰로 이루어졌으며 '이화레즈비언연결운동모임태소녀하늘을날다' (이하 빈날), '한국레즈비언상당소'의 회원

중 일부와 그 외의 개인 레크비언을 대상으로 하였다. 심층면접에서는 확연하게 찬성한다 혹은 반대한다 의 의견 뿐 아니라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봐야 한다는 경우도 있었다. 처음 심층면접을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에는 팬/부치 구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이 없고, 자기 자신은 자신의 성향을 설명할 때 팬/부치를 굳이 나누지 않지만 커뮤니티 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계속 질문과 대답을 진행시켜 나감에 따라 중립적이고 방관적인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이야기해 나가는 편이 많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말하는 바를 명확히 하기 위해 중립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눠서 정리해보기도 한다.

(1) 긍정적인 태도

레즈비언 인권운동을 하는 레즈비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할 때 인터뷰어는 모르겠지만 심층면접을 했던 상당수의 레즈비언들은 웹/부처 구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만을 보이고 있는 의견을 찾기는 다소 어려웠다. 아래의 인터뷰 내용들은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말하면서도 웹/부처 구分的 긍정적인 측면을 좀 더 다루고 있었던 이들의 대답이다.

“내가 긍정하면 두뇌/행의 구분은 내가 좋아하는 나아짐이 있는데 두뇌/행/인본이 없다면 일어났거나 저어지거나 할 의도없이 가는 다수의 에너지현상들 100이면 100이 만나 오고, ‘아, 저 사람은 내 나아짐이다, 나나나’ 등 말한 해마에는 두뇌/행/인본의 구분이 있을지라도 그런 수고나 말한 줄이르는 거잖아. 일어났거나 저어지는 것에서 사람을 만날 때 오면 죽이나 이 그해, 자기조작하는 것에 수인-1할 같이 자기는 두뇌/행/인본을 저어지면 사람 만날 때 일어나지, 내 생각이나가 사람 만나기에 전이한 것 같아, 그런 것이 좋지”

- Namai dal

“인생의 권치라고 할까. 사람들이 눈치를 달랠 때 달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위장 정도는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권
치는 주는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사오면 이제 사갈수록
두꺼워져 나뉘어 있고 이제 할 권치야 할까. 이렇게
사들은 어이든 (대개 어이로) 알게 되는 날이 있으면
어떻게든 되지만 예외일 경우는 아냐. 갈수록 아는 어
가 있어서 ‘알지 이만 있어’ 이러면 그까 같은 경험의
야 (웃음). 그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고 권치를 위한
권치야 할까?” - Name: 재성 -



웹/부치 구분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레즈비언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을 만날 때 기본적인 성향을 알 수 있어서 편리하다는 점이 긍정적인 생각과 관련이 있다. 이성애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들을 바라본다면 고작 그런 편리함 때문에 웹/부치 구분을 긍정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레즈비언 공동체 내부에서 그러한 구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더 초점을 맞춰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삶은 인간적인 것이다. 갑자기 황당하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도 있지만 인간의 삶은 그 안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어떤 것인지를 현실적으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밖에서 팔방을 끼고 '나는 객관적으로 이들을 관조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조건 웹/부치 구분을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또 하나의 폭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나 같은 경우에는 부지-뿔 구름하는 것이 편리할이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것 같고, 사실 그런 것들이 에스이언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느 정도 공감하는 문화를 형성했다고 해주어야 하나?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 에스이언 커뮤니케이션에서 많이 활동하는 사람들은 많겠지만 이 칸이 좀 좁은(웃음). 그런 좁은 공간에서 커뮤니케이션(에스이언들끼리) 뿔/부지 등 경향을 구분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면서 공감하는 부분이 생기고, 우리의 문화를 어느 정도 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일할 같은 것들을 느끼기도 해. 사실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서 부지-뿔 이런 것에 대한 심각한 생각 없이 지나고 또 그것들을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지는 것도 있겠지만 에스이언 커뮤니케이션에서 사람들이 부지-뿔 등의 경향을 이야기하면서 어느 정도 이해할지도 하고, 그런 경향을 구분하면서 생기는 에이스드 같은 것들도 있거든. 유머라고 해야 하나? 예를 들어서, 연장에 내가 처음 들어갔을 때 어떤 한 활동자를 보고 ‘아, 저 사람 진짜 부지 같다.’ 하고 생각했던 사람이 뿔 경향을 가진 걸 알게 되었을 때 나중에 둘 다는 어느 활동자들이지 몰랐는데, 처음 들었을 때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활동자들이랑 공감하고 - ‘아, 맞아 맞아, 애 진짜 부지 같은데 팔린 속을 들어야하면 증명이 아니냐? (웃음).’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야기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생겼어야 하고, 듣는 그 사람도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웃기고, 이런 걸 보면 난 내뿔 뿔/부지 나누는 것에 대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를 알 도드랬어.”

- Name: Seffy

한데 그리고 지금도 아산시민단체 저유니아에서 우리/영
은강이 급강한 격이 있잖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유니아
확고해이고 그 국경원들이 정예들을 숨어 확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아직 논란이 여지가 있는

부름이어서 작어진 긍정적인 영향만을 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우주는 힘을 더 준다. 그날 장편적인 영감이 부딪는 것이 있다고 하기 보다는 그날 모든 과정(카뎀/부시) 관련은 영이 고(고)한 과정. 일일이 여작했던 레스이언 저우니이 카 자미를 갈아나면서 서차와 아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 같다. 그날 영이하면 그날 과정이 있느니를 사할들이 드디어 레스이언이 원가. 나는 원가. 수인 원가. 이영제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좀 더 레스이언의 위치가 확고해지는 생각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다. - Yama: 원가

'Seary' 씨의 인터뷰 내용 중 램/부치 구분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전문은 그대로 쓴 이유는 레즈비언 내부에서 램/부치 구분이 어떻게 통용이 되고 있고,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로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눈이물화처럼 존재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커뮤니티 내에서 친근감을 형성하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상당 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내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또한 '휘틴' 씨의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램/부치 구분에 대한 논쟁 자체가 레즈비언 커뮤니티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레즈비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고민해볼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부정적인 태도

처음 레즈비언 커뮤니티 내에서 바지씨와 치마씨를 나누게 되면서 시작되었던 램/부치 구분은 40여 년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레즈비언 인권운동이 활기를 띠면서 1980년대 중반 즈음하여 격렬한 논쟁에 휩싸였다. 레즈비언 인권운동을 하는 모임 내에서는 램/부치 구분을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규정하는 등으로 논쟁의 결과를 마무리 지었고, 다른 대부분의 오프라인 공동체나 온라인 공동체들도 내부에서 램/부치를 구분하는 용어들을 쓰지 말 것을 권유하는 식으로 운영체제를 바꾸기도 했다. 물론 지금에 와서도 램/부치 구분에 대해서는 말이 많은 편이지만 그 당시 여성인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던 시대적 상황, 정치적 레즈비언리즘의 페미니즘 사상가들, 정치적 레즈비언 페미니스트의 활동과 맞물려 정당한 논란거리가 되었었다. 현 커뮤니티에서는 램/부치 구분에 대해서 그 때 만큼 격렬하고 심각하게 이 문제를 논쟁거리로 삼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 문제는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존재하고 있으며 레즈비언 인권운동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여자를 켜서 생경화를 했을 나이면 무지아나도 켜지면 좀 더 좋을 사실 같았잖아. 하지만 일과 이라고 수업을 빼버리면 친구들이 쟁기고 그렇게 커도 알고자하는 몇몇의 애드미언들을 통해서 처음 무지아 켜이라는 증거를 잡았어. 그 애들은 아무렇게나 물어 물어 ‘너 무지아? 켜야?’ 하고 물었어. 그래서 난 달변이 둘 둘 하냐고 물어봐라는 걸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대답시켜줬어. 왜 생경이냐고 하는 자꾸 묻잖아. 그리고 무지/켜냐고 나누어 없으면 일과이 어는 생경 애드미언이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나는 어떻게 이런 일과이로 나누는 것이 처음 생경화를 한 사람이냐 자신의 생경 환경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겐 오히려 어두움이 드는 표현일수도 있다고 봐. 난 여자가 좋아서 애드미언이 되었는데, 여자를 좋아한다는 사실 이외의 자신이 애드미언 할 ‘무엇’이라고 생각할만한 필요가 있을자만 더 궁금도 하고.”

- Name: KAZI

“결국은 사죄에서 만들어 줄고 줄고 하는 카운업 혹은 특별
논리를 그랜드 아라카는 듯 할 느낌이 들어. 정확한 게라 될
모르겠지만 ‘세상에는 남자/여자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이 아니
까’라는 아람에게 ‘사죄의 길이 있다’라는 표현 있잖아. 사람
은 각각 모두 다르니까. 아라는 사람은 두지 그냥 20 펄 그냥
80일수도 있고, 바라는 사람은 두지 그냥 99 펄 그냥 1일수도
있고. 뭐 이렇게 사람마다 사죄에 두지/펄 두수에 약 같하
여 말하면 자기를 표현 하는 일러가 습해지는 듯 할 느낌이
들어.”

- (Name): 세영

- Name: 백영

여기서 보면 펌/부처를 나누는 것이 인간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어떻게 이분법을 시키고 있고 그에 따라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부처와 펌이라는 고정된 틀과 강행화된 성질의 것에 레즈비언 개개인을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스러운 펌, 남성스러운 부처라는 고정관념을 더욱 공고히 하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이러한 관념에서 벗어나면 소위 말하는

‘찰 레즈비언’ 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레스인연 내내서 성직받은 나누는 것은 호아! 이같은수리
로 나누는 것이 아니다! 이같은수리다! 사후세계의 이 사리를
나누어주기때 광동하는 나로서는 그이한 사후세계이고 이같은
수리적인 것이 동양철학에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으로 돌연한
것이 아니다! 생각해.”

“두이얼이 한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걸 그의 키에 있어, 두이얼을 남성이냐 여성 이렇게 성을 이분화시켜 00성이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1단계 문제이고 2단계 문제는 그이름 과연 남성과 여성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야. 이것을 참으로 이해할게 하는 두 가지일에 있다 생각하죠.”

이두어일 이두나도 결코한 이갈애수학에서 다른 것이아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우이. 행의 치에 이한 것도 있다. 능 동적일 사람: 우이 / 수동적일사람: 행이아아아아 '능동적-남성적-남성적일' . '수동적일 것은 여자다' 라는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현문으로 하고는아도 말 그것이 결코이 뛰이감한 이갈애수학과 아무갈적일 것에 이 나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레노미언 인원은 돈을 안지 레노미언 증명해 그 자제가 이사회에서 억압받지 않고 같이 사는 것이 아니다. 아무런 억압으로도 우리 경제 막힌 돈을 이같은주의적인 이 사회를 아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해. 그것이 레노미언 인원은 돈을 억압이다.”

- Name: Logo

- Name: Lego

논의를 좀 더 진전시키 보았을 때 웹/부처 구분은 이성애주의 사회에서 이루어진 남녀구도의 권력구조의 답습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동성애 안에 이성애의 모습이 들어앉아 있는 것이다. 동성애는 오랜 역사 동안 이성애주의 사회에서 숨 쉬지 못하고 살아왔고, 마치 이성애자인척 자신을 감춰야만 했던 동성애자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성애적 사회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너무나 견고하게 굳어져 온 이성애적 사고는 이성애주의적인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 동성애자들에게도 어김없이 자연스럽게 스며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애적 사고 받고는 다른 대안적인 것이나 창조적인 것을 새롭게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았고 동성애자가 만나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살아감에 있어서도 이성애적인 사회구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의 활동가인 Lego 씨의 인터뷰 내용을 보자면, 레즈비언 인권운동의 위상은 단순히 이성애자들과 동성애자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권력구조와 그로 인해 생기는 차별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다분히 이성애적이고 가부장적인 남녀구도의 권력관계를 타파해야 한다는 것에서 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짧은 레즈비언 인권운동가들이 주장하는 바와도 일맥상통하며, 또한 단지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이성애자, 이성애주의사회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향해야 할 바임을 역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인터뷰에서 또 하나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개인 남성성은 무엇이고 여성성은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다음 단원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 '부치' = 남성성, '팽' = 여성성* 에 관한 본질적인 고찰

캠/부치 구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루고 문제제기 되어왔던 이유는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분법적인 사고로의 제한과 이성애주의적 사고와 권력구조의 답습 때문이다. 이성애에서 볼 때 남녀 구조는 물론 현재에 와서는 많이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남녀 차별 구조도 이루어져있다. 이성애 사회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그것이 당연시 되고 있는 것으로 모자라 여성과 여성이 사랑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도 이러한 권력구조가 들어와 있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하지만 한 레즈비언 커뮤니티 내에서는 이런 문제를 조금 다르게 보자는 의견들이 분분하다. 즉

‘레즈비언 커플’ 사이에 성 역할 구분이 존재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서로의 성격차이이나 취향 차이로 인한 구별이지 그것이 남자와 여자의 구별은 아닌 것이다’ 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역할 구분이란 각자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서로의 만족을 위해 보완해주는 것이지 이성에 사회를 모델로 한 여성 역할, 남성 역할의 구분은 아닌 것이다. 본 보고서의 본문 1에서 말한 바와 같이 바지씨와 치마씨로 시작한 역할 구분은 그 초기의 양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부치/웜 에 나타난다. 다시 말해 단순히 그 구분이 남, 여의 역할 구분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처음에 시작은 아직 동성에 개념조차 확실하게 잡혀있지 않은 상대의 레즈비언 인권운동이 비미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바지씨나 치마씨의 역할 구분이 남녀의 역할 그대로를 모델로 하여 모방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점차 동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여성인권운동과 함께 레즈비언 인권운동도 활기를 띠면서 그러한 역할 구분에 대한 논쟁도 지속되어져 왔고, 바지씨/치마씨에 대한 개념도 부치/웜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 의미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정말 초기의 개념대로 남녀의 역할 구분이 부치/웜 그대로 답습이 되어 현재까지 이어졌다면 계속해서 문제제기만이 이루어지고 극심한 논쟁이 되었을 법 한데 아직까지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에도 부치/웜 개념이 유지되고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편가 그 안에서 역할 구분에 대한 의미의 변화가 생겼고, 그 이전과는 다른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본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온종일 긍정적이긴 해요. 난 평생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긍정적이었던 겁니다. 내 소원을 갖게 ‘저는 젊어요’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 않

이런 수가 정말이 뭐라고 들어오면 뭘이라고 대답하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과연 이성성이 강한다고 예쁘잖아? 뭐라고 하시는 소리 이경애가 물어보는 여섯스러운을 가진 뭘은 아니라는 게 중요하지(웃음) 음, 내 애인은 (소리 이경애가 물어보고 있는) 남성적인 모습을 다소 가지고 있는 두지엔데, 나는 소프트 푸치하고 푸치고 있어 자기. (웃음) 어하는 어찌 중요한 것 같았는지로 사람들이 말하는 내 애인이 가지고 있는 남성적인 면을, 난 남성성이야? 보이 않는다는 거야. 왜 그게 남성적인 거야? 내 애인은 어라고, 그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성격이나 특징이던 이경애사회의 남성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해서 그럴 남성적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 아니겠어? 난 그럴 그녀가 가진 이성성이야말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 자아 이경애 말하는 게 맞잖아. 그런 그녀의 성격이나 특징, 개인적인 취향일 뿐이고 남성성, 여성성의 개념이 적용될 필요가 없다고 봐.” - Name: soofy

- Nathan: Leafy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과연 정말 남성성은 무엇이고, 여성성은 무엇인가이다. 굉장히 원론적이고 본질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망설여지기는 하지만 썬/부치 구분에 관하여 이 남성성, 여성성의 문제는 깊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우선 살펴보자면 매우 간단하다. 너무나 뻔하게 머릿속에 상상이 되어지는 모습을 그려보자. 외모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남성은 머리가 짧고, 여성은 남성보다 머리가 대체적으로 길고 풍성하다. 야에 과장되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우 남성다운 사람과 매우 여성스러운 사람을 이야기해 보면 이해가 더 쉬운 것이다. 우람하고 다부진 체격에 언제나 여성 의 옆에서 여성을 보호하고 리드하고, 진취적이고 정복욕이 강하며 말이 적고 무뎉죽하고 감성적이기보다는 냉철하고 이성적인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의 내리고 있는 남성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반대로 남성의 보호를 받으며 연약하고 조용하고 감성적이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모습. 이것은 여성적인 모습이다. 너무 당연하게도 우리는 남성성, 여성성을 말할 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마치 남성성의 표준, 여성성의 표준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남성성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한 여성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다른 여성보다 생활 속에서 많이 재현해내고 있고 표출하고 있을 때, 특히 이것이 레즈비언의 부치에 적용될 때 우리는 왜 그것을 꼭 남성적이라고만 봐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여성성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으며 남성성이 아니라 단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불과할 수 있는 것이다. 혹자는 부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애주의적인 사고에서의 여성성을 제거 위한 하나의 시도으로써의 캐릭터로 보기도 한다.

“나 같은 경우는 약 때문에 의도적으로 팔을 내는 관절 썰기야. 근데 약할 부치아임을 사귀거나 이러면 그 사람과 나랑 같아야 된다고 해야 하나. 내 성격이 좀 광탈하고 저질렀는 건데 사람들이 의도할 다르게 논다고 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애인을 사귀면 사람들이 마치 내가 부치인 것 같다고 물어(내 애인) 나같이 하곤 하니까요. 그래서 내 애인도 내가 애인 같고 적극적이고 애가 많아서. 이렇게 내 경우만 봐도 한 개인에게 부치의 성향도 있고 썰기 성향도 같이 존재하고 있는 건데, 이걸 남성성과 여성성이 함께 있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이렇게 사회에서 말하는 남성성이 여성성에도 준거를 준다고 있는데 그것을 남성성의 표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개인의 특성이고 성격일 뿐이라고 할 수 있잖아. 또 그냥 나름대로 여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요.”

- Nami Gang

또한 펌/부치가 이성애 관계의 남녀를 모방한다면 펌 커플, 부치 커플, 그리고 전현후 등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분법적 구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그와 함께 펌과 부치 커플만이 아니라 펌과 펌, 부치와 부치로 이루어진 커플이 생겨나고 부치의 성향을 지닌 레즈비언이 펌을 사귀었다가 또 부치를 사귀었다가 하기도 하고, 펌 성향을 지닌 레즈비언이 성관계를 할 때 부치의 역할을 한 다는 것, 펌/부치의 구분을 역할놀이로 생각하여 즐기는 커플, 혹은 펌/부치의 구분과 전혀 관계없이 사랑하는 등의 다양한 모습의 커플이 생겨나고 있다.

여기까지의 펌/부치 구분에 대한 다양한 의미변화와 시도들을 보면서 우리는 펌/부치가 남녀 역할 구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새로운 관계이며 나아가 그 관계를 재 정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아야 한다.

4. 부치에 대한 재 정의와 재인식

- 여성의 중심에서 '여사' 부치를 위치다.

(1) 여성성이 무엇이길래.

부치에 대한 재정의의를 위해 앞서 간단하게 언급해 보았던 여성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자. 여성성은 경협적 범주, 규범적 범주 그리고 문화적 범주에서 정의될 수 있다. 경협적 정의는 말 그대로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여성성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인데 이를테면 “여자는 수동적이어야”, “여자는

이기적이어야”와 같은 정의가 이에 해당한다. 경협적 범주의 정의의 경우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일종의 ‘의견’ 일 뿐이지만 규범적 범주의 정의는 반대로 정의 자체가 사람들의 인식에 침투하게 된다. 앞서 마지막/처마에서 가 탄생한 시대적 배경에 자리하고 있던 ‘여자는 조심해야 한다, 순결해야 한다, 조용히 말해야 한다’ 등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범주에서의 여성성은 ‘여성’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격들을 문화적 맥락 안에서 정의하는 것이다. 문학작품이나 미술작품 등에서 여성성의 상징으로 쓰이는 다양한 은유나 알레고리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여성성의 경우 어떠한 범주를 통해 정의의 내리느냐에 따라, 그리고 그러한 범주를 규정짓는 사회가 어떠한가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범주가 상호작용하여 여성성을 정의내리기 때문에 이것이 여성성이다. 라고 단정지어 여성성을 규정화 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는 남성성 또한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들은 이처럼 여성성이나 남성성이 정의되는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이미 규정되어 있는 여성성, 남성성이라는 이분법적인 성별 구분의 잣대로 많은 것들을 논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레즈비언이나 트랜스젠더와 같은 성소수자가 아니더라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남성성 아니면 여성성이라는 획일적인 구분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폭력적이다. 이는 곧 이러한 이분법적 성 구분방식으로 레즈비언을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은 부치에게 ‘남성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여성성이 아니면 남성성밖에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서 부치를 남성성의 영역에서 바라보는 것도 일면 이해할 수는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성, 남성성이라는 구분 자체가 갖는 문제점과 모호성을 고려한다면 부치는 여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남성적인 존재가 아닌, 그냥 여성적이지 않은 그 자체로 정의되어야 한다.

2) 남성성을 가진 부치=폭력적, 위협적 존재인가.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부치에 대한 정의를 조금 달라 한다면 부치의 존재(부치의 존재는 곧 부치/펌의 구분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맞물려 있다.)가 이성애의 남녀관계 권력구조를 답습하는 결과물이라는 논의에 대해 새롭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부치가 남성성을 가진 존재, 라고 정의될 때 이 존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게 되는 지점은 여성들이 가부장적 사회



내에서 경험해 온 남성의 여성에 대한 억압성, 폭력성을 기억하고 있고 그것이 남성이라는 sex가 가지는 권력체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있다. 하지만 남성이 여성과 대립구조를 만들고 그 안에서 권력구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가진 것이 남성이라는 sex때문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해주는 가부장적 질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부치를 남성성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거니와, 설사 부치가 남성성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될 수 있는 존재라 하더라도 남성성을 권력의 주체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가부장적 사회가 아닌 레즈비언 커뮤니티 안에서는 그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I am butch!

앞서 논의된 많은 것들을 통해 우리는 이 시점에서 부치의 존재가 다시 정의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부치는 ‘대부분’ 외모적으로는 보이시하며 성격이나 행동은 지금의 사회가 소위 ‘여성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점들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여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남성적이라고 이야기해 왔고 때문에 이는 레즈비언 커뮤니티 내부의 모순을 낳는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하지만 레즈비언이 남성, 여성의 이분법적 성구별로는 설명될 수 없거나 이해될 수 없는 존재이듯 레즈비언 내의 부치 또한 남성성, 여성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 존재 자체로 하나의 성향을 가지는 것이기에 남성/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의 틀에 맞춰 그들을 규정짓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부치는 여자이지만 여성스럽지 않은, 남성적이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존재이다. 이는 곧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성에 대한 거부감을 통해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에 대한 규범적 정의를 깨뜨리려는 시도와 인식의 전환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더불어 부치/펌의 구분이 이성애 중심의 사회에 균열을 일으키는 기계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III. 마치며

부치/펌의 구분에 대한 논란은 앞서 이야기했듯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행되어 오고 있는 레즈비언 커뮤니티 내의 커다란 사안이다. 우리는 앞서 논의한 바를 통해 부치/펌의 구분이 논란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부치를 남성성의 이름으로 규정하는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부치/펌의 구분이 남녀 권력관계의

답습으로 일하게 되고 많은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들에게 거부감을 주었던 것이다. 하지만 남성성 혹은 여성성이라는 단 두 가지의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이들을 정의내리는 한 사회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의해 부치는 상당부분 희생당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때문에 더 이상 부치는 남성성으로 표현될 이유가 없으며 부치에 대한 이러한 재인식이 이루어질 때에 부치/펌의 구분은 이분법적 성별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이 사회를 통렬하게 비판할 수 있는 전복 기계로서의 역할을 가지는 것으로 새롭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n명의 사람이 n개의 성을 가질 수 있는 사회로의 첫 걸음은 당연하게 여겼던 이분법적 성별 구분에 대한 비판과 이분화 된 사회를 균열시키려는 부치들의 움직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조심스레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김태호 저, **아름다운 남자**.
- 『이와에스비언인권운동모임(인애스비) 아름다운 남자』 첫 번째 레즈비언 문화제 자료집: **“너 여자야 이걸 왜 하냐?”**, 2003
2. 한국여성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기이이이. **『나는 동성애자다. 나는 여성이다』**, 2003.

참고사이트

<http://www.queer.net>
 연아름-여성주의로 숨 쉬는 마음
<http://lgnet.co.kr>
 TGN&I



레즈패스 두번째

벗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달았어요.
벗들을 벗이라 부르기 전의 글에도 답변은
가까운 글을 선택했어요.
지난 화연과 비밀화원에서 작성일이 비교적 최근에
가장 흔한 오해와 궁금증들 여섯가지를 추렸어요.
혹은 본벗 주위에서 마주쳤던
레즈비언으로 살며 본벗이 직접.

변날벗 릴



하나.

보이쉬하다고 레즈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 이해 안 가는 것은 본좌편이요?(39) 2007-05-24 794

가끔 화연에 L행들 얘기를 올라올 때면 꼭 한번씩은 "그럼 학교에서 보이쉬하게 (=남자처럼) 하고 다니는
행들은 다 레즈라 보일 뉘오?"란 질문이 나오는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밑에 댓글들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느니 어디까지나 패션의 일환이라느니 심할 경우 그 질문을 한 행의 무지를 타박하는 말도 나오던데
말이오...

근데 본좌는 정녕 궁금해서 묻소.

레즈가 아니라면, 자기가 성적으로 여자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걸 자각한다면, 도대체 남자처럼 꾸밀 이
유는 어디 있다는 것이요?

패션이란 것도 본좌로서는 도통 이해가 가질 않소. 이틀테면 남행이 '여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여자같은 옷
을 입으면 사람들은 백이면 백 그를 보며 "어머 게이인가봐"라 생각하지 않소? 무엇보다 성염색체가 XY인
사람이, 여성스러움을 추구한다는 시점에서 그는 이미 동성애자 혹은 트랜스젠더인 것이 맞는 것 아니요?
그런데 어째서 여자에게만 그 논리는 통하지 않는단 말이요? 남자가 여자처럼 하고 다니는 것은 물론없이
그가 게이이기 때문일 거지만, 여자가 남자처럼 하고 다니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라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소.

혹여 오해가 있을까봐 덧붙이오만 본좌도 엄연한 L행이오.

다만 화연에서 저 얘기가 나올 때마다 영 이해가 되질 않기에 글을 써보는 것이오.

문제되면 핑하겠소.

아 쟁피레-- (2007-05-25)

은행 너무 무식하다. --: (2007-05-25)

코코 샤넬 이전엔 바지를 입은 여성들이 없지 않았었소? 그리고 외국행들은 우리나라 와서 여자들이 그렇게
'여성스러움'에 집착한다는 거에 깜짝 놀란다더요. 겉모습이 뭐가 중요하요. (2007-05-25)

취향이 왜그리나고 나무라면 어쩔라는 거요? (2007-05-24)

행 바보요? --: (2007-05-24)

남자가 성격이 좀 여성스럽다고 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지 행...근데 현실적으로 여성스러운 남자는 완전
지탄의 대상이 되고 또 그들도 '남자는 남자다워야한다'는 가치관에 얽매어 성장하니 게이가 아닌 한 여성스러운 남
자는 거의 없는게 아닐까? 근데 여자는 상대적으로 억압을 덜 받으니까 보이쉬하게 하고 다니는 이성애자들도 존재하
는 것이고... (2007-05-24)

보이쉬한게 멋지다고 생각하는게 뭐가 이상하요? 그렇게 하고 싶은게 뭐가 이상해? (2007-05-24)

도대체 여성스럽고 남성스럽고의 기준이 뭐요? 나는 자기 가슴 살아서 압박붕대로 뽕뽕 묶고 땀기는 거만 빼면, 그
사람이 뭘 입든 상관없다고 보오. 보이쉬한게 사람들 동성에서 남자답다고 생각하니까 보이쉬인거져. 그사람한테는
그냥 옷이오 옷 (2007-05-24)

행 글이 뭔가 이상하요: (2007-05-24)

캐주얼과 이빨이 말하는 보이시엔 차이가 있는듯 하오만: 그냥 캐주얼하게 입는행과 정말 보이쉬하게 입는행들은 또
하게 차이가 나잖소 이빨은 그 얘길 하는거 같은데.. (2007-05-24)

음.. 행의 논리를 뒤집어서 보이쉬한여자가 레즈라고 생각하는게 틀린것처럼, 여자같이 꾸는 남자가 게이라고 생각하
는게 틀렸다고 하는게 맞는것같소만 --: 22222 L로서 일반적인 성정체성에 대항한다 할 수 있는 행이, 패션에
대한 남자다움, 여자다움이라는 시각엔 순응하시는구라... (2007-05-24)



난 쓴텐 얘기 공감되는텐- (2007-05-24)

한번 해보시오 진짜 편하도요 긴머리 단발로만 할라도 얼마나 편하고 평소 나던 짜증이 반으로 줄어든다오 ㅎㅎ (2007-05-24)

그냥 그런 취향인거요. (2007-05-24)

섹시한컨셉을 좋아하는것처럼 캐주얼한 컨셉을 좋아할수도있고, 졸업앨범컨셉을 좋아할수도 있는거 아니오... -_- (2007-05-24)

난 이글 공감. 진짜로 자기가 여성의 정체성이 있다면 왜 남자같이 하고 다니?? 백라이트 이런거 말고 진짜 남자같은 스타일있잖아. 구분안가게 하고다니는. (2007-05-24)

보이쉬하게 다니는데.. 레즈아니오... -_- 취향이이지라 (2007-05-24)

찬가지 아니오? 뭔가 이해의 여지가 있어야 여기서 이러는 의미가 있지. 뽕은 뽕이 희기적이고 딱딱 나뉘는 논리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그런건 없소, 여쭙면 그에 상응하는 논리로 설득당하기보다 "남자같이 꾸미는 건 레즈라고 봐달라"라는 주장을 설득하고 싶은건지도 모르겠지만.. (2007-05-24)

그건 남자들에게 여자같다는 말은 여자에게 보이쉬하다는 말보다 굴욕적으로 느끼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 아닌 까222 다시말하면, 여자에게는 자신의 취향을 사회적 눈치를 덜보고 드러낼 자유가 약간 더 있다는 소리지라. 뽕, 요즘은 남자가 좀 예쁘게 꾸미고 뽕이라고는 안하는 분위기지만, 그리고 애초 그 논리를 이해못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리플이 달려도 마 (2007-05-24)

음.. 뽕의 논리를 뒤집어서 보이쉬한여자가 레즈라고 생각하는게 틀린것처럼, 여자같이 꾸는 남자가 게이라고 생각하는게 틀렸다고 하는게 맞는것같소만 -_- (2007-05-24)

16) 내가 16뽕 맞소?ㅋ 여튼 첫인상 보고 여자같은 남자를 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요. 이권이 없는게 아니라 그냥 굳이 여기서 댓글을 달지 않는것 뿐이오... 같은 상황인데 레즈같은 반박 혹은 이권 리플이 달리는건 여기에는 '게이'는 존재하지 않고, '레즈'는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보오.. (2007-05-24)

* 아니이..... 그러니까 본좌가 지금 얘기하는건 '똑같이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건데' 왜 '첫인상만 보고' 여자같은 남자를 게이로 생각하는데는 그다지 이견들을 보이지 않으면서 남자들은 여자를 레즈라 생각하는데는 심하게 반박하느냐고 그제 궁금하다니까요... 16뽕 본좌 지금 누가 누굴 사랑하느냐의 얘기는 화제에 꺼내지도 않았소orz (2007-05-24)

그냥 취향이이지..... 보이쉬한 자를 좋아하면 레즈라는 건 말이 안되는 듯... (2007-05-24)

여자 같은 남자가 게이라고 누가 그래???????????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야 게이이지..... 남자가 처마를 입어도 여자를 좋아하면 게이가 아니야..... (2007-05-24)

솔직히 공감하오 (2007-05-24)

*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취향'이라 하느냐 말이오... 본좌는 애초 그 논리를 이해 못한다고 글에 분명히 밝힌 바 있소만, 왜 여자같은 남자=게이 <-의 생각은 수긍하면서 남자같은 여자=레즈 <-이건 부정하느냐는 걸 묻고 싶은 거요 나는. (2007-05-24)

이건 확실히 취향이오... 본좌 친구는 보이쉬한 후파시를 추구하되, 연애도 그러한 후파시의 남자랑 하더오...ㅋㅋ (2007-05-24)

아...그건 여자가 남자처럼 해도 여전히 이런 매력에 있으면서 중심적인 매력이 있지만 남자가 여자도 꾸미는 것은 너무 확 티가 나잖소. (2007-05-24)

그냥 취향 아니오? 그럼 뽕은 여자인데도 보이쉬하게 하고 다니는 뽕에게 레즈라는 잣대를 똑같이 들이대야 한다고 생각하는거오? 본좌 열혈이오만 뽕의 논리를 좀 이해할 수 있구려... (2007-05-24)

그건 남자들에게 여자같다는 말은 여자에게 보이쉬하다는 말보다 굴욕적으로 느끼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 아닌까 (2007-05-24)

이이)자신의 여성적인 면을 부정하면서 보이쉬한 것을 택했을 결국 자신 안의 동성애자스러운(?) 미안하오 마땅히 대용할만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구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었다 말이오? (2007-05-24)



아는 사람 중에 머리 풀들이고 엄청 보이쉬하게 다니다가 졸업하고 공공기관에서 일하면서 완전 여성스러워진 뽕도 봤소 (2007-05-24)

백라이트이 어디 보이쉬해 그렇게 귀엽고 여자다운 뽕이 어딴소 ㅋㅋㅋ (2007-05-24)

* 그러니까 본좌가 모르겠다는 부분은 왜 '취향'으로 보이쉬하게 하고 다닐 필요가 있느냐 말이오... 뽕이 여성스럽게 꾸민 단박에 게이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왜 여자에게는 같은 사고의 잣대를 쓰지 않느냐 말이오... (2007-05-24)

그냥뽕...보이쉬하게 하고 다니는건 그냥 취향아닌가? 나도 한때는 보이쉬하게 하고 다니면 L뽕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걸 알았음.. (2007-05-24)

백라이트처럼 보이쉬한 걸 좋아하는 뽕들이 있어서 그런가? (2007-05-24)

근데 보이쉬한거 좋아하는 뽕들도 있소 (2007-05-24)

게이 커뮤니티에서도 인정하데.. 게이들 중에 여성스러운 애들이 많은건 사실이래. 레즈는 모르겠어 나도 -_-

마이 치어서 그런지 내 주변 레즈중엔 공격적인 애들이 좀 많더라 (2007-05-24)

남친이랑 얘기하다 나온전데 여자취미가 있는것=동성애상황 이렇게 공식화하면 안된다오. 그런것과 비슷한 식 아니겠소? 자기 외모를 이상처럼 꾸미고 싶은것과 동성애 취향은 좀 별개? 겹치는 부분 있을수도 있지만...

(2007-05-24)

본밧이 대답해드리지요:)

이것만들 '보이쉬한 외관을 하고 싶지만 레즈이단기 나일 것들'을 외롭게 하고, '이러한 것들을 가진 것들의 눈에는 단애 보이 않는 레즈이단들'을 고독을 지게 했으며, '보이쉬한 여경은 레즈이단이라는 길안파의 조를 밟고 있는 스토에이트 것들'을 슬기 아르게 달드는 에 그나은 공연을 한 공금음도 없을 자애로.

그걸 대대 두것이 눈세갈아로.

먼저 레즈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을 좀 읽고 넘어갈 필요성을 느낍니다. 1960년대 후반 게이시들에 부여된 광적으로 전통적인 경역같이 되파하여, 1965년에는 처음으로 여경은 사이 관대함이 시아 관대함을 능가했다고 하는군요. 웃을 입는 것이 사피크 고드의 육체가 가진 사피크의 수단이 되었던 것이고, 1970-1976년 사이애 대표적 유닛백스 되돌린 장악기의 열안양은 두려 4배를 수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서 여경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사피크로써 관대하는 관습에서 벗어났고, 어떤 부분에서는 사피크로써 수려했던 사능으로 요원의 육체(이아나 하여졌던 로고로 사피크 트레드의 글자작업)을 그들 어 갔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적인 경역에서 활동하여 사피크의 유닛에 등장하면 남경들의 레즈라는 편파가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여경들을 대표하여도 노력했던 예술가들도 남경들에게는 큰 수치를 지우지 않았습다. 그리고 그것의 앞면처럼 사피크 '남경'들과 남경적 에드스를 중시하는 풍조 속에서 경악하고 있는 애무들의 스토에이트 남경들이 사피크를 읽고 임스익을 사피크 사피크 두드려서 사피크를 사피크하는 시간이 늘 갔을 것 같네요. 그러나 요즘 남경과 여경의 경계 사피크 모호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경에 반갑아. 화강을 프랜즈에 관입을 갖고, 사피크를 들이치는 모든 남경들을 게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레즈를 같다는 놀림을 말할 수는 있겠으나...이 또한 남경한 경악의 앞면이며 오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보이쉬한 외관을 가진 여경들의 사피크로 돌아가서 경역을 사피크하면 물론 사피크로 나오는 눈세라는 법이요. 레즈이단의 경역과 사피크 인드를 중시해 사피크에 관습과 전 남경의 외관과 행동을 중대 대는 레즈이단들이 있다는 걸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피크 애무들의 경우 그것은 취향이이래 해안입니다. 사피크 여경임을 주장하는 것도 사피크. 레즈이단임을 드러내는 것도 사피크. 사피크를 읽고 여경을 같게 하는 것으로 남경과 사피크를 같게하면 사피크는 이미 그대 앞에 사피크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보이쉬한 외관을 할 것들 모호-그 것이 1.이것이 스토에이트이단 같아 "너 남자냐?" 혹은 "대대 남자냐. 여자냐?" 사피크 것들을 얻는 것은 둘이 두애하고 동남의관 행동이라는 것을 같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질문이 건지지는 같잖은 본밧이 사피크가 사피크아도 사피크로 불려야지 딱이 없어요. 둘이 사피크를 들어 설명하면 사피크를 원이 드러낼 것들 "웃을 입는 자. 웃는 자?"

하는 것들을 얻는 것과 사피크 사피크 사피크 사피크.



- New (H) (P) 3) 아래 비오는 리플단 뱃들은 다 레즈비언인가요? 당했대 당했대 당했대 이뭇 상당히 기분 나쁘오.
내가 뭘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거나 하고 리플다는 거요?
- New (H) (P) 3뱃 말이 좀 심하시네요.
- New (H) (P) 와, 당했대, 당했대, 당했대.
- New (H) (P) 2) 3뱃,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게 왜 민폐요? 글쓴 뱃이 무슨 짓을 한 것도 아니고 --
- New (H) (P) 민폐끼쳐서 미안하와다
- New (H) (P) 3) 내가 당해봐서 그러오 한뼘도 아니오.
- New (H) (P) 3뱃, 본인도 아닌데 민폐다 뭐다 하는 거 상당히 실례오
- New (H) (P) 지나가던 노말행)그거 민폐요...하지마시오...
- New (H) (P) 일단 친해지세요~!
- New (H) (P) 열심히 작업 건다, 커밍아웃은 하지말고..

본문이 대답해드리지요:)

여도 12명의 키보드에 동의하는 약 3명의 키보드에 키들이 적습니다. 개인의 경험을 일반화하고 재도, 이를 다해 살아간 스프레드잇과 행복한 인생을 사는 에이전트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우리 생애에 흔한 것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로 들으실다면, 글썽, 이 점에 대해서는 에이전트 드라마 The 1 word 1 is의 에피소드 2에서 개인이 그 대역적인 이름으로 돌아왔을 때로 대개 드는 게 좋겠네요. 그녀는 “섹슈얼리티는 유동적인 것, 내가 게이인, 스프레드잇인, 하이브리드인, 이럴 것, 그 스텝을 아라. (sexuality is fluid, whether you're gay or you're straight or you're bisexual, you just go with the flow)”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고 싶은 말은,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그대 앞에선 일이 아니며, 열매경에 들어서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 자에게요. 3월 말음대로 어떤 일을 알아냈는지는 모릅니다만, 첫날 일이 스드웨이트의 새 책대로 온재하는 스드일과 유사한 열매가 아니었다 일각에 봅니다. 그러나 모든 날경들이 이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렇게 행동하긴 않은 것처럼, 모든 레지던들이 마음에 아꼈다고 해서 그런 행동을 보이진 않아요. 우리도 좋아하는 사람의 특수처럼 쓸어도 마음이 열리고, 눈빛에 마음이 흐릿하며, 어디에 앉도록 쓰러질 수 없이 아슬아슬한 열매 화살을 날렸을 고칠지도 아는 말도.

그러니 늘 쓰신 벗님, 어루 굿하게 다스려주시고, 어루 잘하게 드러내주시고 아시고 기뻐서임 조심스럽게, 대신 마음을 사해 벗의
수감으로 말들이 취할 노력을 기뻐주시는 게 어떻나 합니까. 거닐어주는 이기광조라고 생각하오... 송아이는 사람 같잖어, 그
사람을 위해 현자를 해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 열리는 게 사람 아니었나오. 스무에잇것들에게도, 세스에잇것들에게도 말아줄

다섯.

3475418 기독교의 레즈비언에 대한 입장은 어때? (L PASS) [IP확인] 2007-07-30 92

아.. 왜 이걸 묻냐하면,

난 기독교인이고 바이인데, 얼마 전까지 성경공부를 했었어.
지도해주신 분이 이해심이 넓은 분이어서 말이 참 잘 통했는데
창세기를 배울 때.. 본인은 정말 동성애자가 이해가 안 간다며 음양의 조화 불러볼라 하시더라고.

평소 그분 앞에서는 암전한 이미지였지만 --::
그날만큼은 못 참고 설전을 벌이고, 결국 성경공부를 그만두었어..
사실은 제가 여자를 사귀고 있는데요, 라고 할 순 없었으니까 !!

주변에 독실한 기독교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커밍아웃 했을 때 다들 나름대로 이해해주는 분위기여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곤 상상을 못했었거든.

그래서 말인데.. 기독교의 엘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궁금해~

- New (H) (P) 부정적22222222
- New (H) (P) 창세기에서는 남자들이 어떤 집에 묵은 남자들한테 막 덤피는데 집주인이 차라리 자기 여식을 준다
고 했던가... 예전에 충격 받았던 기억이... 그건 뭐야??
- New (H) (P) * 음 그런데 성경에 어떻게 나와있는지 궁금해서.. ^^: 그것도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르려나?
- New (H) (P) 이어)기독교인이라도 모두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지는 않겠지. 난 교회 다니지만 썬달라고 생각해
- New (H) (P) 성경적으로 보면 긍정적일 수 없겠지만 이런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정말
- New (H) (P) 부정적이지 아무래도.. 근데 좀 개혁신인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보기도 해. 주님은 아파하는 소수를
보듬어주시기를 원하시잖아. 나는 기독교는 아니고 바이^^
- New (H) (P) 기독교에서는 거의 죄악시하는 길도 알고 있어. 나도 자שה는 모르겠는데 성경에 안 된다고 써여있대.
- New (H) (P) 반감 없어요^^
- New (H) (P) 솔직히 사람마다 달라:
- New (H) (P) 부정적

본넷이 대답해드리지요:)

일단 큰 것은 돌이킬 수 없어 남의 일방으로 75% 정도의 돌이킬 수 있는 이득에 대한 이익이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동맹자로서 이득에서 말하는 동맹비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었지요.

제가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 알게 된 기독교에 대한 알현의 시작에 따르면, 예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사랑, 용서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용서를 사셨다고 합니다. 또한 예수는 요아 웨슬리라는 거대한 찬양 전도의 이해 아래 자기의 권위에 직면한 증음 제의 삶을 주창하시고자 했으며, 또한 그의 사도님 아래 사죄적으로도 이방인, 종교적으로도 최면 취급을 받던 위치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입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의 사도님과 같은 이 같은 사도님 오늘날의 현실한 사도들 이신 몇몇 기독교인들과 그들에 의해 고를 받는 복음사자의 관점으로 대하게 씁시다. 사도님의 복음에 대해 최면 취급 같은 소수와 약자의 관에 있던 예수는 과연 어떤 관에 서서 누구를 용서하셨습니까?

나일 연못에 발견된 증빙에 대한 출판들이 오직 종교적 믿음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증빙에 이란의 근거가 되는 이러한 증거의 대표적 구절들을 재해석하는 것만으로도 명백해집니다. 그렇다면 이국교도들이 증빙재판에 대해 갖는 걱정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이에 대해 미국 학자나 온 보스턴의 「이국교와 사회적 관습과 증빙」에서 이러한 의문을 다루자면, 황제 조카가 여서 있던 증빙재판에 대한 축첩은 관습에 충실부를 익는 것은 13세기 때 들어 나타나기 시작한 권의 강과, 실용하는 증빙일련과, 정인과 제도의 확립과 같고 합니다. 정치적인 통치에 대해 온 조카와 말대라는 증빙되어야 했으며, 여가에는 이교도, 정갈 사나운, 성적 일탈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1250년부터 1300년 사이에 증빙에 행하는 증빙의 거의 대부분 일련에서, 관습이 확립한 것에서 증빙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전체의 성격과 증빙재판의 수많은 사실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이치일 사건들의 현적을 이치고, 그 현적을 뒤엎을 수 있는 '다른 것' 들을 증빙의 이음으로 파악하여 말하자면 해결했던 황제 이후의 '다른 것'을 이음으로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일입니다.

아직도 기독교인 대부분이 동성애를 죄악이라 여겨서,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강행되는 동성애 혐오 범죄 또한 일각만 수긍합니다. 그러나 이제 말하자면 기독교 내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 입장 또한 존재하고,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로는 이미 기독교가 동성애를 인정해야 할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영역과 여러 길 양자의 각각의 사회적, 문화적 상황은 결코 현재 사회와 같을 수 없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종교성과 이성을 겨룬 전란한 사상의 관습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인간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과 전일 사이 이해를 할 부분이기도 하고, 바로 그 '사랑'을 통해 기독교의 가르침을 그날날의 생활에 이성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공동적 진리에 맞닿은 종교적의 양식'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사회에서, 그리고



한 걸음의 걸음 속에서 등장재를 종교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의 의미는 결코 이들 각애하거나 암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질문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148 이런 글 쓰면 그 사람들이 싫어할지도 모르지만...(7) 2007-04-13 91

나 변날 사람들 한번 보고 싶어--

전짜 용기있는 것 같아--

나는 만약에 내가 르즈라면 아무리 내가 르즈라도

거기에 가입해서 막 활동하고.. 못 그럴 것 같거든

내가 거기 있는 거 알면 사람들이 다 그거라고 눈치챌테니까

난 내가 르즈라면 남들이 나 르즈인거 아는 게 무서울 것 같아

전짜 그런 생각 하니까 변날 사람들 완전 용기 있는 것 같더라

조금 존경스러울 정도까지--

주위에 친구가 변날인 사람 있어?

- *) 허-- 그냥 레즈비언이라고 해도 되는 거야.....요?ㅋㅋㅋ 저 학번이라--T..ㅋㅋㅋㅋ (2007-04-13)
변날인 친구가 있어도 숨기지 않을까?? 그런데 어떻게 숨기는지는 참: (2007-04-13) 333 (2007-04-13)
- *) 그 사람들이 사귀면.. 썩썩네?-- 내가 절대로 못한 나의 캠퍼스 로망ㅋㅋㅋ (2007-04-13)
싫어하진 않을 것 같소만..근데 글쓴이 혹시 저 학번 이시요? 왜 레즈비언을 구제 르즈라고 쓰는지.. (2007-04-13)
222 (2007-04-13)
근데 거기서 활동을 한다면.. 활동하면서 르즈인 화연들끼리 만나서 친목도모도 하고 사귀기도 하고 그러는 걸까? 음.. (2007-04-13)

본밋이 대답해드리지요:)

네, 친구가 변날인 변날인 여기 있습니다.

이런 레즈비언에 관련된 글들은 아니지만, 이 글을 올린 것과 지금까지 읽어주신 것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우리의 활동과 흥미를 자극하고 자극하여 마무리를 짓고자 선택해 보았어요.

좋은 본 밋이 지금이 개인적인 절제나 포함된 이 말들로 쓰여졌듯이 글들이 말들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하
이 글고, 레즈비언 것들을 둘러싼 오해나 논쟁을 사야시킬 거라고도 생각하. 중요한 것은 이어서 지금 이 글을 읽으며, 이해하
이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것들은 눈과에게 알려주고, 우리를 응원해 주고 계시는 것과 마음이 있는걸요.

자, 예쁜 화연벗들. 오늘도 화연에서 만나요♡



가족

언제나 하고 싶은 이야기지만, 절대 전할 수 없는 이야기
말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부터 나오는 그 이름.
변태소년들의 가족이야기. 시작합니다.

참여작: dyke, sea, 베이베, Kaze, 수라, 막막, 야겐, 릴, 호섭

dyke :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가족과, 앞으로 생각할 가족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야. 레즈비언으로 살아
가면서 가족에 대해 드는 생각이 있을 거야.

Sea: 나는 커밍아웃 하려한다. 이런 생각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베이베: 나는 커밍아웃 절대 안 할 건데. 사실 엄마들 눈치가 진짜 빠르다고.

dyke : 여기서 부모님이 모르시는 나는 집에서 아웃팅을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다?

(야겐, 수라, 베이베, 호섭 손)

Kaze : 그럼 집에서 다 아는 사람인가? 나에게는?

dyke : 알긴 알지. 전래가 있어. 나 같은 경우는 부모님한테 아웃팅을 당한 경험없이 있고 완전 커밍아웃 강요를
받아서 그 때 커밍아웃을 했어. 그 때는 동성애자고 여자를 좋아하고, 지금은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해..?
이렇게. 하지만 부모님들은 그냥, 지금은 뭐. 애. 애를 사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내 자식이 완전한
동성애자일거라고는 믿지 않는 것 같아.

베이베: 나. 나. 아직. 아니까, 그런 것도 약간 있는 것 같아.

dyke : 어릴 때 한 때 하는 그런 짓이다.

Kaze : 맞아. 나 같은 경우는 집에서 아무도 몰랐어. 그런데 내가 외국에 있는 동안 이모랑 되게 친해서 커밍
아웃을 했지. 이모가 외국에 살면서 동성애자 친구들도 많았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듯. 얘기를 해서
거든. 그리고 '네가 레즈비언으로 살면 평생을 마이너로 살아야하는 거다. 나는 사랑하는 조카가 그
렇게 힘든 길을 걸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나를 격려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말이야. 근데 내가
국제 돌. 회사서 반달 신임모집 자보를 붙이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한테서 전화가 온 거야. 너 지금 빨리
돌.이라고, 엄마 지금 죽는다고.

dyke : 우리 그 때 기도 했어. 정말 그것만 아니길. 정말 담배 때문에 걸린 것 아닐까.

Kaze : 엄마가 왜 그러는지 얘기를 안 해서 사사나무 떨듯이 돌.였는데 집안 분위기는 완전 다르고 아무
말도 안하는 거야. 진짜 소만가지 생각을 해서 세상에 신이 있다면 나를 좀 도와줘. 여기서 좀 꺼내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엄마.아빠가 너 계속 학교 다니고 싶냐고 묻는 거야. (울음) 왜 그러라고 했는지
(릴 앞에서 울음) 변날이 뭐냐는 거야.

dyke, Sea : 변날은 변태소년 하들을 낳는다고.

Kaze : 그냥 가만히 살아있는데 엄마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너 OO(야겐)랑 무슨 관계냐고. 이모가 내가
외국에 있을 때 얘기를 한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얼마 안 가서 바로.

dyke : 아웃팅이요.



Kaze : 나는 말했던 사람에게 아웃팅을 당한거지. 메란다 문 열고 같이 뛰어들어서 죽자고 그랬어 엄마가. 근데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야.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다고, 다른 선택이 없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당신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는 거야.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냐고, 우리가 너희에 뭘 잘못 보았었니? 하고.

Duke : 아.. 어쩔 이렇게 부모님들의 멘트는 다 똑같은가.

Sea : 다 똑같아!!

Kaze : 계속 울다 잠는데 다음 날부터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야. 항구주이 생겼어. 그런 식으로 일을 동안 말을 못하고 살았어. 나는 아직도 엄마랑 눈 맞추고 말을 못해. 엄마가 이해해 줄 거란 생각은 안했지만 그래도 최소한 준비가 되었을 때 얘기하고 싶었어. 근데 너무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모든 것들이 정말 후회막급이었지.

Duke :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차라리 내가 고아였으면 하는 생각도 많이 했어. 솔직히 친구가 이해하고 못하고는 상관없어. 근데 가족은 그게 아니잖아. 이해를 하든 못하든 평생 같이 살고 일해 있는 건데, 그런 관계가 너무 증오스럽고 짜증이 날지. 물론 좋지. 행복하고, 이런 거 다 떠나서 내가 레즈비언이니까 가족이라는 것 자체가 고통이야.

Kaze : 릴, 그만 울고 얘기해 봐. 릴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릴 : 엄마가 제가 레즈비언인 걸 아신 날이 엄마 생신이셨어요. 저는 처음으로 근거리 인애를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제 행동이 이상했겠죠. 엄마가 그날따라 전화 목소리가 다른 거였고, 제가 기분이 없어서 생신 못 챙겼드려서 그런가 했는데.. (다시 울음)

야면 : 나는 정말 저만아웃은 죽어도 안하겠다고 생각하고 부모님한테만큼은 끝까지 돌리고 싶지 않는데, 한편 솔직 떠벌였거든.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것이지 알고 싶다는데 한창 그런 거 다들 생각하니까 그걸 보고 싶었어. 엄마랑.

Sea : 이만.. 이만 보드 이런거 (웃음)

야면 : 저런 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내가 물으벌였거든. 근데 되게 생각하기도 쉽고 귀찮다는 식으로 몰라.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어. 그러면서 말을 아예 안 하잖아.

베니베 : 난 이십대 중반쯤 됐잖아. 의심할 하는데 엄마가 나한테 확인을 할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해결책이 결혼이야. 결혼 언제할 거냐. 애기가 나오는 거야. 일 년 전까지는 내가 독신으로 살 거다. 이러면 그래라 했는데. 이제 아니야. 무조건 결혼해야 된단.

Sea : 아시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면.

Kaze : 그 단어를 남아서 내뱉기가 무서운 거지.

베니베 : 그게 안 되니까 돌려서 말하는 거야.

호섭 : 자기 딸이 마이너로 사는 거랑, 자신을 보는 친지 및 타인들의 시선..

박하 : 그리고 부모님은 당신들이 잘못해서 자식이 그렇게 된 게 아닐까 하는 피해감이 들기도 하시잖아요.

Duke : 부모님이 내가 너희에 뭘 잘못했길래 내가 레즈비언이 된 거니. 이런 말을 할 때가 제일.. 뭘 잘못해서 레즈비언이 된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레즈비언이니까 레즈비언인 건데.

Kaze : 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 날 '레즈비언'이라서 행복해' 자보를 썼단 말이야.



Sea : 우리 신일 모질 자보였죠.

Kaze :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냐? 솔직히 그거 쓸 때만 해도 정말 행복했다? 근데 그 일을 겪고 나서 처음으로 레즈비언으로 사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차라리 이해 정신병이고 약으로 고칠 수 있다면 나는 백번이고 그 약을 먹겠다는 생각을 했어. 그만큼 너무 힘든 거야. 가장 큰 이유는 부모님이요. 별생각이 다 들었어. 그때.

Duke : 내가 레즈비언 인권을 위해 <변태소년 하늬를 날다>에서 활동을 해서 대체 뭐가 바뀌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변태해서 활동을 하면서 이해대를 다니는 친구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해도, 부모님께 내가 '변태소년 하늬를 날다'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자신도 없고, 내가 이걸 몇 년 동안 했고 내 열정을 담고 이것도 부모님은 이해 못해. 못 받아들이는 말. 이런 이 활동 자체에 회의감이 드는 거야. 내가 행복하자고 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으니깐..

Kaze : 그래도 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Duke : 행복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거야. 내가 레즈비언으로서 애인을 만나고 레즈비언 친구들을 만나고 뭐 이런 거 좋아. 그런데 정말 내가 가족이라는 굴레를 벗어서 행복해 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부딪치면서 이 활동 자체에 엄청난 회의감이 들고 한동안 때려치우고 싶었어. 항상 모든 것에 대한 회의감과 괴로움 피해감의 근원이 부모님, 가족이었어.

Kaze : 수라는 어떻게 생각해?

수라 : 저는 집에서 내가 선택한 삶이면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시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집에선 그렇게 무관하고 하시지는 않아요.

Kaze : 그러면 너는 집마다 다 얘기 했어?

수라 : 레즈비언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는데 남자가 있고 결혼을 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는 확실히 했어요.

릴 : 가족을 만들고 싶으신 분은 없으세요? 저는 엄마가 어떻게 살고 싶냐고 물어서서 적자 기증을 받아서라도 아이를 만들고 싶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언젠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이 저로 인해 또 제가 그 사람으로 인해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 꿈을 이루어 가며 가정을 꾸리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가정의 모습을 만들어 아이에게 새로운 가족 형태의 교육을 해주고, '너희 엄마와 엄마는 이런 사랑을 통해 가정을 꾸리고 너를 낳았다. 그리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우리는 너를 존중한다.' 이렇게.

Kaze : 나도 릴이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근데 이런 상황이 내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또 아이를 낳아도 바뀌지 않을 거라 생각해.

야면 : 그런 인식이 앞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엄마-엄마, 혹은 아빠-아빠의 가정에서 자랄 아이에게 이런 정말 못할 짓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입장을 하면서까지 아이를 키우고 싶지는 않아. 만약 굳이 가정을 꾸리자면, 나는 파트너하고만 살고 싶어 돌아서만.

Kaze : 우리가 그런 상황을 좀 이제 개선하고자 이런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한데.

Duke : 가족 이야기를 하면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 내 생각엔.

Kaze : 되게 뭔가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전혀 뭐 쳐 주고.

베니베 : 발전적인 모습이 있을 수가 없잖아.

호섭 : 구조적으로.

Kaze : 지금 비록 상황이 이 따위지만 조금 더 긍정적인 미래를 꿈꿔 보자고. 자, 박하는 어떻게 살고 싶니?





박하: 저는 사실 특별한 제 가족상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저도 그냥 산다면 파트너와 함께 그냥 개나 하나 기르면서.

Seadyke: 개나 하나! (웃음)

박하: 저는 애완동물로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뭐 활동가들이 집안 사정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엄마에게 저만이었을 것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한 달인가 두 달인가.

호섭: 뭐라서?

박하: 제가 술에 많이 취해버렸을 때 엄마, 술직히 나 여자 좋아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술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라고.. 일단, 많이 놀라긴 하셨습니다.. 아직 스몰이니깐 사람들 더 만나보고 가늠성이 있으니까 너를 더 알아두라고 하시고, 그 이후로는 정말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놀랐던 건, 하루는 책상에 책이 하나 꽂혀 있는 거예요. 연세대 컴퓨터대에서 편집한 동성애 바로알기가 동성애자에게 던지는 질문 100가지인가 하는 책이었는데 엄마가 책갈피 끼워놓고 읽고 개인 것을 발견하고서

모두: 우와 대단하시다, 진짜. 야호 (박하)

dyke: 컴퓨터대 자료실을 때보실 정도면 진짜.

Kaze: 자, 이제 Sea 씨 얘기해보세요. 가장 최근에 아웃팅을 겪으신 분이세요.

Sea: 기억이 잘 안 나는데.

Kaze: 기억이 잘 안 나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Sea: 그런 것 같아. 아직도 심장이 두근두근 해요. 내가 애인을 만나러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요. 그러면.. 평소에는 꾸미지도 않고 되게 바보같이 하고 나가는데.

dyke: 알지, 충분히 알지?

Kaze: 포토제닉 변장의 포토제닉!

Sea: 그냥 또 애인 만나니까 예쁘게 차려 입고 평소처럼 '엄마, 나 오늘 ~~어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정신이 반쯤 나간 얼굴로 내 방에 들어오는 거야. 근데 한 한달 전부터 엄마 행동이 좀 이상해서. 나만 보면 이상한 표정을 짓고 뭐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도 안하고. 그래서 나는 엄마가 왜 그러냐 그랬는데.. 내 애인 이름을 말하면서 '너 개 만나러 가니?' 그러는 거야. 심장이 찢어 내려앉았지. 아니라고 했는데 '엄마가 왜 거짓말을 하냐고' 엄마가 너 변장 활동하는 것도 안다고. '엄마는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남자를 만난 걸 알고 있으니까 너는 남자도 많이 만났잖아, 왜 그래?' 그러면서 '엄마야빠는 정상적인 가족생활을 해왔는데 난 왜 그러니?' 하면서 뱀 거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야. 한 시간 동안 싸우면서 엄마한테 내가 레즈비언 인권운동 하면서 배운 지식을 전부 얘기했는데 엄마는 이해가 안 되네. '애날고 잘 살면 되는데 왜 여자랑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나는 '애를 낳는 게 전부 아니냐.' 라고 했는데, 엄마가 계속 강요를 하는 거야. 그러다 결국 '엄마 혼자 결혼을 내렸지. 남자랑 결혼 안 해도 좋고 평생 혼자 살아도 좋는데 여자랑은 안 되네.'

야호: 진짜야, 그게 뭐야?

Sea: 그냥 정말 썩썩 울고 집을 나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카페에 가서 담배를 피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잡지를 읽는데 손이 떨릴 떨리는 거야. 그 때 그 느낌을 정말 잊을 수가 없어. 나는 그냥 빨리 돈 벌어서 집을 나왔으면 좋겠어. 물론 가족을 사랑하지만 이런 정말 아닌 것 같아. (울음) 난 내가 레즈비언 인권운동을 하고 내가 레즈비언인 게 너무 자랑스러워, 행복하고. 난 이때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가족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한순간에 다 무너지더라. 난 너무 자신이 없었어. 독신이라고 하고 애인 계속 만나면서.. 평생 엄마 아빠한테 죄짓고 살겠지.

(한참 조수)

메이백: 근데 난 진짜 나는 이런 얘기 들으면 드는 생각 딱 하나야, 결혼을 해야겠다.

야호: 위장결혼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Sea: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까지 레즈비언으로 살다 결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가봐.

호섭, Sea: 4년 레즈비언, 그런 말도 있고..

(잠시 정적)

Sea: 우리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왜 가족 얘기를 했지?

메이백: 이게 사실 상황이었어. 우리는 그래도 서로 모여서 상황을 얘기할 수 있잖아. 집에서 잡아줄 사람들이 있으니까 되게 감사할 일이야.

Sea: 난 그게 정말 부러워. 정말 진짜 하고 싶었는데.. 이만잠을 보러간 날 마지막에 인터뷰에서 천재라는 낙하산을 가진 주인공의 엄마가 오셔서 그 자리에서 영화를 다 보시고 개가 앞에서 인터뷰를 하니까, '네가 워튼 간에 난 너를 사랑한다.'하면서 무대 앞으로 나가 개를 꼭 끌어안으면서 '정말 울었어. 변장 사람들 되게 많이 있었는데 보니까 다 울고 있더라. 난 그런 엄마를 만난 그 개가 참 부러워. 다들 그렇게 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

(침묵)

Sea: 자 이제 그림 끝내도록 하죠. 끝 -

모두들: 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자 -





함께해주는 분들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레즈비언에 대한 모든 차별과 폭력에 맞서기 위해 노력해 온 〈한국여성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이이이이〉를 전신으로 합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한국 사회 레즈비언의 독자적인 권리 운동을 추구합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레즈비언 억압의 토대인 가부장제와 이성애주의에 맞서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항합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레즈비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사업, 레즈비언 대상 각종 범죄의 예방 및 사법 지원, 자살심 증진과 권리 향상을 위한 교육, 아 탈애와의 교육 및 협력을 통한 레즈비언 권리 운동, 레즈비언 권리 보장을 위한 법 제정 운동, 기타 온 나라의 폭력에 부딪히는 사업을 실행하여 실천적 인권운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994년 11월 (이이이이)의 활동을 계기로 하여 레즈비언 인권운동은 10여 년간 진행되어 왔고, 최근 레즈비언 커뮤니티의 형성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나 레즈비언의 존재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레즈비언을 향한 폭력은 더욱 거세지고, 레즈비언이 해를 당해 살아야 하는 자살도 심각합니다. 이것이 이 사회에는 레즈비언의 존재 자체에 대한 두려움, 패색이 짙어진 것입니다.

레즈비언은 이성으로서 그리고 동성애자로 이들의 억압에 대해 있습니다. 경제성 불안, 거침없음과 자유의 문제, 독립의 문제, 고령의 문제, 레즈비언을 대상으로 한 범죄 등 레즈비언이 직면하고 있는 지점들은 너무나 많고 심각합니다. 많은 레즈비언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개별인의 레즈비언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알아주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줄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개별인의 레즈비언의 고민을 모아 레즈비언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할 공간 역시 꼭 필요합니다. 이에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한국 최초의 독자적인 레즈비언 상담소로서, 레즈비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레즈비언을 억압하는 가부장제와 이성애주의 및 이에 근간한 제도에 대항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9시까지 만나고 있으며, 전화상담, 세이탈상담, 이메일상담, 현장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가부장제와 이성애주의에 맞서는 활동들과 글쓰기 활동을, 개별인 레즈비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레즈비언을 향한 모든 차별과 억압의 증식을 위하여 열심히 활동해 나가고 있습니다.



함께해주는 분들 - 한국레즈비언권리연구소

Lesbian Institute For Lesbians (LIFL)

1. 레즈비언권리연구소 소개

레즈비언권리연구소(LIFL)는 김현영공동체입니다.

레즈비언권리연구소(LIFL)는 김현영공동체입니다.

레즈비언권리연구소(LIFL)는

01 레즈비언의 시각으로 레즈비언을 경험하는 행위를 미행하고,

02 레즈비언의 목소리로 저항하며

03 레즈비언을 위한 실천적 지식을 생산하고,

04 레즈비언을 위한 공진적 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한 연구소입니다.

2. 레즈비언권리연구소 연구사업 계획

01 쟁점토론회 개최

레즈비언 권리에 관한 다양한 이슈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쟁점토론회는 레즈비언이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는 물론 레즈비언 권리 운동 안팎의 이슈를 다룹니다.

02 한국레즈비언인권실례 보고서 발간

〈레즈비언권리연구소〉는 한국 레즈비언 인권 침해 사례를 위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위한 설문조사는 전 1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당 연도의 실제 조사 결과는 레즈비언 권리 향상을 알리고,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 1회의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레즈비언 인권 상황의 변화추이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운동단체의 과제 설정, 장기적인 정책 수립의 과제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03 레즈비언 증언서 기록, 수집, 출판

다양한 형태의 레즈비언들이 겪어 온 삶의 이야기를 모아 출판하고자 합니다. 레즈비언 증언서 수집은 〈레즈비언권리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레즈비언권리연구소〉는 레즈비언의 구체적인 역사를 복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04 번역, 출판 사업

〈레즈비언권리연구소〉는 레즈비언 관련 이슈를 다루는 국외 자료를 번역·출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5 「LIFL 총서」 발간

〈레즈비언권리연구소〉는 정기적인 「LIFL 총서」 발간을 통해 한국 레즈비언 권리에 관한 쟁점을 정리하고, 현실 변화를 위한 총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06 사이버 레즈비언 아카이브 구축

동성애 레즈비언 커뮤니티의 발굴, 그간 진행되어 온 레즈비언 권리 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한 자료관 구축 사업입니다.

07 기타 사업

이 외에도 언론 미팅, 증언 캠페인, 교육 매뉴얼 등 다양한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 레즈비언 권리 운동 이해를 위한 교육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후원계좌

* 예금주: 레즈비언권리연구소

계좌: 048-22-03716-5 주: 018-712174-13-001 소: 595-01-015270

국민은행: 498101-01-075780 농협: 037-01-311396

* 예금주: 박수진

소: 333-04-761486

* 사무전화: (02) 714-4017

* E-mail: lifl2003@mpal.com

* Homepage: <http://lesbian.or.kr>



바람

반달이 신입아반치고 들어온지 어떤 3개월-
 달하운 글마감으로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바쁜 일상들에 회의를 구겨넣어,
 포스터 붙이느라 재고생하며 모두들 굉장히 수고하셨어요.
 다섯번째 문화제, 두근두근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태소년들, 연희와 세상 곳곳의 레즈비언들,
 그리고 자금 아들을 읽는 당신!
 우리 다함께 하늘을 날아보아요 :)

p.s. 1> 내 걸의 소중한 사람들, 항상 고마워요 :)
 p.s. 2> 스페셜 땡스투를 할 애인님이 없다는것은 슬프군요 ;o;

수리

최고로로 바쁜 9월을 보냈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신 KAZE언니 Sea언니 버어버니 Dykeblue언니 스페니언니
 아현언니 통카언니 릴 박하 그리고 달님 M님 갠님 호상언니....
 사랑해요!
 레즈비언이어서 행복합니다.

여론도 비난도 나오지 않는 좀더 좋은 파란 향. 환기도 되지 않아 사리질 줄 모르는
 체한 냄새와 군데군데 떨어진 담뱃재와 공초,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있는 무지개 색 자보들..
 문화제를 향한 우리의 열정, 열정, 진장의 이 모든 조각들이 이 한 곳에
 몰려도 역시 모두 살아 숨쉬고 있다.

방문 앞에는 차마 붙이지 못한, 방문 뒷면에 붙여 있는
 다섯 번째 문화제 포스터를 보니 또 한번 가슴이 뻘뻘해진다.
 이토록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곳곳이 계속해서 잡초처럼 살아있고, 또 일어났으니까!!

반달의 다섯 번째, 그리고 나의 두 번째 문화제 '변.하.다.'
 그래, 작년 문화제와는 많은 것들이 변했다.
 개인적으로 이제 난 더 이상? 레즈비언이라 행복해요?를 외치진 못했던 신앙심이 아니지만,
 사랑하는 사람도 다시 만났고, 새로운 활동도 여러 가지 시작했다.
 반달에는 새로운 얼굴도 많아졌고, 못보게 된 사람도 그만큼 많아졌다.

하지만! 변치 않고 여전히 내 길을 지켜주는 한영 한영의 왓스 변태소년들 정말 수고 많았다.
 특히 우리 과묵한 산입들(한영배고) 끝까지 과묵함 지키느라 수고했어.
 구입(?)들은 숙스러운 말 같은건 필요없겠지? 하하- 함하고, 그래도 열심히 살자!
 또한, 더듬는 말만 해줬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나의 가족 또한, 감사합니다.
 나를 믿고 지지해주고, 내가 많이 좋아하는, 보고싶은 당신들에게도 언제나 고맙고.

그리고 스페셜 땡스투!!로 나의 작고 귀여운 애들, 매일 타격감이지만, 많이 사랑하는거 알지?
 항상 비록 잔재로 잘 못행해주어서 미안해

음, 구가름 쓰았는데 글 한편을 썼네 하지만 또 마지막으로 작지만 큰 바람이 있다.
 문화제 재목처럼, 문화제를 보고 느끼며 당신들에게 또 하나의 참다운 변화를 우리가 가져다 줄 수 있길!

Dykeblue

Sea

우와, 벌써 또 1년이 가고 이렇게 문화제 후기를 쓸때가 오다니.
 시간 정말 빠르다- 나 계속 늙어가네? ㅋㅋㅋ
 의무와 열정으로 흘러넘쳤던 작년과는 달리 이번 문화제에서의 나는 약간은 양전해졌것같아.
 일찍이래 조금은 익숙해진것같아, 초코하가나 그걸친 알고 좀 여유롭게
 땡스투를 하지만,
 일단 다 일어서도 모르는 척 해주는 나의 가족들에게, 고맙고 아인해요.
 자랑스런 내 친구들, 서로 힘든일 많으면서도 문화제만 다가오면 예민해지는 날 다독여줘서
 언제나 그렇듯 너무나 고맙고 사랑하고,
 반달사람들, 이제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말하는 사아가 되어버린것 같아서 참 좋다.
 물론 산입들은.. 눈으로 말하지 말고 입으로 좀 말하지 아들이아 ㅋㅋㅋㅋ
 야튼, 이번 문화제도 우리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레인보우가만 봐도 눈물평판만큼! 잘해보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나의 J.
 내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거야. 우리 언젠가 손 꼭잡고 같이 하늘을 훨훨 날아보자-
 내 걸에서 앞게 웃으며 함께해줘서 너무 고마워, 사랑해요.

나를 첫 문화제 - 두근두근 하기 그치않군요.
 작은 못해 말수없던 때가 었그제 같은데 어쩔 이리 작음을 해냈는지 신음할지 않은
 신앙이라 최종합격이네요 :)
 참아낸 힘과 같다면 나를 길게 준비해온 우리 문화제, 우리가 원하고 느끼는 바를
 조금이라도 이루어냈으면 하는 바람이 큼나.
 같이 준비해온 활동가들의 아들이 뻗속길이 스며들고 있는 요즘.
 언젠가면 우리가 웃을 수 있을까 ... 다음을, 또 그 다음을 기억합니다.
 레즈비언이어서, 레즈비언이라 행복한 우리를 웃을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부디 :)
 같이 문화제 준비하느라 너무너무 수고한 우리 활동가들, 그 듅직한 어깨에 힘을 실어 주고싶다!
 다들 문화제 끝나고 즐거웠으며 같이 웃자!
 p.s 재한 홀로 있군요. 외롭사와요. (만남)

변태소년들과의 만남 그리고 그 구성원이 되는 것은 재하 오래도록 바리엔 일이었고.
 자금 재는 드디어 원하면 곳에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이번 문화제, 정말 수고하셨고 부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이룰 수 있기를.
 언젠가 꼭 함께 마시고야 말 우리 변태소년들,
 그리고 힘이 되어주는 친구들, 아바, 얼마 모두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중한 J. 그 길고 힘든 시간 동안 날 붙들어 준 네게
 어떤 말로 이 감정들을 전해야 할 지 모르겠어.
 그저 내가 길에 앞는 사실에 늘 감사하고, 사랑해사랑해사랑해!

리



도움이 될까해서 은근슬쩍 참여해봤는데, 쉼표 한 일 있어 되돌릴 따름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뜻깊은 일을 할 수 있어 기뻐요,
일 년에 한 번 뿐인 이 문화제야,
레즈비언을 향한 이따인들의 시선을 조금이나마 바꾸어주는 발판이 되길 바랄게요.
모두 정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변할 파이팅. :)

동키

스테파니

대학원과 동시에 나와 함께 했던 변할,
아무것도 몰랐던 쫓겨난 20살때와 지금. 크게 변한 건 없었어.
날 가장 가슴아프게 하는 건, 언젠쯤 우리 변할스녀들이
하늘 위로 훨훨 날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
한해 한해, 때와 때를 거듭하고
'아니야, 내년은 훨씬 나아질거야!' 라는 나의 긍정도 힘을 잃어간다.
언젠쯤 쫓겨났던 진정한 '내' 모습이 재탄생할 수 있을까?
코아코아한 이중생활과 친구에게 말 못하는 나의 연하가
언젠쯤 '미칠' 혹은 '가실'거리가 되지 않을까?
의문에 의문은 꼬리를 물고 긍정 인으로 부정의 물결 때를,
하지만, 그래도, 한번더, 조금만 더, 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함께 울고 웃어준 나의 변할스녀들.. 짝!
레즈비언 딸을 둔 최인아씨는 우리 영희와 아바, 나를 애용하러고 많이 노력하는 언니,
나의 존재를 알지도 불구하고 묵아주고 있는 귀한 친구들, 고마워, 진실.
무엇보다도
감히 내 인생의 전부라 말할 수 있는, 존재만으로도 가슴 벅찬 당신!
내 모든걸 담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난 잘못됐다. 그런데, 이번에 글쓰면서 막연히 힘들까라고만 생각했던 레즈비언의 삶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더 팍팍하고 어엿고 억울한일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사람이 사는데는 연애가 있으면 당연히 임신도 있지만, 굳이 임신 않아도 되는걸 임아가 한다면
그럴지언가 위해 노력하는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이 처음 문화제 참여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하나 글쓰는게 아무것도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나를 오늘도 한번 더 깨반으로 해볼란다.
어떻게? 망국으로 응원하는 거로... 보이지 않게 지지하는 거로...
진짜 나를 어떤 상황에서든 임지 않는 거로.

P.S
이걸 보는 모든 이쁜남자들
아무편만없이, 아무 가운없이
자유로운 보헤미안의 영혼처럼
우리와 함께해주시길 기대합니다 :)

그리고 다시 한번 지지합니다. 우리애들 가족들... ^

포섭

변할의 5번째 문화제, 그리고 내가 참여하는 두번째 문화제.
사실 그다지 열심히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박혔던 이번 문화제야.
우리 변할 식구들과 새로운 (쫓겨나진 않지만) 신입들,
모두모두 수고했고 고맙고, 크큭- 다 잘될거야.
그리고 변할 내 걱정하느라고 수고하고 있는 우리 애기씨,
고마워-

또한 내 머리속에 있는 몇몇 사람들,
고마운 사람 미운 사람 등등 그래도 다들 모두에게 축복이 있기를-

변할스녀

작년 한해, 변할스녀들과 떨어져 있던 일년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무언가를 잃고, 그리고 잊고, 자냈던 시간이었어.
그런 탓인지, 일년의 공백을 보내고 준비하는 이번 문화제에는
의욕에 넘쳐 이것저것 욕심을 많이 부리기도 했다.
혼자 사서 고생한다고 수면에서 걱정하던 얘기도 많이 하곤 했지만,
그동안 내가 이곳을 그리워하고, 함께하고 싶었던 민품의 마음을 담았기에 그랴나 설명하고 싶고
변할스녀들과 다시 함께하는 이번 해,
나는 마치 집으로 돌아온 듯한 느낌에 가슴이 벅찼다.
애마운 일들도 많았고, 그때마다 좌절감에, 상실감에 힘들어 한 적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내 손을 잡아주고, 눈물을 닦아주던 변할스녀들,
당신들은 내게 참 소중한 사람들이예요.
아면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만큼, 너무 고맙고 또 고마워요.

그리고 나의 소중한 M,
편한 투정과 반격으로 속속해서 마인 -
앞으로 더 잘할게요.
나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쟁쟁하고 많이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사랑해-
컬러 다잇템들을 좋아하는 변할스녀들을 낳는 레즈비언 문화제,
하루하루,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할스녀들의 생각이 우리를 존재하게 합니다.
백명의 사람들에게 우리 이야기를 하고, 그 중 단 한명, 바로 당신이 우리를 긍정하게 된다면,
변할스녀들의 목소리는 결코 부질없는 외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그 소중한 한 명이 되어주세요.
변할스녀의 날개짓이 계속 될 수 있게 말해주세요 :)

RAZE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다섯번째 레즈비언 문화제
〈변하다〉 자료집

발행일 2007년 9월 17일

편집디자인 KAZE

표지디자인 KAZE

펴낸곳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TEL 02 3277 4712

E-MAIL flyinggirl@hanmail.net